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 학위 논문

濟州島 麗末鮮初 墳墓 研究

지도교수 이 영 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고고학전공

김 봉 찬

2013년 8월

濟州島 麗末鮮初 墳墓 研究

A Study on the Tombs of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in Jeju-do

지도교수 이 영 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고고학전공

김 봉 찬

2013년 8월

濟州島 麗末鮮初 墳墓 研究

목포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고고학전공

김 봉 찬

상기자의 문학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 세 광



심 사 위 원

김 건 두



심 사 위 원

이 영 문



2013년 8월

목 차

ABSTRACT

제1장 머리말	1
제1절 연구사	3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7
제2장 분묘유적 및 문헌자료의 검토	10
제1절 유적검토	10
제2절 문헌자료의 검토	18
제3장 형식분류 및 편년	30
제1절 축조방법에 의한 형식분류	30
제2절 부장유물의 검토	50
제3절 분묘의 편년	61
제4장 시기별 분묘의 변천	64
제1절 I 期(13세기 후 ~ 15세기 초)	64
제2절 II 期(15세기 초 ~ 16세기 이후)	73
제5장 제주도 분묘의 특징과 성격	79
제1절 유형별 분묘의 특징	79
제2절 제주도 러말선초 분묘의 성격	84
제6장 맺음말	97
참고문헌	100
국문초록	105

표 목 차

<표 1> 고려-조선시대 분묘 연구사	7
<표 2> 제주분묘의 구조 용어표	24
<표 3> 제주도 려말선초대 분묘 내부 충진토 현황 ...	29
<표 4> 제주도 려말선초대 분묘 유구 제원표	33
<표 5> I A1식 유구 제원표	38
<표 6> I A2식 유구 제원표	41
<표 7> I B식 유구 제원표	45
<표 8> II형 유구 제원표	48
<표 9> III형 유구 제원표	49
<표 10> 분묘 유형별 출토유물현황표	51
<표 11> 유형별 편년 모식도	62
<표 12> I A1·2식 호석 규모 및 장단축비 현황표	64
<표 13> 하원동분묘 묘역시설 규모 현황표	66
<표 14> 경종 원년의 분묘 규모	67
<표 15> 피장자가 확실한 묘역시설 설치 분묘 현황 ..	67
<표 16> 성주·왕자의 무산계 수직자	68
<표 17> I 期 유적 입지분석현황표	72
<표 18> II 期 유적 입지분석현황표	76
<표 19> 성주·왕자의 고려 방문표.....	85

도 표 목 차

<도표 1> 시기별 I A1식·III형 분묘규모 현황표	70
<도표 2> 시기별 I B식·II형 분묘규모 현황표	75
<도표 3> I 期 분묘유적 출토유물 현황표	78
<도표 4> II 期 분묘유적 출토유물 현황표	78

그 립 목 차

<그림 1> 제주도 러말선초 분묘유적 분포도	11
<그림 2> 제주의 무덤 구조 모식도	24
<그림 3> 田頭期墳의 예	24
<그림 4> I A식 분묘 분포도	35
<그림 5> I A1식 유형 분류도	37
<그림 6> I A2식 유형 분류도	40
<그림 7> I B식 분묘 분포도	42
<그림 8> I B식 유형 분류도	44
<그림 9> II형 유형 분류도	47
<그림 10> III형 유형 분류도	49
<그림 11> 출토유물일괄(자기류)	54
<그림 12> 출토유물일괄(도기류)	56
<그림 13> 출토유물일괄(청동기류)	58
<그림 14> 출토유물일괄(철기류)	60
<그림 15> 육곡 고려고분군 3호 묘	80
<그림 16> 하원동분묘 1호 묘	80
<그림 17> 상산김씨 김후의 묘	80
<그림 18> 하원동분묘 1호 묘	80
<그림 19> 문경공고조기묘 전경	81
<그림 20> 금성리분묘 I 8호 묘 전경	95
<그림 21> 금성리분묘 I 11호 묘 전경	95

A STUDY ON THE TOMBS OF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IN JEJU-DO

Kim Bong Chan

Major : Archaeology

Department of Korea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Young mun)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tombs in Jeju-do b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nge in local ruling class and transition of tombs, before and after the abolition of the Seongju system in relation to the periodical transition of tomb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Jeju-do at the time through the examination above.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rms of tombs and burial goods in the data obtained from official investigations and excavations in the whole area of Jeju-do, and referred to bibliographic data to classify the type and period of the tombs. The type tombs can be classified largely into wooden coffin tomb (Type I), soil covered tomb (Type II), and stone lined tomb (Type III). Wooden coffin tombs are subdivided into boundary wooden coffin tomb (Style I A) and pure wooden coffin tomb (Style I B) according to the boundary facilities outside the chamber; and boundary wooden coffin tomb (Style I A1) is divided

into stone slab boundary wooden coffin tomb (Style I A1) and trimmed stone boundary wooden coffin tomb (Style I A2) according to stone slabs. Moreover, the period of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tombs in Jeju-do can be divided into Period I and Period II in accordance with the early 15th century and on the basis of Hwabuk-dong tomb sites.

Period I includes boundary wooden coffin tombs of Style I A2 excluding Geumseong-ri relics and I A1 as well as relics in the Jeju attractive port site (District II Tomb no. 9) among Style I B. The size of Style I A1-2 tombs is large compared to Period II, and the site is mostly the hilly mountainous areas at least 200m above sea level along the ridges. Burial goods barely remain due to the effect of tomb robbery, but there are some in good shape in the Sangchang-ri tomb site. This indicates that pottery was the main type of burial goods, and various kinds of bronze tools were also buried. The Jeju attractive port site (Style I B) tends to be large within the same style, and celadon dishes and bronze spoons were found as burial goods. However, it is located in the low-lying coastal areas lower than 50m above sea level, which shows a difference from the tombs in the same period.

Period II mostly includes Style I B, which positioned itself as the major type of tomb in Jeju-do as time passed. In addition, Jeju Seong-eup-ri tomb site from Style I A1 and Types II·III are included in Period II. Style I B tombs were mostly built in Period II, many of which have holes inside the tombs with burial goods such as white porcelain bowls and cups. Moreover, among the tomb remains in the Jeju attractive port site, tombs no. 3 to 8 in District II were lined up side by side as a group, showing the form of a family tomb. The Jeju Seong-eup-ri tomb site of Type I A1 and the Jeju Sagye-ri tomb site of Type III seem to be the tombs of influential people in the area judging from their shape. Compared to

the Style I A1·2 tombs in Period I, the size became more miniaturized. Furthermore, soil covered tombs of Type II are found during this period, only in the Geumseong-ri tomb site. They were built in the coastal dune, and the human bones discovered inside the tombs are mostly those of infants. This indicates that the increased deaths of infants from contagious diseases or famine made the people choose the dune to bury the infants without making a mound on the grave. Compared to Period I, Period II involved a change in the locational aspect to the low-lying coastal areas lower than 100m above sea level. Graveyards also tended to show diversification in terms of location, from ridges to easy slopes, escarpment, flat land, and coastal dunes. Burial goods mostly consist of grayish-blue-powdered celadon and white porcelain, and mainly bronze spoons among bronze tools. It can be found that less bronze tools were buried compared to Period I.

The change in tombs is caused by the change in the ruling class of Jeju in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Jeju-do is a lonely island in the distant sea far away from the land, where the central ruling powers could not reach. Thus, Jeju had its own autonomous ruling system called the Seongju system under the conniv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s Seongju system had its own autonomous right in the direct domination of the Yuan Dynasty in the Late Goryeo period, maintaining its influence within Jeju-do. However, as the local ruling system was reinforced to attain centralization of power after the foundation of Joseon, Jeju's Seongju Ko Bong-rye and Prince Moon Choong-sae turned in their titles, and the autonomous local ruling powers degenerated into the local Sajok position or local Hyangri position. Moreover, with the strong enforcement of the legislation imposing legal controls on building tombs, the size of Style I A tombs changed from enlargement to miniaturization and gradually became extinct.

On the contrary, Style I B tombs were built more actively, as the funeral rites culture was widespread among the general public as the position of civilians improved along with the propagation of Neo-Confucianism after the foundation of Joseon.

Thus, due to such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Styles I A1·2 reduced gradually and became extinct, followed by the settlement of Style I B as the main type of tomb used by the local Hyangri position and the common civilians.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ombs by studying the types of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tombs in Jeju-do, burial goods, and the periodical transition process. However, there are insignificant research examples and insufficient data thus far, due to which the study could not show clear progress. Therefore, research will be conducted continuously after collecting data through investigation and excavation.

제1장 머리말

무덤은 고고학 연구에 있어 취락분야(특히 주거지)와 더불어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이다. 이는 고고학이란 학문의 목적이 그 당시의 문화·역사를 밝히는 것¹⁾임을 감안할 때 당시 문화의 흔적이 가장 확실하게 또는 가장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무덤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강한 시대적 보수성과 형태적 정형성 때문에 고고학연구에 있어 그 중요도가 매우 높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가 생자(生者)에 의한 삶의 행위를 통해 생성되는 공간이라면 무덤은 망자를 위한 영원한 안식처로서의 공간인 동시에 망자에 대한 경외심이 깃들여진 생자(生者)들의 의식적인 공간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 무덤의 흐름은 신석기시대의 원시토광묘를 시작으로 지석묘, 석곽묘, 석관묘, 토광묘, 옹관묘를 거쳐 흙 또는 돌을 이용하여 거대 봉분을 조성하는 고분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흐름은 고려-조선시대로 이어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제주도의 무덤도 육지부의 무덤 변천과정과 유사하여 선사시대의 지석묘, 옹관묘, 석관·곽묘, 토광묘로의 흐름²⁾까지는 확인되나 삼국시대 이후부터 육지부에서 확인되는 거대봉분을 이루는 고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무덤의 부존은 제주도 분묘연구에 있어 숙제로 남아 있다³⁾.

이후 제주도의 분묘⁴⁾는 고려시대에 이르러서야 확인되는데, 주로 13세

- 1) 김원용, 2005,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 一志社, p1.
“考古學은 사람의 행동이 남긴 물질적 흔적(유적과 인공 및 자연 유물)을 통해서 그것을 남긴 사람들의 문화·역사를 밝히는 학문이다.”
- 2) 현재까지 제주도 내에서 신석기시대무덤으로 알려진 예로는 성읍리유적(21호수혈)으로 수혈 안에서 골편이 토기에 담겨져서 확인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신석기시대 무덤인지에 대한 이견이 많아 아직까지 제주도 내에서 신석기시대 무덤의 존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할 수 있다.
- 3) 제주도 내 역사시대 수장급 무덤으로는 용담동 고분유적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부장품으로는 무덤 내부에서 철제장검 2점, 단검 1점, 창 1점, 끝형무기 1점 등이 출토되어 당시 제주도 최상 위층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육지부에서 확인되는 고총고분의 형태는 아니다. 아직까지 수장급 무덤으로는 이 1기의 무덤만 확인되어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 이전까지의 제주도 지배세력에 대한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 4) 앞의 글의 ‘무덤’이라는 용어는 광의의 의미로 전시대를 통틀어 조성된 모든 유형의 묘제를 통칭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고려시대 이후에 조성된 묘제에 대해 ‘고

기 이후에야 확인된다. 이는 고려 후기⁵⁾ 이후 정권교체기에 들어 고려 조정에 있던 제주인들이 고향으로 낙향⁶⁾하거나 고려유신⁷⁾들이 제주도로 좌천 혹은 이주를 해오면서 육지의 상례문화가 같이 유입되면서 확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1년에 제주도 고려-조선시대 분묘연구에 있어 중요한 유적이 확인되었다. 금성리 분묘유적이 그것이다. 금성리 분묘 유적은 금성리 436번지 일원에 위치하는데 하수관거 공사시 모래층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인골과 유물이 노출되어 긴급수습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확인된 유적이다. 그동안 려말선초대의 제주도 분묘에 대한 조사는 대체로 묘역목관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성격과 축조방법 등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금성리 분묘유적의 경우에는 그동안 조사된 적이 없는 새로운 분묘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인골의 유존상태가(공사시 일부교란되었지만) 대단히 양호하여 제주도 분묘연구 뿐만 아니라 체질인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도의 고려-조선시대 분묘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발굴 조사가 이뤄져 왔으나 선사시대 유적에 비해 제주도 내 연구자들에게 소홀히 다뤄져 왔음은 부인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선사시대 유적에 비해 조사 예가 미진한 것도 있지만 연구자들의 전공분야가 주로 선사시대에 집중되어 고려-조선시대 분묘가 관심 밖이라는 점이 가장 클 것이다.

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있는데 흔히 '고분'이라는 용어는 주로 삼국시대의 묘제를 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려시대 이후에 조성되는 묘제에 대한 용어로 '고분'을 사용할 경우 삼국시대 묘제와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분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5) 박용운, 『고려시대사(상)』, 一志社, p14.

“고려시대의 시기구분은 毅宗 24年(1170)의 武臣亂을 분수령으로 하여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다시 전기는 고려의 貴族社會가 성립하는 과정과 그 이후로, 그리고 後期는 1270년까지의 武臣執權期와 그 이후의 4시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6) 이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문경공고조기묘가 있다. 고조기(1088~1157)는 당시 제주를 지배하고 있던 성주충인 고씨의 일족으로 그의 아버지 고유가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당시 수도인 개경에서 나고 자란 인물로 이후 毅宗 3년 4월에 中書侍郎平章事(정2품)로 승진하며, 3년 12월에는 權判吏部事에 임명되었다가 곧 權을 벗고 判吏部事로 발령받아 최고직인 門下侍中(중1품)이 공적이었으므로 判吏部事를 겸하여 제상 서열 제1위인 수상까지 올랐다.

7) 이와 관련된 분묘로는 제주의 入道始祖墓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김해김씨 좌정승공파의 입도시조인 좌정승(左政丞) 김만희(1314~1404)의 묘, 경주이씨입도시조인 교리(敎理) 이미의 묘, 청주한씨입도시조인 한천의 묘, 광산김씨입도시조인 김윤조의 묘 등이 있다.

이로 인하여 고려-조선시대 분묘는 개별유적의 보고서에서 고찰로서 간략하게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경향은 제주도 고려-조선시대의 분묘유적에 대한 연구가 주로 향토연구자들에 의해 민속학적·문화사적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요인이 되었다. 이에 금번 발굴조사된 금성리 분묘유적을 포함하여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식으로 발굴조사된 분묘유적에 한하여 제주도의 러말선초대의 분묘를 중심으로 분묘의 유형과 부장유물의 변화 그리고 시기별 변화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1절 연구사

제주도 분묘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발굴조사를 통한 보고서의 고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향토연구자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으나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김인호⁸⁾, 김태능⁹⁾, 문기선¹⁰⁾, 김유정¹¹⁾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하원동 탐라왕자묘(이하 하원동 분묘유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고학적 자료보다는 민속학적 관점과 언어학적 관점을 들어 연구하였다.

먼저 김태능은 그의 글에서 하원동분묘를 언급하면서 법화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왕자묘는 태종 4년에 제주에서 생을 마친 원나라 양왕의 왕자 백백태자의 묘소인데 오랫동안 잘못 구전된 것으로 보았다. 그 근거로는 분묘 내의 석상을 들었다. 석상의 형태는 긴 홀(笏)을 잡고 관복에 관대까지 띠었으며 손가락과 관복 소매 주름이 섬세하고 부드럽게 조각되었는데 이러한 형태는 흔히 볼 수 있는 문관석상과 달라 원나라 백백태자의 묘로 추정하였다.

김인호는 제주도에 탐라국이 실존하였는데 도내에 왕릉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탐라국 국왕의 성이 유리(儒李), 도동(徒冬)이니 하는 인명양식은 부여계에 속하며 왕릉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로

8) 김인호, 1991, 「제주에 고분이 왜 없나?(5)」 『월간관광제주』.

_____, 1995, 「濟州島 古墳에 대한 一見解」, 『濟州島史研究』 第4輯, 濟州島史研究會.

9) 김태능, 1967, 「元順帝의 避難宮殿址와 伯伯太子의 墓」, 『제주도』 31, 제주도청.

10) 문기선, 2003, 「제주 최초의 석상 조성적 조명 연구보고」, 『인문학연구』 제10집,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1) 김유정, 2011, 「아무도 모르는 석상의 수수께끼-서귀포시 하원동 傳왕자묘」, 『제주 풍토와 무덤』, 서귀포문화원.

는 이러한 북방계의 매장방식인 深葬無標, 上不起墳하여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하원동탐라왕자묘에 대해서는 묘역 안 문인상의 복식형태와 홀(笏)의 크기, 홀을 잡은 손의 위치가 제주도내 분묘에서 확인되는 것과 다르며 분묘 주변에 말무덤(馬塚)이 있는 것은 북방기마민족의 풍습이라고 하여 하원동분묘의 피장자를 원나라에서 온 백백태자의 묘라고 주장하였다.

문기선은 하원동분묘 석상의 복식이 이국적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보면서 하원동 분묘 발굴조사자의 의견을 따라 하원동분묘의 피장자를 남평문씨의 분묘로 보았다.

김유정은 하원동분묘의 이국적인 석상을 주목하면서 석상의 조각기법을 ‘쫓아 파기 방법(循石造型)’이며 이러한 조각방법은 큰 석재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고, 석재 공구가 미흡할 때 쓰이는 방법으로 보았다. 이러한 점을 들어 비록 석상의 재료는 제주도 내의 석질이지만 명에 의해 강제로 제주로 유배온 운남출신의 민간석공이 만들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피장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백백태자의 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제주도 상례문화와 관련된 글로는 김봉옥¹²⁾, 고부자¹³⁾ 등이 있다. 김봉옥은 제주도의 풍장(風葬)에 대해 과거 향토사를 서술할 때 공문헌(公文獻)과 사문헌(私文獻) 중 종종 사문헌을 인용하여 사실과 달리 전해졌음을 지적하며 공문헌을 바탕으로 제주도 풍장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풍장설과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서 탐라기년과 연려실기술에서 기건목사가 제주도 목사로 부임한 후 도내에서 풍장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고 도민들에게 상례문화를 전수해줬다고 하는 기사에 대해 당시 제주도의 나환자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서 제주도의 풍장설은 나환자를 격리조치하던 것을 오해에 비롯하여 풍장이 이뤄진 것으로 잘못 전해진 것으로 이는 일종의 질병예방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부자는 민속학적 방법에 따라 1970년대부터 86년도까지 도내 전지역에 걸쳐 노인들을 대상을 면담 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상속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면담을 통해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상례절차를 초상→소

12) 金奉玉, 1986, 「濟州의 風葬說에 대한 論議」, 『濟州島研究』第3輯, 濟州島研究會.

13) 高富子, 1986, 「濟州島民의 喪俗」, 『濟州島研究』第3輯, 濟州島研究會.

상→대상→제사→묘제 단계로 보면서 주로 제 1단계인 초상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외의 연구로는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발굴보고서의 고찰에 의해 연구되었다. 하원동분묘에 대해서 향토연구자들인 김인호, 김태능은 백백태자와 그 일족의 묘라고 본 반면 발굴조사를 담당했던 연구자들은 이들 향토연구자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남평문씨의 묘로 왕자직에 있던 자의 묘라고 주장하였다. 반론의 근거로는 먼저 김인호가 주장한 북방유목민의 매장방식인 ‘深藏無標’, ‘上不起墳’에 대해 하원동분묘의 경우 외곽으로 상석과 비석이 놓여져 있어 이와 맞지 않는다 하였다. 그리고 말무덤(馬塚)에 대해 조사결과 말무덤이 아니라 일제 당시 도굴되면서 쌓아 놓은 흙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인호, 김태능이 지적한 석상의 이국적 형태에 대해 지역별, 신분별로 달리 제작될 수 있으며 석공의 우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 외에 도내에 속칭 ‘왕자묘’로 불리고 있는 곳이 다수 존재함을 들어 백백태자의 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최근에 발간된 제주도 고려-조선시대 분묘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조사되었던 제주도 분묘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실시하였다. 특히 제주 성읍리분묘유적¹⁴⁾의 고찰에서 하원동분묘유적과 화북동분묘유적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상창리 분묘유적¹⁵⁾과 더불어 분묘의 유형분류를 실시하여 제주도 분묘연구에 대한 새로운 진전을 보여 주었다. 성읍리분묘유적의 발굴조사자는 하원동분묘와 화북동분묘를 중심으로 분묘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기존에 알려진 화북동분묘의 피장자를 고봉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상창리분묘유적 보고서 고찰편에서 보고자는 상창리분묘를 비롯한 유사한 형태의 분묘를 방형분묘로 칭하며 기존에 알려진 석곽묘와의 축조 방법상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장방형의 호석이 설치된 토광묘로 분류하였다. 또한 분묘의 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며 이는 피장자의 지위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서열적 구분으로도 볼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려-조선시대 분묘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

14)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제주 성읍리분묘유적-고찰편-』 제21집.

15) 제주고고학연구소, 2012, 『서귀포 상창리분묘-고찰편-』 제3집.

에 조선총독부¹⁶⁾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해방 이후부터 대단위 국토 개발이 이루어진 1990년대 까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단위 국토 개발에 따른 분묘 조사에가 증가함에 따라 분묘에 대한 연구가 심도 깊게 진행되어왔다.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진 분묘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분묘 자체에 대한 연구와 분묘 출토 유물에 대한 연구로 대별된다.

분묘 자체에 대한 연구는 황정욱¹⁷⁾, 고성영¹⁸⁾, 이희인¹⁹⁾, 황순녀²⁰⁾, 양미옥²¹⁾, 고금님²²⁾, 김판석²³⁾, 이수정²⁴⁾, 김정선²⁵⁾, 황은경²⁶⁾, 이성배²⁷⁾, 김남호²⁸⁾ 등이 있다. 주로 고려-조선시대 분묘가 많이 확인되는 경기·충청·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지역단위별 분묘의 형식 분류와 변화상, 그리고 변화 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분묘 출토 유물에 대한 연구로는 고현수²⁹⁾, 주영민³⁰⁾, 현문필³¹⁾, 박미옥³²⁾, 김종진³³⁾, 김병수³⁴⁾, 김은경³⁵⁾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분묘

16) 朝鮮總督府, 1916, 『大正五年度古墳調査報告』.

17) 黃最郁, 2002, 『高麗時代 石槨墓 研究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8) 고성영, 2003, 『高麗 석곽묘와 토광묘 研究 -混在分布遺蹟을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李義仁, 2003, 『中部地方 高麗時代 古墳 研究 -石槨墓와 土壙墓를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 黃순녀, 2004, 『경북부지역 고려분묘의 형식과 편년』, 안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梁美玉, 2005,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 연구』, 韓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2) 高금님, 2005, 『湖南地域 高麗 石槨墓 研究』, 全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3) 金判碩, 2008, 『慶南地域 朝鮮時代 墳墓 研究』, 釜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이수정, 2009, 『충북지역 고려고분 연구』, 釜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金景善, 2009, 『조선시대 토광묘의 편년연구』, 成均館大學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黃恩景, 2010, 『고려시대 양광도지역 분묘 연구』,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7) 이성배, 2012, 『충청지역 고려-조선묘의 내부시설연구 -요강과 벽감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 金楠祐, 2013, 『조선 전기 무덤의 조성방법과 변천과정 : 석곽묘에서 회곽묘로의 전환』,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高賢守, 2004, 『南韓地域 高麗 古墳의 副葬品 埋葬方式 研究』, 漢陽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30) 朱榮民, 2004, 『高麗時代 墳墓 研究-陶器編年을 中心으로-』, 新羅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31) 玄文弼, 2005, 『高麗時代 墳墓 出土 靑瓷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32) 박미옥, 2006, 『고려 토광묘 연구-부장양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 金鐘鎮, 2007, 『朝鮮時代 木棺墓의 遺物副葬形態에 관한 考察』, 慶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34) 金병수, 2007, 『湖南地域의 高麗 墳墓 出土 靑瓷 研究』,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에서 출토되는 도자기 특히 청자에 집중되었는데 이 외에도 특정 유물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부장 현황 및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진전된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고려-조선시대 분묘 연구사

경 향	연구자(년도)	주 내용
분묘자체에 대한 연구	황정옥(2002)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고려 석곽묘의 구조를 분석
	고성영(2003)	석곽묘·토광묘의 혼재유적을 중심으로 양 묘제간 차이를 살펴
	이희인(2003)	중부지방의 석곽묘와 토광묘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하층묘제의 변화양상과 사회변화를 도출함
	황순녀(2004)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분묘에 대한 연구 진행
	양미옥(2005)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문헌자료와 비교하여 무덤의 변천과정의 배경에 대해 살펴
	고금님(2005)	호남지역의 고려시대 무덤을 살펴보면서 중부지역과 이전시기(백제시대)의 석곽묘와 비교하여 성격을 알아
	김관석(2008)	경남지역 조선시대 분묘를 분석하여 지역적 차이로 인해 분묘가 차이를 보임을 밝
	이수정(2009)	충북지역을 3지역권으로 분류한 후 각 지역별 고려 고분의 변화상을 살펴
	김경선(2009)	조선시대 토광묘를 총 4단계로 분류한 후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
	황은경(2010)	양광도를 중심으로 고려분묘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지역적 특성을 밝
	이성배(2012)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분묘 내부시설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를 문헌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변화원인을 살펴
분묘출토 유물에 대한 연구	김남호(2013)	조선 전기 무덤을 분석하고 각 유형의 무덤의 편년을 통해 변천과정을 분석함
	고현수(2004)	확실적인 부장유물연구에서 벗어나 분묘 내 매장방식의 변화상을 통해 고려시대 묘제를 연구
	주영민(2004)	청자 중심의 유물연구에서 벗어나 도기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분묘의 변화상을 살펴
	현문필(2005)	고려고분에서 출토되는 청자를 통해 시기별 청자의 변화와 유물조합상을 연구
	박미옥(2006)	토광묘를 중심으로 부장유물의 양상을 통해 고려 토광묘의 위상 및 정치·사회적 변화상을 살펴
	김종진(2007)	경남지역 조선시대 무덤의 부장양상을 통해 지역별 특징을 살펴
	김병수(2007)	호남지역의 고려 분묘의 변화상을 분묘출토 청자의 변화양상을 통해 살펴
	김은경(2008)	영남지방의 고려분묘 출토 청자의 변화상을 통해 묘제의 변화, 분묘의 조영양상, 장송의례, 피장자의 성격 등을 알아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제주도 고고학은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3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30여 년의 시간 속에 제주도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들이 많이 조사되어 제주도 고고학의 위상을 한층 끌어 올려왔다. 하지만 그 분야가 주로 선사시대에 한정되어 왔으며 역사시대의 유적은

35) 김은경, 2008, 『청자로 본 영남지방 고려시대 분묘』,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자들에게 종종 외면당해왔다.

현재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려말선초대의 분묘유적은 대략 18곳이며 이중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분묘는 12곳에서 53기 정도³⁶⁾이다. 이러한 분묘유적들은 강한 시기적 보수성과 형태적 정형성을 띄고 있어 당시 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선사시대의 다른 유구에 밀려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발굴의 예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진한 결과 그 발굴자료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발굴조사에 참여한 연구자의 관심부족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인식부족은 분묘조사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제주도 고고학의 범위를 특정시대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식으로 발굴조사된 고려 - 조선시대 분묘유적에 한하여 유적에서 확인되는 고고학적 자료를 중심으로 분묘의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성주제를 중심으로 성주제 폐지 이전과 이후의 지방지배세력의 변화상과 분묘의 변화상을 비교하여 지방지배세력의 변화가 분묘의 변화 원인으로서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원인으로서는 당시 사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주도는 옛 부터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절해고도라는 지형적 이유로 육지인들에게는 미개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선사시대 이래 제주도는 육지와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육지의 선진문물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뤄왔다. 특히 조선 태종 4년(1404)에 제주도의 자치세력인 성주·왕자층이 소멸되어 완전히 중앙집권지배질서에 편입된 이후에도 육지와는 다른 토착문화를 영위해 나갔다. 따라서 제주도의 고려 - 조선시대 분묘연구는 동시기 육지의 분묘와의 비교를 통해 당시 상례문화의 지역성을 살피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에 조사되었던 분묘유적을 살펴봄과 동시에 제주도의 상례문화와 관련된 문헌사료를 검토하여 제주도의 분묘에 대한 일면을 살펴보고 육지의 상례문화 특히 고려 말에 성리학과 함께 들어온 주자가례와의 비교를 통해 당시 제주도

36) 분묘 내에서 부장유물이 없어 축조시기를 알 수 없거나 조선 후기로 판단되는 분묘는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상례문화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발굴조사된 분묘유구를 분류 속성에 맞춰 분묘의 형식분류를 시도하겠고 분묘에서 확인된 유물을 검토하여 출토유물에 따른 축조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II·III장에서 연구되어진 것을 토대로 각 시기별로 분묘 형태와 입지, 부장품의 변천과 분묘 변화의 원인으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V장에서는 이러한 분묘의 변화상과 더불어 분묘 축조집단의 사회적 계층성과 함께 당시 려말선초대의 제주도 분묘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여타 지역에 비해 지역적 한계성으로 인해 분묘유적의 발굴조사 예가 적으며 특히 고려-조선시대 분묘의 조사 예가 적어 아직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데 조금의 무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진하였던 제주도 고려-조선시대 분묘연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2장 분묘유적 및 문헌자료의 검토

제1절 유적검토

1) 중문동분묘유적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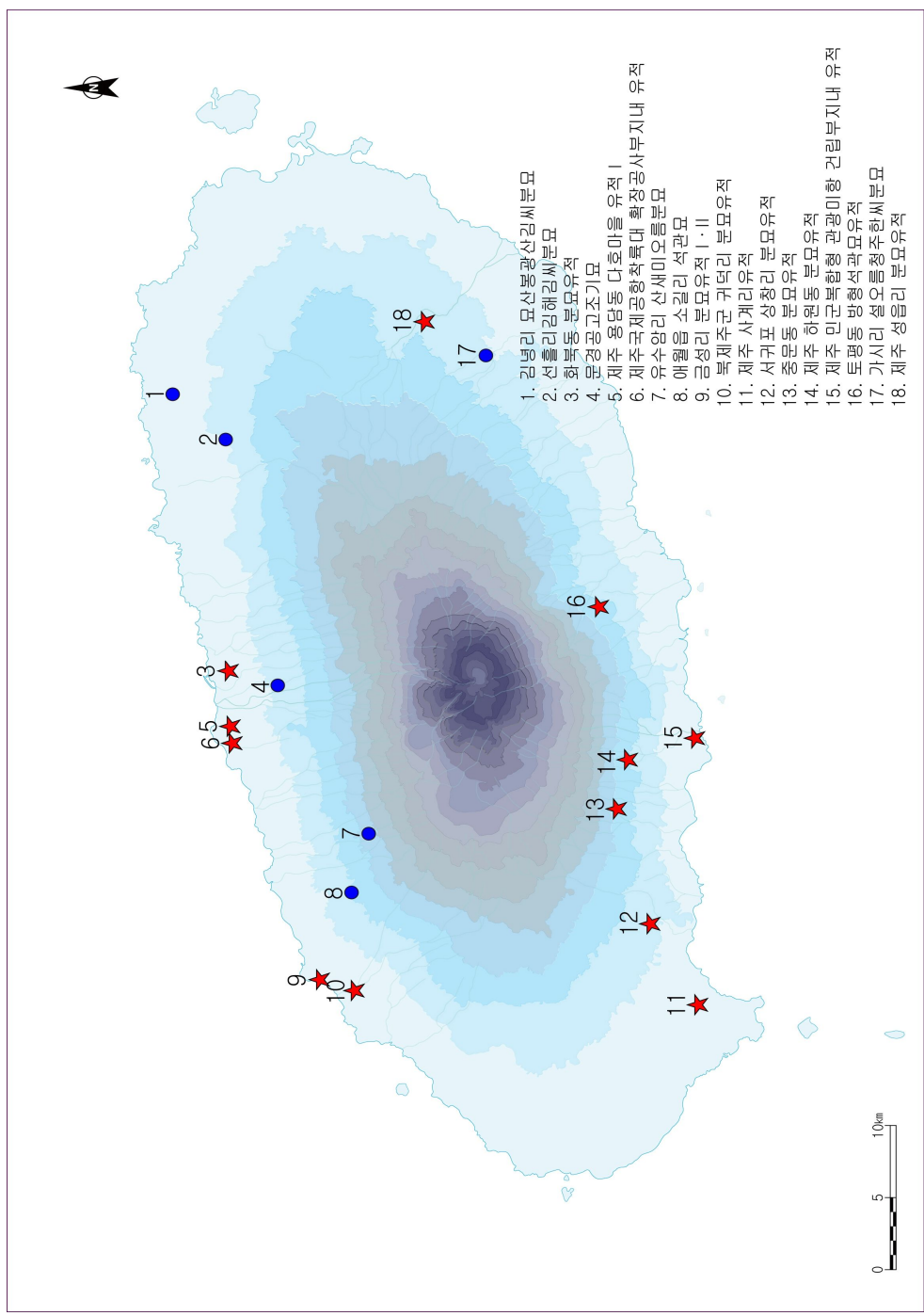
서귀포시 중문동 42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경작업을 하던 중 분묘가 발견되어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긴급구제발굴을 실시하였다. 묘는 해발 350m의 능선이 동서로 길게 늘어진 부분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 조사 당시 석곽의 판석 자체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토광을 파서 석곽을 만들고 다시 석곽 안에 목관을 안치한 형태의 무덤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목관 주위로 방형 호석을 두른 흔적과 호석 주위로 원형 석렬을 확인하였다. 토광은 정북을 가리키며 두개골 역시 정북으로 놓여 있어 枕向은 북향임을 알 수 있다. 토광 내부에서 확인된 유물은 없었고 인골편과 교란된 부토층에서 음각분청편 2점이 확인되었고 두개골 주변에서 목질이 부착된 관정이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분묘 축조연대를 16세기경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 이전·복원 되어 있다.

2) 화북동 분묘유적³⁸⁾

제주시 화북 2동 340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1996년에 발굴조사하였다. 분묘는 해발 80 ~ 85m의 비교적 높은 능선에 위치하며 일찍부터 방형의 쌍묘로 알려져 있었으며 유력계층의 무덤으로 인식되어져 있었다. 쌍묘는 일제시대때부터 도굴이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전문 도굴꾼에 의해 2 ~ 3차례 더 도굴되어 중앙에 광이 있었던 자리는 완전하게 파헤쳐져 있었다. 조사는 A·B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A구역에서 탐라성주고봉례와 그의 처가 문헌 것으로 추정되는 2기의 분묘가 확인되었고 B구역에서 3기의 분묘가 확인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출토 유물은 A-1호에서는 남쪽 도굴갱 상면에서 백자대접편

37) 강창화, 1998, 「제주 마을의 고고학적 연구」, 『서귀포문화』, 제2호.

38) 제주대학교박물관, 1997, 『탐라성주고봉례묘추정지-제주시 화북동 분묘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그림 1> 제주도 러말선초 분묘유적 분포도(★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임.)

1점이 확인되었고 A-2호에서는 봉토내에서 백자과편 2점과 흑상감청자 1점이 확인되었다. B-1호에서는 백자 저부편과 분청사기 대접 구연부편이 확인되었으며 B-2호에서는 봉토 상부에서 백자편이 확인되었다. B-3호도 꼭 내부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고 봉토 상부에서 백자편이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분묘 축조연대를 A-1·2호는 조선 초기(15세기 초)대로 보고 있으며 B-1·2·3은 조선 중기대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5기의 분묘 중 B구역 3기의 분묘인 경우 부장유물이 거의 없으며 출토위치도 불분명하여 묘역시설이 남아있는 A구역의 2기에 대해서만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제주 하원동 분묘유적³⁹⁾

서귀포시 하원동 산2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와 제주대학교박물관이 병행하여 1998년 12월부터 1999년 4월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묘역은 해발 220 ~ 225m 내외로 나지막한 능선상에 위치하며 서편으로 450m 이격되어 도순천이, 동편으로 650m 이격되어 고지천이 북-남으로 흐르고 있다. 또한 묘역 주변에는 방애오름이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위치라 할 수 있다.

분묘는 직경 100m 범위 내에 남북으로 나란히 3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외에 묘역 안에 후대의 민묘 4기가 자리하고 있다. 맨 위에 축조된 분묘는 단독으로 조성되었고 중간지점과 가장 아래의 분묘는 2기가 겹쳐 있다. 맨 위의 묘의 방향은 북동으로 20° 정도 틀어져 있고, 그 밑에 위치한 묘 2기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축조되어 있다. 맨 위묘와 맨 아래묘의 묘곽은 대형판석을 이용하여 축조방법이 서로 같으나 중간묘는 할석을 7 ~ 8단 평적(平積)하여 축조한 형태로 축조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출토유물로는 1914년 도굴 당시에는 백자병, 백자대접, 접시, 청동제품 등이 확인되었으나 정식발굴조사에서는 대부분 도굴되어 출토유물이 매우 빈약한 편으로 1·2호 묘 내부에서는 출토유물이 없고 3호 묘 내부에서 청동제 사발편, 소형구슬, 철제 관정, 인골편 등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 외부에서 화폐(상평통보)와 문인석 등의 석물 등도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3기의 분묘 중 가장 상단에 있는 3호 묘를 가장 이른 시기로 보고

39) 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2000, 『제주 하원동 분묘군』.

있으며 가장 하단의 1호 묘를 그 다음, 중간의 2호 묘를 가장 후축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보고자는 분묘 축조연대를 고려 말 조선 초로 보며 2대에 걸친 묘역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4) 북제주군 귀덕리 분묘유적⁴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69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에 주택신축공사를 위한 주변 정리 중 유물과 유구가 발견되어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긴급수습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전 이미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원지형의 훼손이 심해 유구의 정확한 형태 및 축조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노출된 인골편과 청동발편을 수습하면서 분묘의 바닥 일부만을 확인하였고 또한 분묘의 서편으로 백자단지, 백자잔 등이 출토되면서 분묘의 남서벽으로 추정되는 모서리 일부가 확인되었다. 모서리는 장방형의 할석 1 ~ 2매를 엮대어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부장유물로는 청자매병, 청동제 숟가락, 유리구슬 등이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분묘 축조시기를 유물 조합상으로 볼 때 15 ~ 17세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5) 제주국제공항착륙대 확장공사부지내 유적⁴¹⁾

제주시 용담3동과 도두 1·2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 제주문화예술회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선사시대 석곽 1기, 수혈유구 46기, 구상유구 2개소와 역사시대 분묘 74기, 수혈 13기, 소토유구 5기, 구상유구 5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분묘 74기 중에 V구역에서 조선시대 분묘 4기가 확인되었다. 분묘가 위치하고 있는 지형은 속칭 ‘씻밧동산’으로 불리는 곳으로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발 20 ~ 25m 가량으로 주변보다 한단 올라가 있는 평탄대지이다. 4기의 분묘 중 2기는 일부 삭평되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대체로 길이 200cm 내외, 너비 72 ~ 78cm 내외로 비슷하다. 장축방향은 1호 분묘는 남-북이지만 2 ~ 4호 분묘는 동-서에 가깝다. 내부에서 관정과 목관이 확인되고 있으며 부장품으로는 백자접시와 백자발, 청동숟가락, 이형철기가 확인되었다. 주

40) 국립제주박물관, 2004, 『학술조사 보고서』, 국립제주박물관 학술총서 제1책.

41) 제주문화예술회관, 2005, 『제주국제공항착륙대 확장공사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이하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제주국제공항부지내 유적으로 칭하고자 한다.

목되는 점으로는 2호 분묘의 묘광 바닥부위에 요갱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분묘 중 VI-1구역에서 확인되는 69기 분묘는 토광 내부에서 부장품이 확인되지 않아 편년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장품이 확인되어 분묘축조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V구역 1·2호묘 2기만 자료로 삼고자 한다.

6) 제주 토평동 방형석곽묘 유적⁴²⁾

서귀포시 토평동 309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수원 관리원에 의해 신고된 후 1999년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전 묘의 규모는 남북장축 6.8m, 동서단축 3.85m이며 목곽의 외곽을 돌린 석곽묘역이 남아 있었다. 석곽내부는 도굴의 흔적과 경지정리에 의한 교란 흔이 확인된 상태로 묘광 바닥에 넷가의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솟을 다져 넣어 목관을 안치하였다. 목관과 묘광 사이에는 1차로 황갈색점토를 목관 높이로 충전하고 2차로 목관이 고정되도록 모래를 충전토로 채워놓았으며 그 위에 솟을 얇게 덮은 후 황갈색 점토와 흑갈색점토로 성토하였다. 외부석곽의 축조는 어느 정도 봉토가 이루어진 후 외곽으로 구덩이를 파고 판석을 세워 고정시켰다. 출토유물로는 백자편과 청동제품류(대부발, 청동제 도자편, 숟가락, 용도미상 판상제품), 철제품류(용도미상 판상제품, 관정)등이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중문동 석곽묘와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축조연대를 16세기경으로 보고 있다. 분묘는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 이전·복원되어 있다.

7) 제주 용담동 다호마을 유적 I⁴³⁾

제주시 용담2동 200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제주문화유산연구원(舊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조선시대 건물지 1동, 굴립주건물지 1동, 수혈유구 4기, 구상유구 1기가 확인되었으며 분묘유적으로는 1구역에서 3기가 확인되었다. 지형적으로 해발 30m 정도로 해안에서 한단 올라와 넓게 평지를 이루고 있다. 분묘는 1호 묘가 2호 묘를

42) 제주대학교박물관, 2006, 『제주 토평동 방형석곽묘 유적』.

43)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용담동 다호마을 유적 I』.

일부 파괴하여 후축되어 있으며 서편으로 약 5.5m 이격되어 3호묘가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장축 167 ~ 184cm, 단축 74 ~ 80cm, 깊이 8 ~ 36cm 내외로 2호 묘와 3호 묘는 상부가 삭평되어 원형이 훼손된 상태이다. 장축방향은 3기 모두 동-서에 가깝게 축조되어 있다. 부장품은 1호 묘에서만 확인되었는데 분청사기편과 백자병 동체부편, 귀얄분청대접 구연부편 등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분묘축조시기를 16세기대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축조시기를 알 수 있는 1·2호 묘만 자료로 삼고자 한다.

8) 제주 사계리 유적⁴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70-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제주문화유산연구원(舊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계리 유적은 1지점과 2지점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분묘유적은 2지점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지형적으로는 남편에 단산(해발 113m)이 자리하고 있으며 해발 20m 가량의 평탄대지의 지형을 하고 있다. 분묘의 벽석 일부는 후대에 결실된 상태이나 대체로 양호하게 남아있는데 석곽묘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24°E로 남-북에 가까우며 석곽의 규모는 187cm×131cm×45cm이며 묘광의 규모는 213cm×163cm×20cm이다. 석곽은 북단면 1매, 남단벽 2매, 서장벽 3매(1매 이탈), 동장벽 2매로 총 8매로 축조되었다. 석곽의 규모나 매장주체부의 규모가 소형인 점을 들어 피장자의 연령이 유소년기로 추정되며 유물로는 묘광과 호석 사이에 충진토를 매립하면서 유입된 백자편 1점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축조연대를 조선시대로 보고 있다. 분묘는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 이전·복원되었다.

9) 서귀포 상창리분묘유적⁴⁵⁾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250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 제주고고학연구소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분묘는 서편의 호석렬은 이미 결실되어 과수원 입구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동쪽의 호석은 옆 과수원과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담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묘의 축조는 기존에 확인되는 묘역목관묘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지대석으로 묘역을 구획하고

44)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사계리 유적』.

45) 제주고고학연구소, 2012, 『서귀포 상창리 분묘』.

내부를 굴광하여 토광을 형성한 후 지대석 주변을 판석을 이용하여 호석을 이루었다. 호석은 다공질현무암을 방형의 판석으로 잘라내어 이용하였는데 외면은 정연하게 치석하여 맞췄으나 내면은 자연면 그대로를 이용하였다. 호석 내부의 봉분은 이미 유실되어 있는 상태로 도굴에 의해 유실된 후 과수원진입도로를 만드는데 이용하기 위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동곳, (유리)구슬, 청동손가락, 청동젓가락, 청동발편 등이며 추정목관 중앙 하부에서 완형의 소형 도기호가 1점 확인되었다. 호의 출토위치로 보면 요갱 부위에 해당하나 구덩이를 인위적으로 파지 않고 추정목관 하부의 목탄과 모래를 깔면서 같이 매납한 것이다. 이외에 분묘 외부 노면에서 팔구병이 깨진 채로 수습되었다. 보고자는 분묘의 축조시기를 인근 하원동 탐라왕자묘의 축조시기와 동일한 고려말 조선초기로 보고있다. 현재 제주돌문화공원에 이전·복원되어 있다.

10) 제주 성읍리분묘유적⁴⁶⁾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87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도로 확·포장공사에 앞서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조선시대로 판단되는 2기의 석곽묘와 민묘 1기가 확인되어 2010년에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쌍분으로 추정되는 분묘는 2기가 동서로 인접해 있으며 서편 분묘의 규모가 더 크다. 분묘는 이미 도굴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로 봉토는 유실되었다. 분묘의 축조방향은 남-북이며 보고서 내에 두향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북향으로 추정된다. 민묘는 2호묘에서 동쪽으로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토광 안에서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며 규모는 장축 169cm, 단축 69cm, 깊이 40cm이며 출토유물로는 청동제 손가락 1점이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동시기의 분묘에 비해 규모나 축조 상태가 떨어져 우월성이 떨어지는 묘제로 판단하였다. 출토유물로는 청동제손가락이 있다. 분묘의 축조시기는 기존 조사된 분묘유적과 동시기로 보고 있다.

11)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I·II⁴⁷⁾

46)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제주 성읍리분묘유적』.

보고서상에 민묘는 유구번호를 정하지 않아 본고에서는 편의상 묘역토광묘는 A1·A2, 민묘는 B로 정하였음을 밝힌다.

47) 제주고고학연구소, 2011, 「제주 금성리 436번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간략

제주시 금성리 43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2011년 하수관 설치 공사 중 인골과 다량의 유물이 확인되어 제주고고학연구소에서 긴급 수습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적은 해안에서 약 200m 내륙으로 들어온 해안사구층에 자리하고 있다. 조사결과 모두 12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분묘는 모두 사구층내의 암갈색모래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모래층에 매장된 이유로 유골의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게 남아있는 상태이다. 두향은 대부분의 묘에서 동향(북동향)을 하고 있으나 일부는 서북향, 남향을 하고 있으며 피장자의 연령층은 대부분 영·유아이다. 부장품으로는 상감청자편, 분청사기편, 백자대접, 몽골병, 청동순가락, 유리구슬 등이 있다. 축조시기는 15세기 중에서 16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된다.

금성리 분묘유적Ⅱ는 2011년 긴급구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금성리분묘유적의 성과로 인해 학술발굴조사의 일환으로 2012년 11월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확인된 유적이다. 발굴대상지는 금성리분묘유적Ⅰ의 서편에 연결한 밭으로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기존 발굴조사된 금성리분묘유적의 범위 및 성격에 대해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금성리분묘유적Ⅱ은 금성리분묘유적Ⅰ과 동일한 시기의 성격의 분묘유적으로 주로 영유아의 인골이 확인되고 있으며 유물도 15 ~ 16세기에 해당하는 자기편이 확인되며 이보다 이른 12 ~ 13세기에 해당하는 청자류도 확인되고 있어 장시간에 걸쳐 조성된 공동 집단분묘군으로 판단된다.

12)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립부지내 유적⁴⁸⁾

서귀포시 강정동 269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를 I·II·III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III구역은 다시 III-1·2·3·4구역으로 세분하였다. 조사결과, 초기철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분묘유구는 I 구역에서 조선시대 분묘 1기, II 구역에서 조선시대

보고서」.

———, 2012, 「제주 애월읍 금성리(고려말~조선초)분묘유적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금성리분묘유적Ⅱ유적은 토광묘 20기, 석곽묘 1기 총 21기가 확인되었으나 시간과 예산 문제로 15기의 토광묘와 1기의 석곽묘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48)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립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이하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제주 관광미항 부지내 유적으로 칭하고자 한다.

분묘 9기, Ⅲ-1구역에서 조선시대 분묘 2기로 총 12기가 확인되었다. I 구역은 해발 13 ~ 20m의 평탄대지이나 조사 시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높은 곳은 삭평하고 낮은 곳은 복토하여 인위적으로 수평대지로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묘는 1기가 확인되었으나 상당부분 파괴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장축방향은 N10°E로 보고서에 두향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북고남저의 지형임을 감안할 경우 북향으로 판단된다.

2구역의 1 ~ 2호 분묘는 해발 23m내외의 완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3 ~ 8호 분묘는 해발 19 ~ 20m 내외의 급경사면에, 9호묘는 해발 8m내외의 경사면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장축방향은 1 ~ 9호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동-서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향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서고남저의 지형임을 감안할 경우 서향으로 판단된다. 3구역은 해발 17 ~ 18m 내외의 완경사면으로 분묘 2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청동시, 청동 발, 경식, 청자대접, 백자 접시 등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축조시기를 조선시대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출토유물이 없어 축조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I 구역 1호, II 구역 1·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분묘만 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구역 3 ~ 8호묘인 경우 일부에서는 부장유물이 없어 축조시기를 알 수 없으나 분묘 축조형태가 횡렬로 나란히 조성되어 있어 족분(族墳)의 가능성이 있어 본고의 자료로 삼았음을 밝힌다.

제2절 문헌자료의 검토

현재까지 문헌사료 등에 나타난 제주도와 관련된 분묘나 상례문화에 대한 자료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시기적으로는 주로 조선시대이며 이마저도 극히 일부만 전해지고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수도와는 멀리 떨어진 절해고도로서 왕도(王道)가 미치지 않은 미개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것도 있지만 제주도 거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분묘를 축조하거나 상례를 행할 만큼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한정된 사료라도 당시 제주의 상례문화에 대해 일부분이나마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기에 문헌사료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료에 나타나는 제주도(혹은 제주

인)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조기의 그 전 이름은 고당유이니 탐라의 사람이다. -중략- 의종 11년(1157)에 죽으니 왕이 3일간 조회를 멈추고 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호상(護喪)하여 주었으며 시호를 주었다⁴⁹⁾.”

② 태종 11년 5월 13일, 전(前) 총제(摠制) 고봉례의 아내의 장례에 부의를 내리다⁵⁰⁾.

“전 총제 고봉례의 아내의 상사에 쌀 30석과 종이 1백 권을 부의하고, 또 관곽을 내려 주었으며, 사람을 보내어 치전(致奠)하게 하였다.

③ 태종 11년 11월 29일, 전(前)총제(摠制) 고봉례의 졸기(卒記)⁵¹⁾

전(前) 총제(摠制) 고봉례가 졸(卒)하였다. 고봉례는 제주사람이다. 임금이 몹시 슬퍼하여 대언(代言)에게 명하였다.

“이 사람이 과인(寡人)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멀리 친척을 떠나 와서 벼슬하므로 내가 대단히 불쌍히 여겼는데, 지금 죽었으니 내가 몹시 슬프게 여긴다. 상장(喪葬)의 제구를 모두 부의하라.” 양전(兩殿)이 모두 사제(賜祭)하고, 종이 1백 50권, 초 10자루, 쌀과 콩 40석과 관곽(棺槨)을 부의하였다.

④ 태종 13년 6월 11일, 제주도 안무사 윤임이 효자와 절부로 포상할 만한 자를 아뢰다⁵²⁾.

“효자와 절부(節婦)로 포상할 만한 자. 1. 전(前) 직장(直長) 문방귀·제공(提控) 양심(梁

49) 『高麗史』 卷98, 高兆基傳.

高兆基初名唐俞耽羅人-中略-(毅宗)十日年 卒無子輟朝三日命有司護喪賜諡.

50) 『太宗實錄』 卷21, 11年(1411)5月13日(癸酉).

賻前摠制高鳳禮妻喪米三十石, 紙百卷, 且賜棺槨, 遣人致奠.

51) 『太宗實錄』 卷22, 11年(1411)11月29日(丙戌).

丙戌/前摠制高鳳禮卒. 鳳禮, 濟州人也. 上悼甚, 命代言曰: “此人愛慕寡人, 遠離親戚而來仕, 甚可憐也. 今其亡也, 予甚哀之, 喪葬之具, 其悉賻恤.” 兩殿皆賜祭, 賻紙百五十卷, 燭十丁, 米豆四十石及石槨.

52) 『太宗實錄』 卷25, 13年(1413)6月11日(戊午).

濟州都安撫使尹臨, 啓孝子節婦可褒賞者: “一, 前直長文邦貴, 提控梁深, 生員高得宗等, 丁親喪, 廬墓側, 始行三年之制, 一州感慕. 一, 鄭氏年二十, 夫亡守信, 親族欲奪期志, 鄭不欲曰: ‘夫雖亡, 何忍棄之. 若再來要我, 吾必投海而死.’ 遂逃, 親族義之. 鄭克全婦道, 年至七十. 聞其風者, 莫不興起.” 啓下政府.

深)·생원(生員) 고득중 등은 부친상을 당하여 묘소 곁에다 여막을 짓고, 처음으로 3년의 복제(服制)를 행하여 한 고을이 감모(感慕)하고, 2. 정씨(鄭氏)는 나이 20歲에 남편이 죽었으나 절개를 지켰습니다. 족친(族親)이 그 뜻을 빼앗고자 하니, 정씨는 원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남편이 비록 죽었다 하지만 어찌 차마 그를 버리겠습니까? 만약에 다시 와서 나에게 강요한다면 반드시 몸을 바다에 던져 죽고 말 것이라’하고 도망가니, 일가 친척이 그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정씨는 부도(婦道)를 온전히 하여 나이 70이 되었는데, 이 풍문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흥기(興起)합니다.” 정부에 계하였다.

⑤ 세종 2년 1월 21일, 효자·절부·의부·순손의 실적을 찾아 아뢰게 하였다⁵³⁾.

“제주(濟州)의 전(前) 주부(主簿) 문방귀(文邦貴)는 그곳 풍속이 3년상을 행하지 않지만, 병술년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 3년 동안 무덤을 지켰으며, 상제(喪制)는 다 가례(家禮)를 따름으로써 효도의 기풍을 세우니, 제주 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무덤을 지킨 자가 3인이요, 3년상을 행한 자가 10여 인이나 되었다.”

⑥ 세종 12년 11월 9일, 예조에서 효성을 지극히 행한 양심(梁深)에게 정문을 세워주고 벼슬을 내릴 것을 건의하다⁵⁴⁾.

예조에서 전라도 감사의 공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제주에 사는 전(前) 교도(敎導) 양심(梁深)이 나이 15세에 아버지가 임질(淋疾)을 앓는데 사방에서 약을 구해 들여서 병을 고치게 하였고, 아버지가 죽자 여묘(廬墓)살이를 하는데 예를 극진히 하였고, 또 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기었으며, 어머니가 죽자 또 여묘를 살려 하니, 형제와 친척이 모두들 집이 가난하였다고 이를 말리었으나, 듣지 않고 자신이 흙과 돌을 날라서 무덤을 쌓고 소대상(小大祥)과 담제(檀祭)의 절차를 모두 가례(家禮)대로 집행하였사오니, 바라옵건대, 정문(旌門)을 세우고 그에게 관직을 내리소서.”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여묘를 3년간 사는 것은 아들된 사람으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바다 밖에 있는 사람이니 그의 효성을 정문(旌門)으로 표시하라.” 하고 그대로 따랐다.

⑦ 세종 13년 10월 13일, 제주인 김비의 효행에 정표하고 그를 녹용하게

53) 『世宗實錄』卷7,2年(1420)正月 21日(庚申).

上初卽位, 下敎中外, 求孝子, 節婦, 義夫, 順孫所在, 一中略- “濟州前主簿文邦貴, 州俗不行三年喪, 歲丙戌父沒, 守墳三年, 喪制悉遵《家禮》, 以樹孝風, 鄉人效之, 守墳者三人, 行喪三年者十餘人.”

54) 『世宗實錄』卷50,12年(1430)11月 9日(丙午).

禮曹遽全羅道監司關啓: “濟州住前敎導梁深年十五, 父患淋疾, 旁求藥餌, 療治得愈. 父歿廬墓盡禮, 又事母孝, 母歿又欲廬墓, 兄弟親戚以家貧止之, 不聽, 躬擔土石營塚, 祥禫之祭, 一依《家禮》. 請旌門敍用.” 上曰: “廬墓三年, 人子常事, 然此是海外之人, 宜旌其孝.” 從之.

하다⁵⁵⁾.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사람 부사정(副司正) 김비(金庇)가 부모를 섬기면서 혼정시성(昏定晨省)을 부지런히 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뜻을 기르고, 어미가 죽으매 죽음을 슬퍼하여 몸이 바싹 여위어 예절에 지나쳤으며, 분묘를 지키고자 하매 형제와 친척들이 모두 집이 가난하여 노복(奴僕)이 없으므로써 이를 말렸으나, 김비는 듣지 않고 여막(여막)에 거처하면서 공전(供奠)하기를 생시의 섬김과 같이 했으며, 몸소 흙과 돌을 운반하여 분묘를 만들고 대상(大祥)·담제(禫祭)의 제도를 한결같이 가례에 따라 행했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그의 효행에 감복하였사오니, 청하건대, 정표(旌表)하고 녹용(錄用)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⑧ 목사 홍종우가 서문을 쓴 『관풍안(觀風案)』 기건(? ~ 1460년)條⁵⁶⁾.

“고을 풍속이 장례를 하지 않았다. 공이 이를 첫째의 임무로 하여 먼저 고을 아전들에게 관곽을 갖추어 두도록(사람들로 하여금) 신칙하였다. 염습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장례하게 한 것은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不俗不葬 公上任 先飾州吏 備棺槨教以 斂葬其親 自公始)”

⑨ 전두기분(田頭起墳)⁵⁷⁾.

“발머리에 무덤을 만든다. 상사(喪事)를 마친 지 백일이면 복을 벗고 발머리를 조금 파고 무덤을 만든다. 간혹 삼년상을 행하는 자도 있다. 풍속이 풍수지리와 점을 사용하지 않고 또 부처의 법을 쓰지 않는다.”

⑩ 묘역위장(墓域圍牆)⁵⁸⁾.

“무덤에 세가지 걱정이 있으니 야화(野火)가 미치기 쉬운 것, 우마가 짓밟는 것, 경작하는 것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니, 돌을 쌓는 것은 그 때문에 하는 것이다.”

55) 『世宗實錄』 卷54, 13년(1431)10월 13日(甲辰).

禮曹啓: “濟州人副司正金庇事父母勤定省, 安心孝養, 母歿, 哀毀踰禮, 欲守墳, 兄弟親戚皆以家貧無僕止之, 庇不聽, 居廬供奠如事生. 躬擔土石營墳, 祥禫之制, 一遵《家禮》. 鄉人服其孝行, 請旌表錄用.” 從之.

56) 제주도, 2006, 「문화유산」, 『濟州道誌』 제7권, p304.

57)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風俗編.

治喪百日而除略掘田頭以起墳間或有行三年喪者俗不用地理卜筮又不用浮屠法.

58) 李膺鎬, 1976, 「毛羅國書」, 『濟州年鑑』, 濟州年鑑社, p407.

墓有三憂 野火易延也 牛馬踐觸也 耕者稍近也 石築者其所然耳.

이상의 기사를 살펴보면 ① ~ ⑧까지는 개별 인물에 대한 기사이며 ⑨~ ⑩은 제주 상례풍습과 관련된 기사이다.

①은 고려중기대의 문경공 고조기(1088 ~ 1157)에 대한 기사이다. 고조기는 현재와 비교해서도 제주인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인 재상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고조기가 졸하여 왕이 輟朝三日하였다는 점을 통해 보더라도 왕에게 매우 충애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고조기는 그의 아버지인 고유가 고급관료로 임명됨에 따라 개경에서 나서 그곳에서 자라 관직에 오른 이래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개경에서 지냈다. 이는 비록 출신은 제주도이지만 개경에서 지낸 기간이 더 길어 당시의 육지 특히 수도인 개경을 중심으로 한 상례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상례문화는 단기간에는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문경공 고조기를 통해 제주도에 육지의 상례절차 등의 문화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고조기의 묘는 제주시 아라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제주도내 고려시대 묘 중 가장 이른 시기로 판단된다.

②,③의 기사에서는 고봉례의 처와 고봉례가 졸(卒)한 후 왕이 대신에게 명하여 종이 1백 50권, 초 10자루, 쌀과 콩 40석(고봉례의 처는 쌀 30석, 종이 1백권)과 관곽(棺槨)을 부의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조선 시대에는 품계에 따라 지급하는 부의품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는데 고봉례가 받은 부의품을 통해 봤을 때 2품에 해당하며 실제로 고봉례는 태종 7년에 右軍同知摠制(종2품)에 제수되었다. 또한 관곽을 부의받았다는 점에서 당시 제주도에서도 육지의 상례문화가 제주도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양반계층에서는 이미 행해져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의 기사를 살펴보면 효자와 절부로 포상할 만한 자를 아뢰면서 문방귀, 양심, 고득중 등을 추천하는데 이들 성씨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다. 문씨, 양씨, 고씨는 고려시대부터 제주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오던 지방지배세력으로 고씨는 성주(星主), 양씨와 문씨는 왕자(王子)직을 수행하던 집단이었다. 이러한 집단에 소속된 인물을 중앙조정에 효자로 추천하면서 그 근거로 묘소 옆에서 여묘(廬墓)살이 3년을 행하였다는 등의 성리학적 가례를 따랐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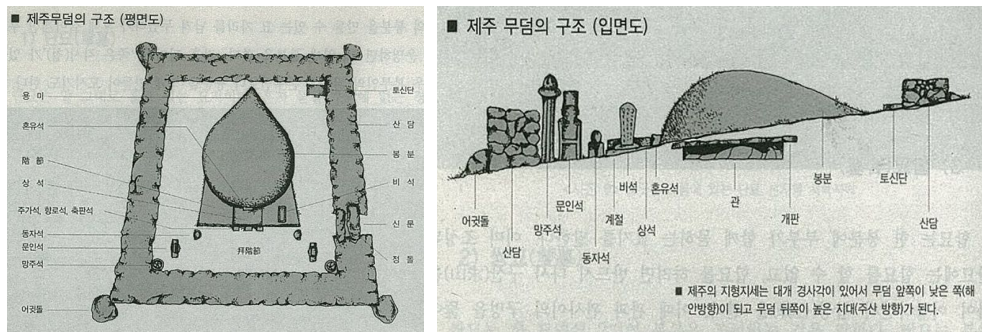
선왕조를 창건하면서 건국이념으로 충·효사상을 강조하는 성리학을 도입하였으며 건국초기 강력한 중앙집권을 이루기 위해 지방지배체제를 강화해나가자 기존의 지방지배세력이 새로운 지배질서(성리학적 이념)에 편입되면서 독자적인 지방세력에서 지방 향리급으로 전락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⑤,⑥의 기사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지방지배체제의 강화로 제주의 토착지배세력이 지방 향리급으로 쇠퇴해가면서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이라는 새로운 지배체제에 편입되어 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⑤ ~ ⑦에서 흙과 돌을 날라 분묘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볼 때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정 신분들은 봉분을 만들어 분묘를 조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⑦의 기사 역시 조선 초 제주도 지방 향리층인 자가 가례에 따라 상례절차를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려말 들어온 성리학적 상례문화가 최남단인 제주도까지 퍼져 일정신분 이상 계급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⑧은 기건목사(조선 초 문신, ? ~ 1460)의 기록을 옮긴 것이다. 이 사료를 살펴보면 당시 제주도에는 상례풍속이 없었으며 제주에서 예법에 맞는 상례를 최초로 시행한 이가 기건목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이전 기록인 태종실록, 세종실록의 기사에는 이미 예법에 맞는 상례풍속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기록은 당시 제주도는 왕도(王道)가 행해지지 않은 미개한 지역이라는 외부인사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⑨은 현재까지도 제주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으로 이러한 상례풍속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묘의 입지가 밭이라는 제주도민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선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⑩은 육지와 다른 제주도 분묘의 특징인 산담에 대한 기사이다. 산담에 대한 기록은 현재까지 찾아보기 힘들지만 고려 고종21년(1234)에 제주도에 판관으로 온 김구(1211~1278)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13세기 말 원나라의 직접지배를 받으며 국가목장으로 대규모 방목을 하던 제주도의 상황을 볼 때 마소로부터 분묘를 지키기



<그림 2> 제주분묘의 구조 모식도⁵⁹⁾



<그림 3> 田頭起墳의 예(제주시 한림읍 웅포리 46번지 묘, 필자 직접촬영)

<표 2> 제주 분묘의 구조 용어표

용 어	역 할
신문(神門·울레)	(귀)신이 드나드는 문
정돌	(귀)신·영혼이 다니는 신문의 길을 막는 돌
어긋돌	산담 네모퉁이에 정초석 역할을 함
망주석(望柱石)	산담 안 분묘 앞 양 쪽에 세우는 표식용 돌기둥
토신단(土神壇)	산담 안 묘지의 땅 주인인 토지신에게 조상 제사에 앞서, 제물을 올려 제

59) 김유정·손명철, 2007, 『제주의 무덤』, 제주의 민속문화2, 국립민속박물관, p78 재인용.

	를 지내는 곳
혼유석(魂遊石)	(귀)신·영혼이 앉는 자리

위해 이 시기에 이미 산담의 형태는 갖춰져 있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상례와 관련된 문헌사료를 살펴보았다. ①, ⑧ ~ ⑩의 기사를 제외하고는 제주도 또한 일정신분 이상에서는 이미 육지와 동일하게 가례에 따라 상례문화를 이어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일반적으로 가례는 주자가례의 준말로 문공가례라고도 하며 중국 남송 때의 사람인 주희가 지은 책으로 알려져 있다. 주자가례는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유입된 것으로 고려말 안향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에 의해 일상행동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받아들여졌으며 정치혁명을 바라던 신진사대부들에게는 혁명적 이념으로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조선 개국 후 조정의 의례의 밑바탕⁶⁰⁾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에 고려말 이후 조선시대 상례문화의 이념적 토대인 『주자가례』와 제주도 분묘에서 보이는 고고학적 자료를 비교하여 당시 제주도 상례문화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먼저 『주자가례』 상례편에서 밝히는 상례절차는 총 21단계⁶¹⁾로 초종(初終)→목욕(沐浴)·습(襲)·전(奠)·위위(僞位)·반함(飯含)→영좌(靈座)·혼백(魂魄)·명정(銘旌)→소렴(小殮)→대렴(大斂)→성복(成服)→조석곡전(朝夕哭奠)·상식(上食)→조전부(弔奠賻)→문상(聞喪), 분상(奔喪)→치장(治葬)→천구(遷柩)·조조(朝祖)·전부(奠賻)·진기(陳器)·조전(祖奠)→견전(遣奠)→발인(發引)→급묘(及墓)·하관(下棺)·사후토(祀后土)·제목주(題木主)·성분(成墳)→반곡(反哭)→우제(虞祭)→졸곡(卒哭)→부(祔)→소상(小祥)→대상(大祥)→담(禫)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 가운데 고고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단계로는 초종(初終:

60) 『太祖實錄』 卷1, 1年(1392) 7月28日(丁未).

태조의 즉위 교서

1. 관혼상제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부탁하여 경전을 세밀히 구명하고 고금을 참작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륜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이다.

敎中外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

-省略- 一, 冠婚喪祭, 國之大法. 仰禮曹詳究經典, 參酌古今, 定爲著令, 以厚人倫, 以正風俗.

61) 주자가례를 바탕으로 19세기에 편찬된 『四禮便覽』에서는 총 19단계로 初終→襲→小殮→大斂→成服→弔→聞喪→治葬→遷柩→發靱→及墓→及哭→虞祭→卒哭→祔祭→小祥→大祥→禫→吉祭 순이다.

돌아가시다)조의 치관(治棺:관을 만든다), 치장(治葬:장사지낼 터를 조성하다)조의 수천광(遂穿壙:드디어 광을 판다)·작회격(作灰隔:회격을 만든다), 급묘(及墓:묘소에 도착하다)·하관(下棺:관을 내리다)·사후토(祀后土:후토신에게 제사지내다)·제목주(題木主:나무신주에 글을 쓰다)·성분(成墳:봉분을 만들다)조의 명기등지(明器等至:명기 등이 도착한다)·가회격내외개(加灰隔內外盖:회격 안팎의 덮개를 덮는다)·실이회(實以灰:재로 채운다)·내실토이점축지(乃實土而漸築之:이에 흙을 채우고 점점 다진다)·장명기등(藏明器等:명기등을 넣는다)·하지석(下誌石:지석을 내린다)·복실이토, 내견축지(復實以土,而堅築之:다시 흙을 채우고 견고하게 다진다)·분고사척.립소석비어기전,역고사척.적고천허(墳高四尺.立小石碑於其前,亦高四尺.趺高尺許:봉분의 높이는 4자이다. 그 앞에 작은 돌비석을 세우는데 역시 높이는 4자이다. 받침대의 높이는 1자 정도로 한다)이지만 대부분의 분묘가 도굴과 훼손 등의 이유로 그 원형이 남아있는 예가 없어 매장주체부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는 치장조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치장조에서 주목해야할 대목으로는 ‘광을 파다(遂穿壙).’와 ‘회격을 만든다(作灰隔).’가 있다.

사마온공이 말했다. “지금 사람들의 장사 지내는 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땅을 파고 바로 내려가 광을 만들고 나서 관을 매달아 하관하는 것이 있고, 수도(隧道)를 뚫고 토실(土室)을 파서 그 안에 관을 밀어 넣는 것이 있다. 옛날에는 오직 천자만이 수도를 만들 수 있었다. 그 밖에는 모두 바로 파 내려가 광을 만들고 관을 매달아 하관하였으니, 지금은 마땅히 이것으로 법을 삼아야 한다. 그 땅을 파는 데는 마땅히 좁고 깊어야 하니, 좁으면 무너지지 않고 깊으면 도굴꾼이 가까이하기 어렵다⁶²⁾.”

“사람들의 분묘와 광중과 관과 곁은 모두 너무 크게 해서는 안된다. 광중은 관이 겨우 들어갈 정도면 되고, 곁은 관이 겨우 들어갈 정도면 좋다⁶³⁾.”

62) 주희 지음,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예문서원,p323.

『朱子家禮』 卷4,喪禮,遂穿壙.

司馬溫公曰,“今人葬有二法. 有穿地直下爲壙, 而懸棺以窆者, 有鑿隧道, 旁穿土室, 而擯柩於其中者. 按古者有天子得爲隧道. 其他皆直下爲壙, 而懸棺以窆, 今當以此爲法. 其穿地宜狹而深, 狹則不崩損, 深則盜難近也.

63) 주희 지음,임민혁 옮김,전게서,p324.

『朱子家禮』 卷4,喪禮,治葬,遂穿壙.

“人家墓壙棺槨,切不可太大. 當使壙僅能容棺, 郭僅能容棺乃善”

광을 파는 일이 이미 끝났으면 먼저 재(炭)를 광의 밑바닥에 깔아 두께 2~3치를 쌓아 다진다. 그 후에 석회와 가는 모래, 황토를 골고루 섞은 것을 그 위에 퍼는데, 석회 3푼에 두 가지는 각각 하나씩이 좋다. 두께 2~3치를 쌓아서 다지고, 특별히 얇은 판으로 회격을 만드는데 광의 형상처럼 한다. 안은 역청을 바르되 두께는 3치쯤으로 하는데, 가운데는 판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 -中略- 또 재는 나무 뿌리를 막고 물과 개미를 피하게 하며, 석회는 모래와 섞이면 단단해지고 황토와 섞이면 세월이 오래되면 결국 온전한 돌이 되니, 땅강아지와 개미와 도둑이 모두 들어올 수 없다⁶⁴⁾.

위의 사료를 살펴보면 ‘토광은 협소하게 하고 하관할 때는 관 밑으로 재, 석회, 가는 모래, 황토 등을 충전하며 특히 석회를 이용하여 회곽을 만든다’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주도 내에서 발굴조사된 분묘를 살펴보면 회곽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석회산지가 제주도에 없어 귀했기 때문도 있지만 회곽묘라는 묘제가 고려말에 이미 등장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이때 조성된 경우 현재까지 자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⁶⁵⁾. 그러나 비록 회곽묘는 아니지만 발굴조사된 분묘의 토광 내부에서 『주자가례』에서 회곽을 만들때 충전토로 사용된 4가지 중 재(숯,목탄), 가는 모래, 점토 등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토광 내부에서 충전토로 재, 가는 모래 등이 확인되고 있는 분묘로는 토평동분묘, 중문동 분묘, 상창리분묘, 하원동분묘, 금성리분묘 등이 있다.

64) 주희 지음, 임민혁 옮김, 전계서, p325~326.

『朱子家禮』卷4, 喪禮, 治葬, 作灰隔.

穿墳既畢, 先布炭末於墳底, 築實厚二三寸, 然後布石灰細沙黃土拌勻者於其上, 灰三分, 二者, 各一可也. 築實厚二三寸, 別用薄板, 爲灰隔, 如郭之狀. 內以瀝清塗之, 厚三寸許, 中取容棺 -中略- 又炭禦木根, 辟水蟻, 石灰得沙而實, 得土而黏, 歲久結爲全石, 螻蛄盜賊, 皆不能進也.

65) 발굴 예는 없지만 제주도에도 회곽묘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즈미 세이치, 1966, 『濟州島』, 東京大學出版部, p146~147.

“묘자리는 사전에 준비해둔다. 그 묘자리는 산 능선의 발에 만든다. 묘혈은 직경 약 4미터, 깊이 2~2.5미터를 파고 그 밑에 회격(灰隔)을 넣고 물을 뿌려 단단하게 한 다음, 판이 광중에 꼭 맞도록 묘혈을 판다. 장례 행렬이 도착하며, 친척들이 곡물을 태운 재를 바닥에 깔고, 근친들이 손수 관을 내려놓고 상주가 명정을 관에 덮는다. 그리고 그 위에 개관을 놓은 다음 점토로 덮고, 상두꾼들이 다시 흙을 덮어 흙 만두 모양으로 봉분을 쌓는다. 그 주변에 화산암으로 돌담을 쌓는다. 개관은 될수록 길 좋고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는데 그 목재의 질에 따라 죽은 사람에 대한 정성의 정도가 있다고 한다. 좋은 개관은 구상나무, 구실잣밤나무, 소나무, 벗나무 등인데 이들 나무는 썩을 때 골고루 썩기 때문에 시신도 이와 같이 골고루 썩는다고 믿는다. 봉분에는 용미를 만든다. (김유정·손명철, 2007, 『제주의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p59, 60 재인용.)

먼저 재(숯,목탄), 모래, 점토 모두가 확인되는 분묘를 살펴보면 토평동 분묘, 상창리분묘, 하원동분묘가 있다. 토평동분묘는 넷가의 모래→재(숯,목탄)→목관→점토→모래→재(숯,목탄)→점토순으로 충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창리분묘는 바닥면에 재(숯,목탄)→가는 모래→스코리아(송이)→스코리아(송이)+가는모래→목관→재(숯,목탄)→사질점토→스코리아(송이)순으로 충진하였으며 하원동분묘의 경우에는 모래→재(숯,목탄)→점토→잡석층→점토 순으로 충진하였으며 3호묘인 경우에는 1·2호에 비해 재(숯,목탄)와 점토가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충진된 것을 알 수 있다.

재(숯,목탄), 모래 두가지만 확인되는 분묘로는 중문동 분묘가 있는데 중문동 분묘는 회색 모래→재(숯,목탄)의 충진토가 확인된다. 재만 확인되는 분묘로는 용담동 다호마을(1호), 금성리분묘유적(1호)이 있는데 목관 범위에서만 재가 확인되고 있다. 이 밖에 사계리 분묘에서는 현무암 자갈과 스코리아(송이)가 혼입하여 충진된 것이 확인된다. 이 밖에는 모두 점토로만 충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종합해보면 축조시기가 비교적 이른 분묘의 충진토는 재, 모래, 점토 등이 사용되다가 후기로 갈수록 모래나 재의 사용이 감소하고 점토만 충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토광 내부에서 화산섬인 제주도에서 흔히 보이는 스코리아(송이)가 충진토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색에 맞게 주자가례가 변형되어 시행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주자가례는 고려 말 안향을 비롯한 유학자들이 성리학과 함께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시기는 대략 13세기 말이다. 하지만 주자가례를 통한 분묘(회곽묘)의 축조는 세조가 봉어한 후 조성된 광릉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17세기 이후 조선 성리학이 전성기를 맞이할 때부터 전국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제주도 내에서 발굴조사된 분묘 중 토광 내에 회를 제외한 재, 모래, 점토 등의 충진토가 확인되는 분묘는 그 축조시기가 려말선초대(13세기 말 ~ 15세기 초)로 『주자가례』의 확산시기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에 불과하지만 육지부의 고려분묘 중 13세기부터 토광바닥에 재(목탄, 숯)을 충진한 분묘⁶⁶⁾가 확인되고 있어 주자가례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66) 이와 관련된 분묘로는 충주 단월동 고려묘 I 과 여주 매릉리 용강골 고분군 유적에서 확인된다. 충주 단월동 고려묘인 경우 그 축조시기를 13 ~ 14세기로 보고 있으며, 여주 매릉리 용강골 고분(c-1)은 14세기대로 보고 있다.

이전부터 의례행위로서 재(목탄, 숯)를 충진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제주도 려말선초대 분묘 중 육지부의 고려 말 이후의 분묘에 비해 충진토로 재, 모래 등이 충진된 예가 많은 것으로 보아 도내 일부 사회·경제적 상위 계층에서는 일찍부터 가례에 의한 상례문화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3> 제주도 려말선초대 분묘 내부 충진토 현황

충진토 분묘	모래	재(숯,목탄)	점토	기타(스코리아, 잡석)
하원동분묘	○	○	○	○
상창리분묘	○	○	○	○
토평동분묘	○	○	○	
중문동분묘	○	○		
용담다호마을		○		
금성리분묘 I (4호, 8호)		○		
사계리분묘			○	
그 외(금성리 제외)			○	

제3장 형식분류 및 편년

제1절 축조방법에 의한 형식분류

현재 제주도 내 고려-조선시대 분묘를 지칭하는데 있어 용어의 통일됨이 없이 발굴조사자나 연구자 별로 각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동일한 분묘 간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분묘의 형식분류에 앞서 우선 그 동안 분묘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던 용어를 살펴보고 각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형식분류 속성에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제주도 고려-조선시대의 분묘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방형석곽묘⁶⁷⁾, 방형석곽분⁶⁸⁾, 석곽묘⁶⁹⁾, 방묘⁷⁰⁾, 방형묘⁷¹⁾ 등이 사용되고 있어 통일된 용어가 없었다. 흔히 고려시대 분묘는 석실묘, 석곽묘, 토광묘로 나뉜다⁷²⁾. 주지하다시피 석실묘와 (판석형)석곽묘는 왕실을 비롯한 귀족 계층이 주 사용계층인 묘제이며 (할석형)석곽묘와 토광묘는 그 이하의 신분계층이 사용하던 묘제이다. 이러한 분묘는 조선시대로 이어지는데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상례문화가 이어졌으나 조선 초기 이후 석실묘·석곽묘의 축조는 사치스럽다 하여 조정에서 금지하였으며 이로 인한 영향으로 왕실을 비롯한 양반층에서의 석곽묘 축조가 축소⁷³⁾되면서 점차 쇠

67) 제주대학교박물관, 2006, 전게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전게서.

68)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7, 전게서.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2000, 전게서.

69) 강창화, 1998, 전게서.

국립제주박물관, 2004, 전게서.

70) 제주고고학연구소, 2012, 전게서.

서귀포 상창리 분묘유적에서 사용되었는데 추후 정식보고서에는 방형분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71)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전게서, p131.

72) 이에 대해 연구자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와 유사하게 분류를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화장묘와 회곽묘를 고려시대 분묘에 포함하는 연구자도 있으나 발견 예가 소수임을 고려하여 제외하고자 한다.

73) 『太宗實錄』卷12 6年 閏7月 28日(乙酉).

“命大臣禮葬，禁用石室。政府啓 前朝之法，大臣禮葬，許用石室。謹按石室之制，禮典所無，只勞生

되하게 되었으며 회곽묘가 양반계층에서 주묘제로 등장한다. 또한 전 계층으로 토광묘가 가장 보편적인 묘제로 대체되어 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도 내에서는 왕실에서 주로 사용하던 석실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로 발굴조사는 석곽묘와 목관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금성리분묘유적을 중심으로 직장묘가 조사되고 있어 석곽묘, 목관묘 그리고 직장묘를 중심으로 이들 분묘를 지칭하는 용어를 살펴보고자 한다⁷⁴⁾. 석곽묘⁷⁵⁾와 목관묘, 직장묘의 차이는 주지하다시피 토광을 파서 토광 내부벽면에 석재를 이용하여 벽체를 세우느냐 아니면 토광을 파서 내부에 목관을 안치하느냐 혹은 시신만을 안치하는냐의 차이이다. 이는 토광 내부의 축조방법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호 분류상의 용어로 적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고려 - 조선시대의 분묘를 살펴보면 그동안 연구자간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용어들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조사된 분묘 대부분이 토광을 파서 내부에 목관을 안치하는 축조방법상 목관묘이기 때문이다. 다만 토광의 외부에 호석을 세워 봉분을 조성한 것을 그 외형적 모습만을 보고 석곽묘, 방형석곽묘 혹은 방묘, 방형묘라고 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분묘의 정확한 성격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에 분묘를 지칭하던 용어를 알아보고 용어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본고의 형식분류의 기준에 적합한 용어를 찾아 사용하고자 한다.

방형석곽묘·방형석곽분이란 용어는 화북동분묘유적, 제주 하원동분묘유적, 제주 토평동분묘유적, 제주 성읍리분묘유적 등에 사용되었다. 이들 용어는 분묘 외부의 외형적 모습과 내부의 축조방식을 동시에 일컫는다.

人, 無益死者. 乞依文公家禮, 只用灰隔, 勿用石室. 從之.”

74) 많은 연구자들이 분묘를 형식분류할 때 주로 석곽묘와 토광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묘는 기본적으로 수혈식으로 토광묘이기 때문에 토광묘를 분류 범주 안에 넣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토광 내부 축조 상태에 따라 석곽묘, 목관묘, 직장묘로 분류하며 목관묘는 외부시설(묘역시설)의 유무에 따라 시기적 변화가 관찰되어 묘역목관묘, 순수목관묘로 세분화하고자 한다.

75) 김현, 2005, 『경남지역 무문토기시대 무덤에 대한 연구 -전·중기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

“ 즉 ‘석곽’이라는 용어는 삼한·삼국시대의 무덤들 중 할석 또는 천석으로 쌓아서 네벽을 구축한 무덤들 중에서 내부에 관정이나 꺾쇠가 발견되어 돌로 구축된 외관 내에 나무로 架構된 목관의 존재가 확실시 되는 경우에 돌로 구축된 외관을 ‘석곽’이라고 일컫는 데서 ‘석곽’이라는 용어가 널리 적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해당 분묘를 살펴보면 일단 분묘의 축조방식이 석곽묘가 아니며 토광을 판 후 목관을 안치하였기 때문에 목관묘로 분류하여야 하며 세부 분류에 들어가서 토광 외부에서 호석이 확인되고 있어 묘역(식)목관묘로 불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방묘(方墓)는 봉분의 외형적 모습만을 가지고 분묘를 분류한 용어이다. 이는 이후에 나타나는 원묘(圓墓)와 용묘(龍墓)와의 구분을 위한 용어로는 적당하지만 방묘(方墓)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일부 분묘(주로 토광 외부에 호석을 두른 분묘, 이하 묘역목관묘)에 한정되어 의미가 있으며 당시의 모든 분묘형태를 아우르기에는 부적당한 용어이다. 또한 목관묘, 석곽묘, 직장묘와의 구분에 있어서도 맞지 않은 용어이다. 왜냐하면 목관묘, 석곽묘, 직장묘는 토광 내부 축조방법에 의한 분류용어이지만 방묘는 봉분의 외형적 모습만을 가지고 분류한 용어로서 상호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분류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 비교를 위해서라도 토광 내부 상태에 맞게 목관묘, 석곽묘 혹은 직장묘 등으로 불려야 한다.

방형묘(方形墓)는 방묘에서 유래되어 사용된 용어로 추정된다. 제주 사계리 유적에서 분묘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는데 사계리 분묘인 경우 원지형이 삭평되어 분묘의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토광 내부의 축조방법상 석곽묘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방형묘가 아닌 석곽묘로 불려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제주도 분묘 지칭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용어사용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따라 본고에서는 그동안 방묘, 방형석곽묘, 방형석곽분, 석곽묘, 방형묘 등을 토광 내부 축조방법에 따라 목관묘(I형), 직장묘(II형), 석곽묘(III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⁷⁶⁾.

목관묘는 토광 외부의 묘역시설 유무에 따라 묘역목관묘(IA식)과 순수목관묘(IB식)으로 세분하고자 한다. 묘역시설을 분류기준으로 삼은 이유로는 비록 김인철·주영민의 묘역시설의 정의⁷⁷⁾를 따르기에는 모든

76) 이 세가지 유형 중 석곽묘는 발굴조사 예가 1기에 불과하며 직장묘는 금성리분묘유적에서만 확인되고 있는데 축조방식이 동일하여 목관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77) 김인철, 1996, 「고려무덤에 관한 연구」, 『평양일대의 벽돌칸무덤, 고려무덤, 삼국시기 마구에 관한 연구』, P. 117 ~ 124, 사회과학출판사.

“묘역은 3 ~ 4단으로 구분되며 제1단에는 봉분이, 봉분 둘레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르고 주변에 곡장을 설치한다. 2 ~ 3단에는 문·무인석, 장명등과 상석이 설치된다.”

주영민, 2011, 『高麗 地方 墳墓 研究』, 경상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p102.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묘가 거의 없으나 묘역시설의 요소(곡장+참배단+호석) 중 호석의 규모 및 형태 그리고 호석의 유무(有無)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됨이 관찰되어 분류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묘역목관묘는 호석의 형태에 따라 판석조 묘역목관묘(I A1식), 할석조 묘역목관묘(I A2식)으로 세분하였다. 순수목관묘는 내부시설의 유무에 따라 시설식과 무시설식으로 세분하기에는 토광내부에 별도시설(요강, 감실)이 있는 분묘가 3기 밖에 확인되지 않으며 시기적으로도 큰 변화상이 관찰되지 않아 별도의 세부분류는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분묘 53기 중 목관묘(I형)은 총 32기로 전체 60.38%로 다수를 이루고 있어 제주도 분묘의 주요 형태는 목관묘임을 알 수 있다. 직장묘(II형)은 금성리분묘유적에서만 17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32.07%차지하고 있다. 석곽묘(III형)은 사계리유적에서 1기가 확인되었으며 1.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 본고에서 분묘의 유형분류에서 제외하였거나 불가능한 분묘는 3기78)가 있으며 5.66%를 차지한다.

<표 4> 제주도 려말선초대 분묘 유구 제원표(귀덕리 분묘 제외)

순 번	유적명	유구 번호	호석규모(cm)			토광규모(cm)			목관규모(cm)			장축 방향	유형	외부시설 / 비고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1	중문동 분묘유적		?	?	?	240	100	?	?	?	?	N-S	I A1		
2	화북동 분묘유적	A	1	420	335	?	162	42	97	?	?	?	N5°W	I A2	
3			2	416	310	?	235	65	37	?	?	?	N5°W	I A1	2단토광
							187	25	60				N20°W		
4	제주하원동 분묘유적	1	432	304	100	320	140	100	?	?	?	N26°E	I A1	곡장, 참배단 (2단) ⁷⁹⁾	
5		2	510	370	110	320	140	70	?	?	?	N18°E	I A2	곡장,참배 단 (2 단 추정)	
6		3	450	310	65	280	140	100	?	?	?	N29°E	I A1	곡장, 참배단 (2단)	

“묘역시설은 매장주체부와 이를 보호하는 호석과 곡장, 그리고 별도로 마련된 비석과 문인석이 놓이는 2 ~ 3단의 참배단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회인은 묘역시설을 묘곽(광) 주변을 둘러싸는 석렬과 전면에 설치되는 석단 등을 지칭한다고 하여 위 두사람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회인, 2004, 「中部地方 高麗古墳의 類型과 階層」, 『韓國上古史學報』 第45號, p116.

78) 북제주군 귀덕리분묘유적과 금성리분묘유적Ⅱ 15호묘는 훼손상태가 심해 축조상태를 파악할 수 없으며 금성리분묘유적 I 4호묘는 화장묘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고의 형식분류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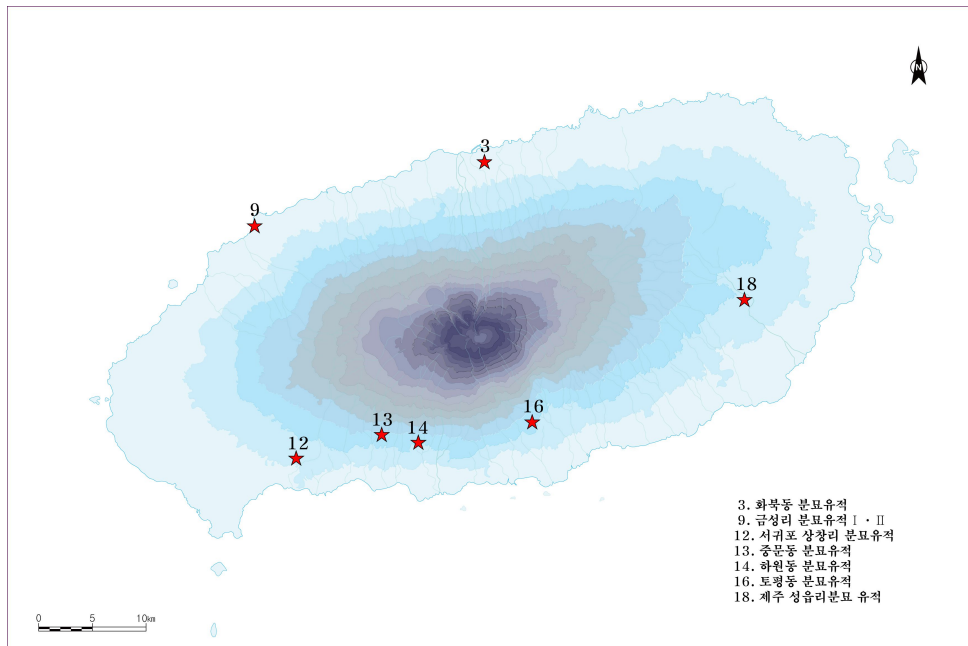
7	제주국제공항 부지내 유적	V 구역	1	·	·	·	207	72	21	180	42	28	N11°E	I B	
8			2	·	·	·	212	76	22	190	48	22	N7°E	I B	요경
9	제주도평동 분묘유적			468	327	37	295	115	60	235	60	?	N10°W	I A1	
10	제주용담동 다호마을유적	I 구역	1	·	·	·	180	74	36	?	?	?	N80°E	I B	
11			2	·	·	·	167	(44)	11	?	?	?	N70°E	I B	
12	제주 사계리 유적			187	131	45	213	163	20	?	?	?	N24°E	III	석곽묘
13	서귀포상창리분묘유적			360	190	60	286	146	124	193	56	?	N-S	I A1	
14	제주성읍리 분묘유적	A	1	270	160	?	(180)	(55)	?	?	?	?	N18°W	I A1	
15			2	212	108	?	160	(50)	?	?	?	?	N18°W	I A1	
16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I	B		·	·	·	169	69	40	?	?	?	N18°W	I B	
17		1	·	·	·	(89)	(59)	6	?	?	?	N56°E	I B		
18		2	·	·	·	(54)	(51)	16	·	·	·	N82°E	II		
19		3	·	·	·	(55)	(42)	30	·	·	·	N73°E	II		
20		4	·	·	·	(74)	(46)	15	·	·	·	N44°E	·	화장묘	
21		5	·	·	·	(32)	(35)	35	·	·	·	N79°E	I A2		
22		6	·	·	·	(88)	(44)	?	·	·	·	N44°E	II		
23		7	·	·	·	(160)	(85)	(13)	·	·	·	N68°E	I A2		
24		8	·	·	·	(101)	57	54	·	·	·	N77°E	I A2		
25		9	·	·	·	(50)	(34)	55	·	·	·	N-S	II		
26		10	·	·	·	(56)	68	19	·	·	·	N85°E	I A2		
27		11	·	·	·	(85)	(40)	30	·	·	·	N51°W	II		
28	12	·	·	·	(150)	110	20	·	·	·	N101°E	I A2			
29	제주관광미항 부지내 유적	II 구역	3	·	·	·	(170)	80	30	(160)	45	32	N82°W	I B	族墳일 가능성 있음.
30			4	·	·	·	172	80	30	148	43	23	N79°W	I B	
31			5	·	·	·	198	68	30	165	50	27	N77°W	I B	
32			6	·	·	·	220	116	27	?	?	?	N82°W	I B	
33			7	·	·	·	(174)	(78)	(20)	?	?	?	N82°W	I B	
34			8	·	·	·	180	75	8	?	?	?	N77°W	I B	
35			9	·	·	·	270	145	12	167	53	10	N87°W	I B	감실
36		III 구역	1	·	·	·	(200)	72	5	(185)	50	13	N6°E	I B	요경
37			2	·	·	·	213	98	26	?	?	?	N2°E	I B	
38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II		1	·	·	·	(178)	(50)	?	·	·	·	N50°E	II	정확한 토 광의 규모 를 알 수 없어 간략 보고서에 수록된 인 골의 규모 로 대체함.
39			2	·	·	·	(44)	(15)	?	·	·	·	N95°E	II	
40			3	·	·	·	(43)	(12)	?	·	·	·	N87°E	II	
41			4	·	·	·	(72)	(23)	?	·	·	·	N82°E	II	
42			5	·	·	·	(91)	(34)	?	·	·	·	N93°E	II	
43			6	·	·	·	(109)	(25)	?	·	·	·	N122°E	I A2	
44			7	·	·	·	(65)	(21)	?	·	·	·	N87°E	II	
45			8	·	·	·	(40)	(18)	?	·	·	·	N71°E	II	
46			9	·	·	·	(114)	(23)	?	·	·	·	N113°E	II	
47			10	·	·	·	(43)	(16)	?	·	·	·	N101°E	II	
48			11	·	·	·	(49)	(21)	?	·	·	·	N130°E	II	
49			12	?	?	?	(43)	(12)	?	·	·	·	N40°E	I A2	
50			13	·	·	·	(61)	(24)	?	·	·	·	N110°E	II	
51			14	·	·	·	(42)	(12)	?	·	·	·	N10°E	II	
52			15	·	·	·	(143)	(65)	?	·	·	·	?	?	

79) 보고서에는 참배단이 3단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3단이라고 기술된 부분은 곡장의 일부분으로 보고 그 밑의 부분부터 참배단으로 보아 참배단은 2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목관묘(I형)

1) 묘역목관묘(I A식)

묘역목관묘는 매장주체부에는 목관을 안치하고 토광의 외부에는 석재를 이용하여 호석을 두른 형태로 시기적으로 고려시대 이후⁸⁰⁾에 나타난다. 육지부의 묘역시설분묘의 경우 호석+참배단+곡장이 세트로 이루어졌으나 제주도에서 확인되고 있는 분묘 중 이러한 경우는 하원동분묘유적에서만 확인될 뿐 나머지는 호석만 확인되며 그 외의 요소는 간략화되거나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⁸¹⁾. 하지만 호석의 규



<그림 4> I A식 분묘 분포도

- 80)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이른시기의 고려시대 묘역시설분묘로는 용인 마북리 분묘군(2)유적(7·8호), 경주 勿川里 분묘군(I-6호, I-9호), 진안군 壽川里 분묘군 등이 있으며 9세기 후기 ~ 10세기 전기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 81) 하원동분묘유적에서는 3기의 분묘에서 2단의 참배단과 곡장, 호석이 확인되며 1호에서는 석물도 확인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제주 성읍리분묘유적과 제주 금성리분묘유적 I에서는 분묘의 외곽으로 ‘ㄱ’자형의 석렬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묘역시설 중 곡장의 퇴화형으로 봐야 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여 본고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모 및 형태가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호석을 분류기준으로 삼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호석의 변화 원인으로는 피장자의 사회·경제적 계급차이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묘의 축조와 관련된 법령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김인철·주영민 등이 정의한 묘역시설의 요소 중 호석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제외하고 호석을 중심으로 유형을 세분하고자 한다. 묘역목관묘는 호석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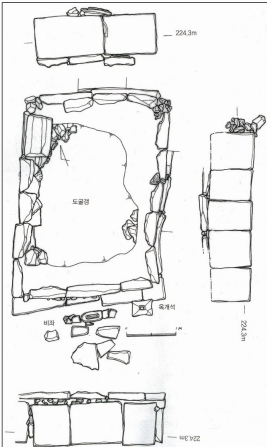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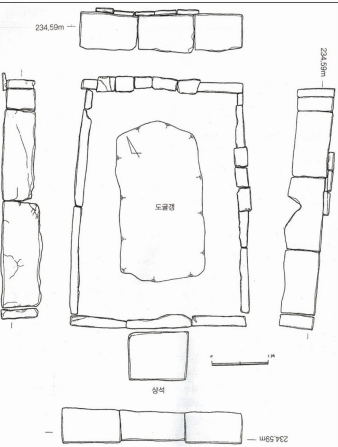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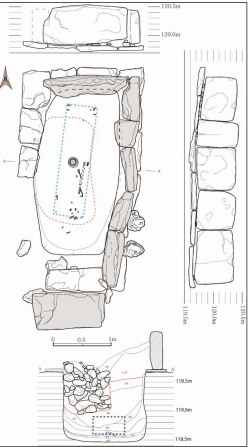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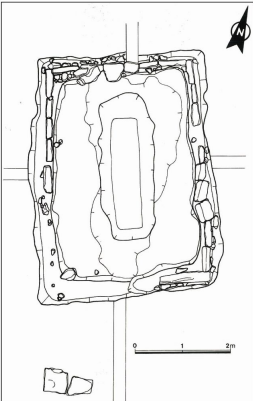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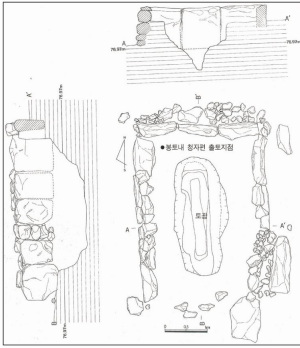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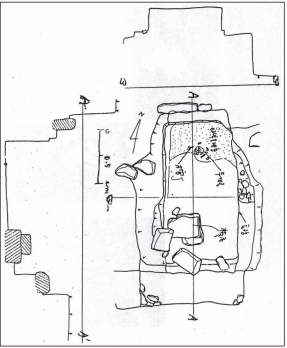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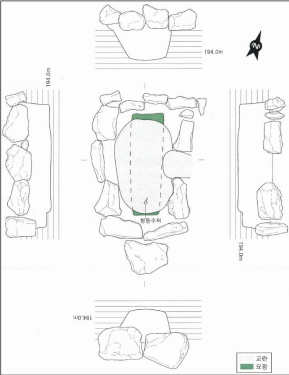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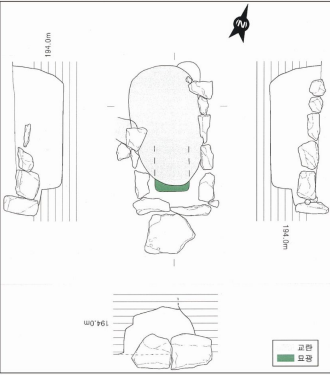
(1) 판석조 묘역목관묘(I A1식)

I A1식은 호석을 축조하는데 판석을 사용하여 축조하는 형식이다. 총 8기로 17기의 I A식에서 47.06%를 차지하고 있다. 판석으로 토광 외부에 호석을 축조한 분묘로는 하원동 분묘유적 1·3호묘, 서귀포 상창리분묘유적, 제주 토평동분묘유적, 화북동 분묘유적 A-2호, 중문동분묘유적, 제주 성읍리분묘유적 1·2호 등이 있다⁸²⁾.

I A1식은 대형판석으로 호석을 세우고 빈틈을 잔자갈을 끼워 넣어 수평을 맞추는 공통점이 있다. I A1식에 속하는 분묘의 차이점으로는 호석 하단에 대석(臺石)을 敷石시키고 축조하는 방식과 호석 위에 미석(楣石)을 두고 축조하는 방식, 그리고 대석과 미석이 확인되지 않는 방식에 있다. 하원동분묘는 호석+대석+미석이 세트를 이뤄 축조되고 있는 반면 화북동분묘유적인 경우 호석 하단의 대석은 보이지 않고楣石만 확인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서귀포시 상창리분묘유적인 경우에는 臺石만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분묘주변으로 편평한 소형판석이 몇 개가 확인되는 것을 볼 때楣石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외 분묘에서는楣石과 臺石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지대석이나 미석은 고려 중기 이후 분묘에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고려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⁸³⁾의 분묘에서도 지대석과 미석(갑석)등이 호석의 위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려 말 조성된

82) 이와 관련하여 김경주·박재현은 제주 성읍리분묘유적 고찰에서 토평동분묘유적을 할석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성읍리분묘유적은 판석+할석형으로 분류하고 있어 필자와는 다른 유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83) 사적 제164호인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은 나주정씨집안의 가족공동묘로 1079년(1호)에 축조되기 시작하여 1229년(6호)까지 150년에 걸쳐 조성되었다. 분묘의 형태는 지대석과 호석 그리고 갑석(미석)등이 갖추어져 있어 제주도 하원동분묘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유형	형 태
I A1식	 <p>제주 하원동분묘유적 (1호)</p>  <p>제주 하원동분묘유적 (3호)</p>  <p>서귀포상랑리분묘유적</p>
	 <p>제주 도평동 분묘유적</p>  <p>화북동 분묘 유적 (A-2호)</p>  <p>중문동분묘유적</p>
	 <p>제주 성읍리분묘유적 (1호)</p>  <p>제주 성읍리분묘유적 (2호)</p>

<그림 5> I A1식 유형분류도

<표 5> I A1식 유구 제원표

유형	유적명	유구 번호	호석규모(cm)			토광규모(cm)			목관규모(cm)			장축 방향	비고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I A 1 식	제주하원동 분묘유적	1호	432	304	100	320	140	100	?	?	?	N18°E	곡 장 / 참배 단 (2단)
		3호	450	310	65	280	140	100	?	?	?	N29°E	
	서귀포 상창리 분묘유적		360	190	60	286	146	124	193	56	?	N-S	·
	제주 토평동 분묘유적		468	327	37	295	115	60	235	60	?	N10°W	·
	화북동 분묘유적	A-2	416	310	?	235	65	37	?	?	?	N5°W	2단 토광
						187	25	60				N20°W	
	중문동분묘유적		?	?	?	240	100	?	?	?	?	N-S	·
	제주성읍리 분묘유적	1호	270	160	?	(180)	(55)	?	?	?	?	N18°W	·
		2호	212	108	?	160	(50)	?	?	?	?	N18°W	·

상산김씨 김후(1365 ~ 1397)의 묘에서도 미석(갑석)등이 확인되어 이러한 지대석과 미석은 고려 중기 이후부터 분묘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호석의 규모에서도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I A1식 분묘 중 가장 늦은 단계로 판단되는 제주 성읍리분묘유적(Ⅱ期)을 제외한 나머지 분묘(I 期)인 경우 호석의 규모가 6.84m² ~ 15.30m²로 제주 성읍리분묘유적의 2.29m² ~ 4.32m²에 비해 대형에 속한다⁸⁴⁾. 이러한 차이를 통해 볼 때 판석을 이용하여 호석을 축조하는 I A1식에서도 호석의 규모와 복합 요소(지대석, 미석 등) 등에서 시간적 변화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원인으로는 조선 건국 후 중앙집권화로 지방지배세력의 약화와 더불어 강력한 분묘축조의 규제에 따라 분묘의 규모가 소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2) 할석조 묘역목관묘(I A2식)

I A2식은 할석과 자연석을 이용하여 능허쌓기 방식으로 적석하여 호

84) 이 중 서귀포 상창리분묘유적의 경우 호석(장축 360cm, 단축 190cm) 장단축 비율이 1:1.89로 I A1식에 해당하는 분묘유구 중 제주 성읍리분묘유적 2호묘(1:1.96) 다음으로 장단축비율이 커 동시기의 분묘의 일반적인 축조방식과는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하원동 분묘유적인 경우 호석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였으며 묘역시설(곡장+참배단)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호는 315m², 3호는 234m²이다.

석을 축조하거나 할석을 일단의 석렬로 호석의 형태를 취하는 형식으로 주로 호석을 세워쌓기 방식으로 축조하는 I A1식과는 축조방법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총 9기가 확인되어 I A식 중 52.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분묘로는 하원동분묘유적 2호, 화북동 분묘유적 A-1호, 금성리분묘유적 I (5·7·8·10·12호), II (6·12호)가 있다⁸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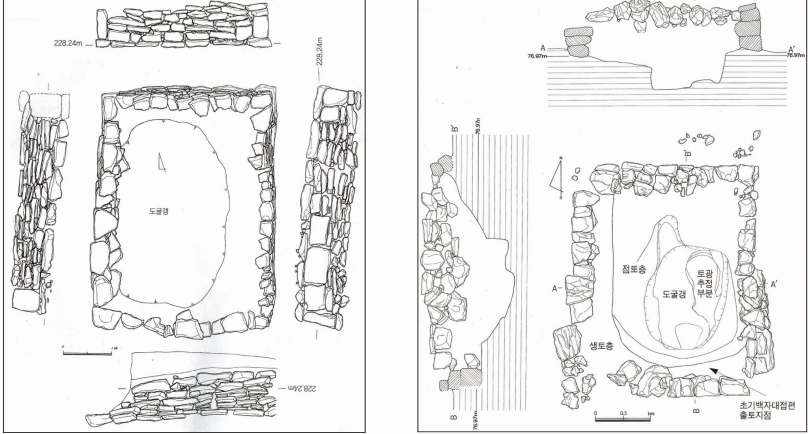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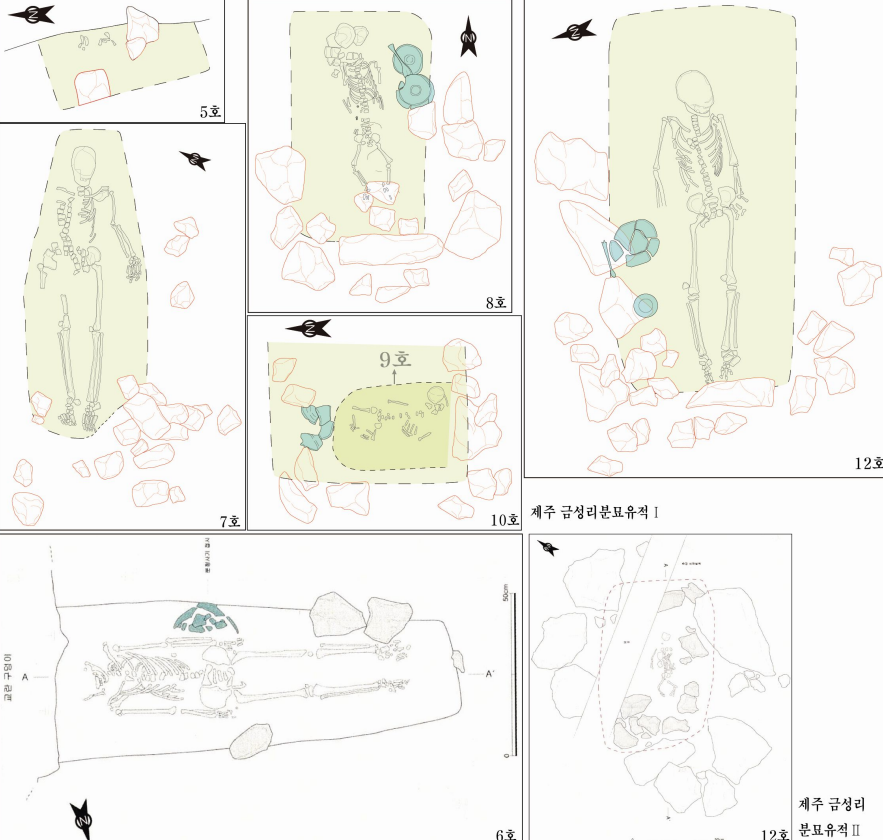
I A2식은 모두 할석과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조하는 공통점이 보이고 있으나 하원동분묘유적 2호인 경우 각 모서리마다 사각기둥형태의 판석을 세워 마감하였으며 각 면을 7 ~ 8단으로 쌓아올려 눅혀쌓기와 세워쌓기가 혼용된 방식을 이용한다. 반해 화북동 분묘유적 A-1호인 경우에는 사면(四面)을 2 ~ 5단으로 쌓아올려 눅혀쌓기 방식만을 이용하여 차이를 보인다. 금성리분묘유적에서 확인되는 호석은 토광 외곽으로 자연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1단으로 석렬의 형태로 조성하고 있으나 기존의 I A1식과 I A2식 중 하원동분묘와 화북동분묘에 비해 조잡하고 규모도 소형이며 분묘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도 분청사기+백자대접+청동순가락의 세트를 이루고 있어 축조시기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중반대로 판단되어 I A식의 퇴화형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분묘의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원동분묘유적 2호인 경우 분묘의 규모가 18.87m²⁸⁶⁾로 화북동분묘유적의 14.07m², 금성리분묘유적⁸⁷⁾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며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제주도 고려-조선시대 묘 중 가장 규모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원동분묘유적 2호가 화북동 분묘유적 A-1호보다 상위 계급으로 제주도를 통틀어 최상위의 지배계급에 속하는 피장자로서 분묘축조에 많은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성리분묘유적 I의 8호묘는 유아묘로서 50cm내외의 판석을 이용하여 호석을 마감하고 있으며 토광내부에서 부장품도 동일 유적 내에서 가장 많이 부장되어 있어 금성리분묘 피장자 중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상위계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85) 금성리분묘인 경우 목관묘의 흔적을 찾기 어려워 묘역목관묘로의 분류가 애매한 것은 사실이나 5호묘의 외부할석에서 관정이 확인되어 목관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묘역목관묘로 분류하고자 한다.

86) 이는 호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곡장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319m²이다.

87) 금성리분묘유적의 경우 일부는 교란되어있으며 지형적으로 모래층에 분묘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호석의 규모를 알 수 없다. 하지만 호석을 피장자의 신체에 맞게 조성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규모는 2.0m²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	형 태
I A 2 식	 <p>제주 하원동분묘유적 (2호)</p> <p>화북동 분묘유적 (A-1호)</p>
	 <p>5호</p> <p>7호</p> <p>8호</p> <p>9호</p> <p>10호</p> <p>12호</p> <p>제주 금성리분묘유적 I</p> <p>제주 금성리분묘유적 II</p>

<그림 6> I A2식 유형분류도

<표 6> I A2식 유구제원표

유형	유적명	유구 번호	호석규모(cm)			토광규모(cm)			목관규모(cm)			장축 방향	비고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I A2식	제주하원동 분묘유적	2	510	370	110	320	140	70	?	?	?	N18°E	곡장/참 배단(2 단추정)
	화북동 분묘유적	A1	420	335	?	162	42	97	?	?	?	N5°W	·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I	5	?	?	?	(32)	(35)	35	?	?	?	N79°E	
		7	?	?	?	(160)	(85)	(13)	·	·	·	N68°E	
		8	?	?	?	(101)	57	54	·	·	·	N77°E	
		10	?	?	?	(56)	68	19	·	·	·	N85°E	
		12	?	?	?	(150)	110	20	·	·	·	N101°E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II	6	?	?	?	(109)	(25)	?	·	·	·	N122°E	
		12	?	?	?	(43)	(12)	?	·	·	·	N40°E	

2) 순수목관묘(I B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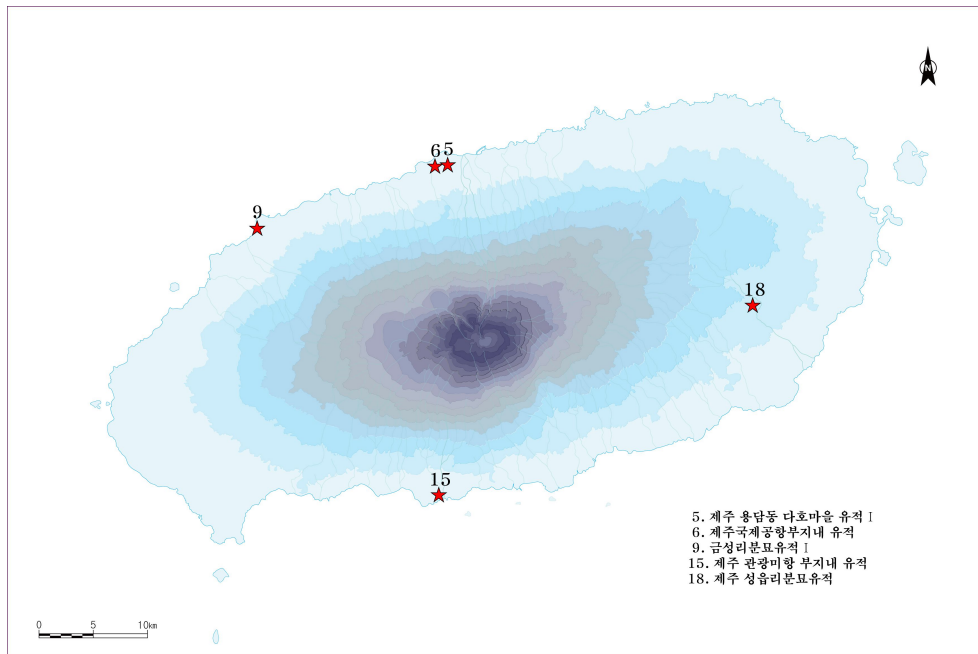
순수목관묘는 토광 외부에 묘역시설(외부시설) 없이 토광내부에 목관만 안치하는 형태이다. 토광 내부에 목관을 안치하는 형태는 청동기시대 전기⁸⁸⁾부터 사용되어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분묘 형태이다. 제주도에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려말선초 대의 순수목관묘(I B식)은 토광 내부에 별도시설이 조성된 것과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별도시설이 조성된 시설식인 경우 현재까지 3기에 불과하며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분묘와 특별히 시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세부분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토광 내부에 별도시설이 설치된 분묘는 제주국제공항부지내 유적(V구역 2호)과 제주 관광미항부지내 유적(II구역 9호, III-1구역 1호)이 있다. 내부 시설로는 크게 요갱과 감실⁸⁹⁾이 있다. 요갱은 분묘 내부에 유물을 매납하기 위하여 토광 바닥의 중앙부위에 일정 규모로 마련해 놓은 소규모 구덩이⁹⁰⁾를 말하며, 감실은 묘의 벽면에 구덩이를 파고 유물을

88) 최근 강원도 중부리 유적에서 기원전 10세기에 해당하는 주구묘에서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2011년 10월 27일 연합뉴스 보도자료.)

89) 감실에 대한 비슷한 용어로는 벽감(壁龕)과 편방(偏旁)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감실을 지칭하는 용어상 큰 차이가 없으며 제주도 내에서 토광 내부시설이 확인된 유적의 보고서에 감실로 칭하고 있음에 따라 감실로 용어를 사용함을 밝혀둔다.

90)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韓國考古學事典』, p910.



<그림 7> IB식 분묘 분포도

매납해 놓은 공간이다. 이 중 요갱은 제주국제공항부지내유적(V구역 2호)와 제주 관광미항부지내유적(Ⅲ-1구역 1호)에서 확인된다. 요갱 내부에서 확인되는 부장품으로는 백자대접과 이형철기(제주국제공항부지내유적), 백자잔(제주 관광미항부지내 유적)이 부장되었으며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중반 이후에 분묘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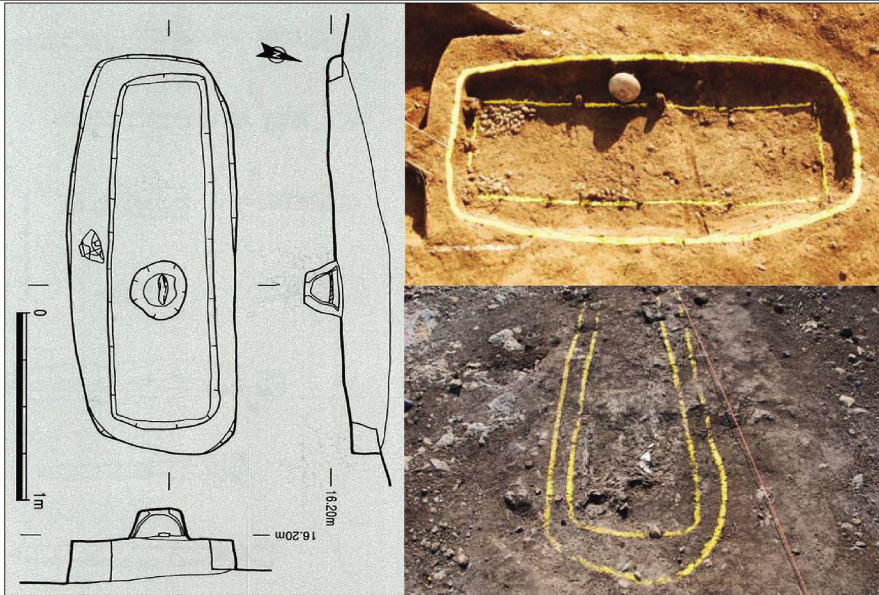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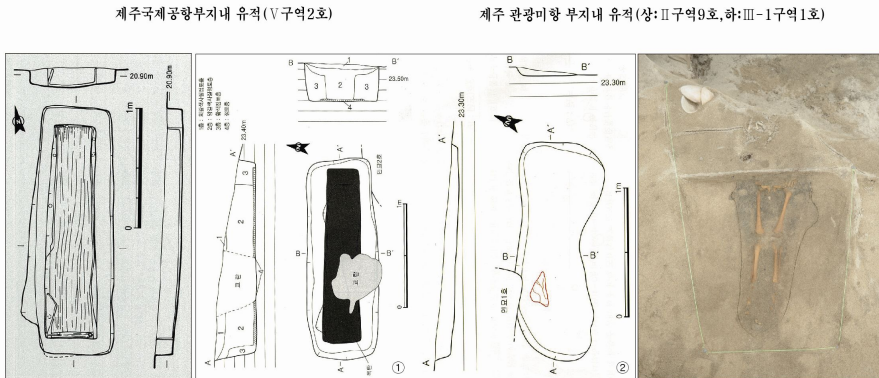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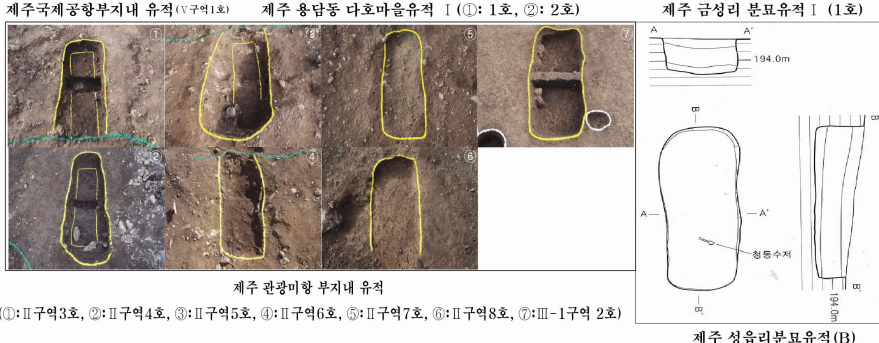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 상창리분묘유적에서도 유사한 내부시설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상창리분묘유적은 본고에서의 형식분류상 IA1식에 해당하며 14세기 후반대로 판단되는 유적이다. 토광 바닥 중앙에서 도기호가 확인되는데 바닥에 인위적으로 굴착하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목관하부에 목탄과 모래 등의 충진토를 깔면서 요갱과 유사한 형태로 도기호를 매납한 것이다. 아무튼 전형적인 요갱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러한 요갱의 전통이 제주도에서도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갱(腰坑)은 무덤의 매장시설 아래 또는 무덤구덩이 바닥에 유물을 매납하기 위하여 피장자의 허리춤, 즉 무덤구덩이의 한 가운데쯤에 일정 규모로 마련해 놓은 소규모 구덩이를 말한다.”

감실이 확인되는 분묘로는 제주 관광미항 부지내 유적(Ⅱ구역 9호)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이를 감실로 보아야 하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보통 감실이란 토광 벽면에 별도의 공간을 굴착하여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반해 Ⅱ구역 9호 묘인 경우 보고서상으로는 목관과 토광사이 공간에 청자접시를 부장한 것으로 보여 이는 부장방식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단 보고자가 감실로 보고 있으며 정식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아 정확한 분묘 형태를 파악할 수 없어 보고자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감실에서 확인되는 부장유물로는 청자접시와 청동순가락이 확인된다. 정식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아 정확한 기형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일단 청동순가락인 경우 병부의 형태가 ‘S’자형으로 만곡도가 크며 청자접시인 경우 구연부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며 직립 혹은 내만하는 기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감실이 확인되는 제주관광미항부지내유적 Ⅱ구역 9호묘인 경우 그 축조시기를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후반대로 판단된다. 토광 내부에 시설이 확인되는 분묘가 3기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분묘축조방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의 분묘에서는 내부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조선 전·중기까지 이어지다 점차 소멸되어 간 것으로 판단된다.

순수목관묘 중 토광내부에 별도의 시설이 없는 분묘는 총 12기로 15기의 순수목관묘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분묘의 경우 토광 내부에서 목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일면 직장묘(直葬墓)로 판단할 수 있으나 제주 관광미항부지내 유적(Ⅱ구역 1·2호)에서 확인되는 직장묘를 살펴보면 토광의 길이는 170 ~ 172cm인데 반해 너비는 35 ~ 38cm로 매우 좁아 피장자의 어깨에 맞추어 폭을 좁게 굴착하여 피장자를 안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토광의 너비가 약 60cm이상인 경우 일단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내부에 시설이 없는 분묘를 살펴보면 부장품의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확인되더라도 몇 점에 지나지 않아 박장(薄葬)의 형태로 변화되어감을 알 수 있다. 내부에서 축조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부장품이 매납된 분묘

유형	형 태
I B식	 <p>제주국제공항부지내 유적 (V구역2호)</p> <p>제주 관광미항 부지내 유적 (상: II구역9호, 하: III-1구역1호)</p>
	 <p>제주국제공항부지내 유적 (V구역1호)</p> <p>제주 용담동 다호마을유적 I (①: 1호, ②: 2호)</p> <p>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I (1호)</p>
	 <p>제주 관광미항 부지내 유적</p> <p>(①: II구역3호, ②: II구역4호, ③: II구역5호, ④: II구역6호, ⑤: II구역7호, ⑥: II구역8호, ⑦: III-1구역2호)</p> <p>제주 성읍리분묘유적 (B)</p>

<그림 8> I B식 유형 분류도

<표 7> IB식 유구 제원표

유형	유적명	유구번호		토광규모(cm)			목관규모(cm)			장축 방향	비고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IB식	제주국제공항 부지내 유적	V 구역	1호	207	72	21	180	42	28	N11°E	
			2호	212	76	22	190	48	22	N7°E	요갱
	제주 용담동 다호마을유적 I	1호		180	74	36	?	?	?	N80°E	
		2호		167	(44)	11	?	?	?	N70°E	
	제주 관광미항 부지내 유적	II 구 역	3호	(170)	80	30	(160)	45	32	N82°W	족분일 가능성 이 있음.
			4호	172	80	30	148	43	23	N79°W	
			5호	198	68	30	165	50	27	N77°W	
			6호	220	116	27	?	?	?	N82°W	
			7호	(174)	(78)	(20)	?	?	?	N82°W	
			8호	180	75	8	?	?	?	N77°W	
			9호	270	145	12	167	53	10	N87°W	감실
		III-1 구역	1호	(200)	72	5	(185)	50	13	N6°E	요갱
			2호	213	98	26	?	?	?	N2°E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I	1호		(89)	(59)	6	?	?	?	N56°E	
	제주 성읍리분묘유적	B		169	69	40	?	?	?	N18°W	

는 제주국제공항부지내유적(V구역 1호)와 제주 용담동다호마을유적 I (1호), 제주 성읍리 분묘유적(B)로 3기⁹¹⁾이다. 확인되는 부장품은 분청사기와 백자, 도기편, 청동숟가락⁹²⁾이다. 이를 통해 볼 때 IB식 중 내부시설이 없는 목관묘의 주 조성시기는 조선시대로 15세기 후반 이후부터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성시기 상으로 봤을 때 제주관광미항부지내 유적의 II구역 9호 묘를 제외하고는 내부시설 유무에 상관없이 15세기 후반 이후에 축조되었으며 내부시설이 있는 분묘는 점차 소멸되며 무시설식 분묘가 제주

91) 이 외에 제주 관광미항 부지내유적의 II구역 4호(청동숟가락), 5호(청동숟가락,젓가락,발/합, 경식)에서 부장품이 확인되었으나 정식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아 기형을 파악할 수 없다.

92) 제주 성읍리분묘(B)에서 출토된 청동숟가락은 정확한 기형을 확인 할 수 없으나 병부의 형태가 연봉형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형태는 공반부장유물 중 백자가 부장된 분묘에서 주로 확인되어 시기적으로 15세기 후반 이후로 판단되며 임란이후에는 나라에 청동이 부족하여 분묘 내에서 청동부장유물이 사라지게 되므로 분묘축조시기는 15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이전으로 판단된다.

도 내에서 조성되는 보편적인 분묘의 형태로 자리잡아 감을 알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제주관광미항부지내유적의 II구역 3 ~ 8호묘는 횡렬로 6기가 나란히 축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열상형태로 집단묘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보통 가족묘일 가능성이 높아 제주도에서도 족분의 형태가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³⁾.

2. 직장묘(II형)

II형은 토광 내부에 목관없이 시신을 그대로 안치한 직장묘 형태이다. 총 17기가 확인되었으며 제주 금성리분묘유적 I (5기), 금성리분묘유적 II (12기)로 모두 금성리분묘유적에서만 확인된다⁹⁴⁾. 분묘 내에서 모두 인골이 확인되었는데 확인되는 인골 17구 중 성인인골 4구, 영유아인골 13구로 영유아인골이 76.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⁹⁵⁾. 또한 분묘 외에 추가 수습된 인골을 더하면 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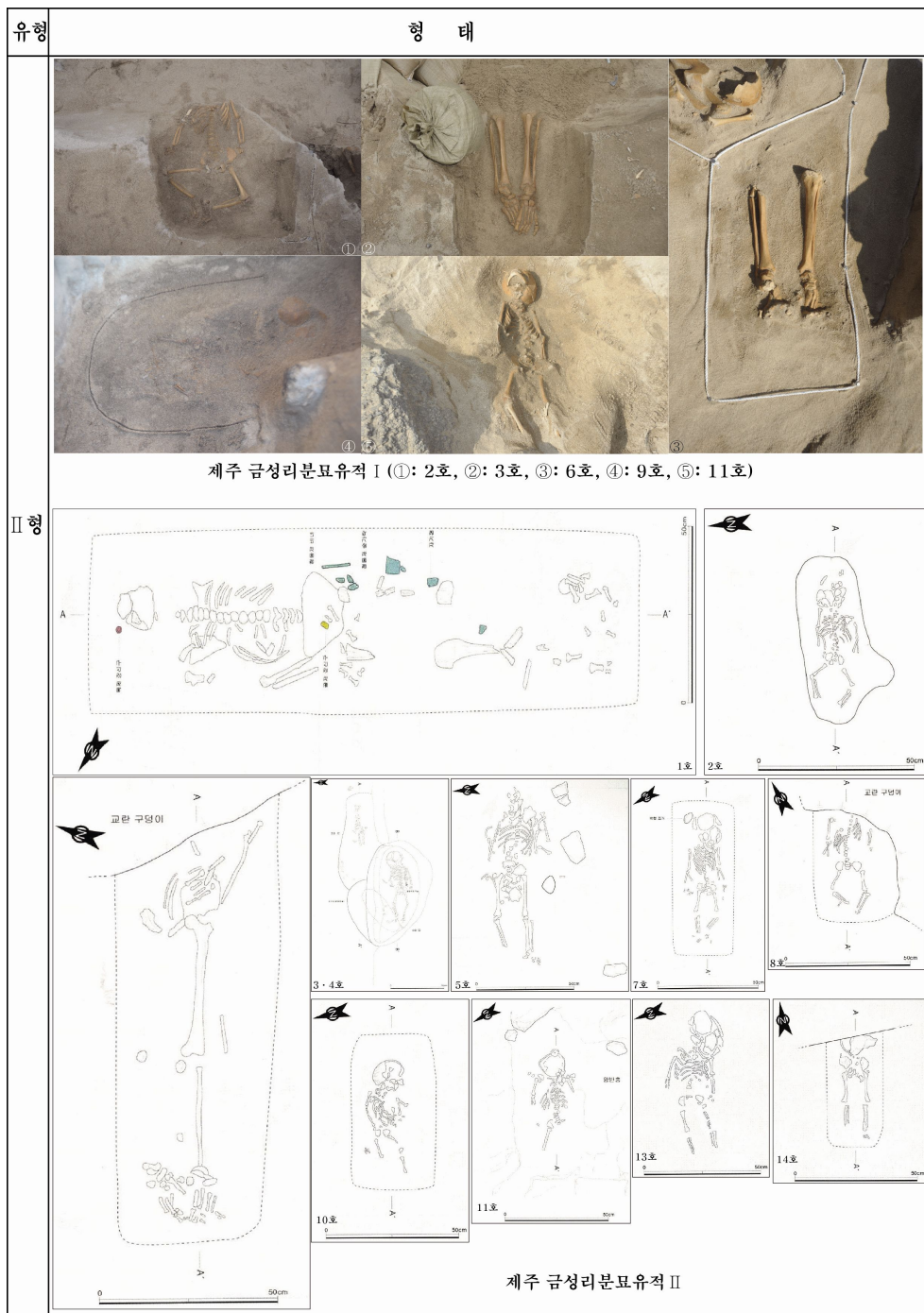
1차 조사에서는 순모래층에서만 분묘와 인골이 확인되었으나 2차 조사에서는 순모래층의 하부 층에서도 분묘가 확인되고 있어 단기간에 조성되었다기 보다는 장기간에 분묘가 조성된 집단묘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분묘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모래에 매장되어 있어 분묘의 정형성을 살피기에는 힘들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인골의 다수가 영유아로 신전장을 하였다. 하지만 염습 등의 일정한 의식을 통한 상례절차를 행했다기 보다는 피장자의 자세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매장한 형태로 확인된다.

93) 제주도 내 분묘유적에서 제주관광미항부지내 유적처럼 열상(列狀)의 집단묘가 있는 예로는 제주 금성리분묘유적과 하원동분묘유적이 있다. 하지만 제주금성리분묘유적인 경우 추후 설명하겠지만 DNA분석결과 친족관계를 추정할 자료가 없어 가족묘일 가능성이 낮으며 하원동분묘인 경우 1,3호 묘인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나 2호 묘는 축조방법이 다르며 2호 묘의 묘역이 1호 묘의 묘역을 파괴하여 후축하고 있어 가족묘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94) 제주 관광미항부지내 유적에서도 2기의 직장묘가 확인되었는데 토광 내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부장품이 없으며 보고자도 조선 후기 이후로 보고 있어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95) 김재현, 2012,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출토 인골의 형질학적 검토」,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옛 탐라인의 실체 규명’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p.33

금성리분묘유적 I 에서는 분묘에서 확인된 인골과 더불어 수습된 인골을 다 합치면 최대 26개체 가지도 추정가능한 상태이며 금성리 분묘유적 II 에서는 최대 21개체까지 추정가능하다. 따라서 영유아의 인골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림 9> II형 유형 분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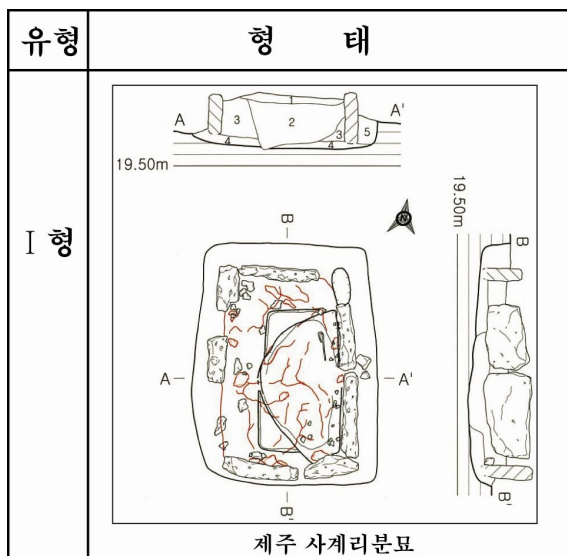
부장유물로는 1차 조사에서는 분청사기+백자대접+청동순가락(8호), 분청사기+분청사기+청동순가락(12호)의 조합을 보이며 부장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외에 구슬(8호), 흑갈유병(10호), 청자편(6호)가 확인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자기류와 청동순가락의 조합은 확인되지 않고 장신구(옥제, 골제), 청동비녀와 순가락, 옥구슬, 청자대접, 백합조개이 확인되었다. 또한 1차조사 실시 전에 공사시 수습된 유물로는 청자광구병, 청동발, 청동순가락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물상을 통해 볼 때 그 시기는 12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중반까지로 축조시기를 편년내릴 수 있으나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부장양상을 통해 볼 때는 중심조영연대는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중반대로 판단된다.

<표 8> II형 유구 제원표

유형	유적명	유구 번호	토광규모(cm)			목관규모(cm)			장축 방향	비고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II형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I	2호	(54)	(51)	16	·	·	·	N82°E	영유아
		3호	(55)	(42)	30	·	·	·	N73°E	성인
		6호	(88)	(44)	?	·	·	·	N44°E	성인
		9호	(50)	(34)	55	·	·	·	N-S	영유아
		11호	(85)	(40)	30	·	·	·	N51°W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II	1호	(178)	(50)	?	·	·	·	N50°E	성인
		2호	(44)	(15)	?	·	·	·	N95°E	영유아
		3호	(43)	(12)	?	·	·	·	N87°E	
		4호	(72)	(23)	?	·	·	·	N82°E	
		5호	(91)	(34)	?	·	·	·	N93°E	
		7호	(65)	(21)	?	·	·	·	N87°E	
		8호	(40)	(18)	?	·	·	·	N71°E	
		9호	(114)	(23)	?	·	·	·	N113°E	성인
		10호	(43)	(16)	?	·	·	·	N101°E	영유아
		11호	(49)	(21)	?	·	·	·	N130°E	
		13호	(61)	(24)	?	·	·	·	N110°E	
		14호	(42)	(12)	?				N10°E	

3. 석곽묘(Ⅲ형)

제주도 내에서 발굴조사된 분묘 가운데 석곽묘(Ⅲ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주 사계리 분묘 1기뿐으로 전체 분묘 중 1.8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묘만으로는 유형분류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목관묘와는 토광 내부 축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석곽 내부에는 이미 도굴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로 토광과 석곽 사이 충진토에서 백자편이 확인되어 축조시기는 15세기 말 이후로 보인다. 분묘의 규모는 I A1·2식의 묘역목관묘(I期)에 비해 소형으로 동시기(Ⅱ期)에 축조한 것으로 보이는 제주 성읍리분묘와 비슷하다.



이러한 분묘규모의 차이는 후술하겠지만 고려시대 이후 제주도를 지배하던 성주·왕자층이 조선 초에 소멸되면서 지방사족층으로 전락하였고 그 바탕에는 조선왕조가 성리학을 토대로

<그림 10> Ⅲ형 유형 분류도
강력한 중앙집권을 이루는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고 추정한다⁹⁶⁾. 또한 이와 더불어 당시 조정에서는 석곽묘의 축조를 금지하였고 대신들의 분묘축조에 있어 그 규모를 정하였으며 이러한 각종 법령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묘규모의 소형화로의 변화가 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Ⅲ형 유구 제원표

유형	유적명	석곽규모(cm)			토광규모(cm)			목관규모(cm)		장축방향	비고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I	제주 사계리유적	187	131	45	213	163	20	(125)	(47)	N24°E	

96) 자세한 것은 제4장 시기별 분묘의 변천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제2절 부장유물의 검토⁹⁷⁾

고려시대 이후 분묘는 대부분 도굴에 의해 내부의 부장유물이 온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제주도의 분묘에서도 나타나는데 일례로 화북동분묘유적에서는 발굴조사에서 도굴의 흔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도굴침이 확인되었고 하원동분묘유적은 일제강점기의 도굴 당시의 사진이 남아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분묘(특히 묘역목관묘)의 경우 그 축조시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선학들에 의해 조사되었던 분묘 출토 부장품이나 분묘 연구 논문 등을 참고하여 분묘의 축조시기를 추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분묘유적 내에서 확인된 부장유물은 크게 자기류, 도기류, 청동기류, 철기류, 기타류로 구분된다. 자기류로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이 있는데 전체 부장유물 205점 중 54점으로 26.34%를 차지하고 있다⁹⁸⁾. 도기류로는 도기호와 도기병이 있는데 5점이 확인되어 전체 부장유물에서 2.44%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부장유물 중 수량이 가장 적다. 청동기류로는 청동시·저, 청동발/함, 동곳, 도자, 청동제품 등이 있는데 총 30점이 확인되어 전체 부장유물 중 14.63%를 차지하고 있다. 청동기류 중 청동순가락이 14점으로 약 46.67%로 전체 청동기류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청동제품은 주로 장식품보다는 생활용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철기류는 관정, 철제품, 가위 등이 있는데 전체 부장유물 중 22.9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철기류 47점 중 관정이 39점으로 철기류 전체 약 83% 차지하고 있어 관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출토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기타류로는 장신구(옥, 구슬, 경식, 골제품), 동전, 자연유물 등이 있는데 전체 부장유물 중 33.66%를 차지하고 있다.

97) 금성리분묘유적, 제주 관광미향 부지내 유적은 보고서 미발간으로 간략보고서의 유물사진에서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98) 분묘 내에서 시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파편들도 포함하였다.

<표 10> 분묘 유형별 출토유물현황표

유형				유적		자기													도기			청동기						철기			기타						합계
						청 자				분청사기				백 자				기타																			
						병	접시/ 대접	잔	파편	대접	접시	파편	대접	접시	호	병	잔	파편	유병	호	병	파편	청동시	청동저	발/함	동곳/ 비너	도자	청동 제품	관정	철제품	가위	옥	구슬	경식	동전	자연 유물	
I	A	1	제주 하원동 분묘유적	1호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3호	-	-	-	-	-	-	1	-	-	-	-	-	-	-	-	-	-	-	1	-	-	-	10	-	-	-	1	-	-	-	14		
			서귀포 상창리 분묘유적		-	-	-	-	-	-	-	-	-	-	-	-	1	1	-	1	1	-	1	-	1	7	-	-	-	2	-	-	-	-	15		
			제주 토평동 분묘유적		-	-	-	-	-	-	-	-	-	-	1	-	-	-	-	1	-	1	-	2	1	6	6	-	-	-	-	-	-	-	18		
			화북동분묘유적		A2	-	-	-	1	-	-	-	-	-	-	2	-	-	-	-	-	-	-	-	-	-	-	-	-	-	-	-	-	-	3		
			중문동분묘유적		-	-	-	-	-	-	1	-	-	-	-	-	-	-	-	-	-	-	-	-	-	3	-	-	-	-	-	-	-	-	-	4	
		제주 성읍리 분묘유적	A1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A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화북동분묘유적		A1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1		
			제주 하원동 분묘유적		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I	5호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1		
				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호	-	-	-	-	-	2	-	1	-	-	-	-	-	-	-	1	-	-	-	-	-	-	-	-	-	-	3	-	-	-	7		
				10호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1		
	12호		-	-	-	-	1	1	-	-	-	-	-	-	-	-	-	1	-	-	-	-	-	-	-	-	-	-	-	-	-	-	3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II		6호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제주국제공항 부지내 유적	V 구역	1호	-	-	-	-	-	-	-	-	1	-	-	-	-	-	-	-	-	-	-	-	11	-	-	-	-	-	-	-	-	12			
				2호	-	-	-	-	-	-	2	-	-	-	-	-	-	-	-	1	-	-	-	-	-	1	-	-	-	-	-	-	-	-	4		
		제주용담동 다호마을유적		1호	-	-	-	-	1	-	1	-	-	-	1	-	-	-	1	-	-	-	-	-	-	-	-	-	-	-	-	-	-	4			
				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 관광미항 부지내 유적	II 구역	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호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5호	-	-	-	-	-	-	-	-	-	-	-	-	-	-	-	1	1	1	-	-	-	-	-	-	-	-	1	-	-	-	4		
				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호	-	1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III-1 구역				1호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1			
2호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I		1호	-	-	-	-	-	-	-	-	-	-	-	-	-	-	-	-	-	-	-	1	-	-	-	-	-	-	4	-	-	5					
제주 성읍리분묘유적		B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II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I	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호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		1호	-	1	-	-	-	-	-	-	-	-	-	-	-	-	1	-	-	1	-	-	-	-	-	1	-	-	-	-	1	-	5			

[illegible]

1. 자기류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분묘유적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⁹⁹⁾. 자기류로는 청자와 분청사기, 백자가 있다. 청자는 병, 대접, 접시 등이 출토되었는데 병류로는 청자매병과 청자광구병이 있다. 청자매병은 귀덕리 유적에서 1점이 확인되었다¹⁰⁰⁾. 귀덕리 유적에서 출토된 청자매병은 목 아래에서 둥글게 곡선을 그리며 벌어지다 동체중앙에서 강한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다 저부에 다다르기 전 외반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김태은¹⁰¹⁾은 IIIA형으로 분류하였고 이영배¹⁰²⁾는 5단계 쇄퇴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양미옥¹⁰³⁾도 귀덕리분묘유적에서 출토된 매병과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진천 송두리무덤 내 청자를 14세기대 유물로 보고 이어 이러한 형태의 매병을 14세기 이후로 공통적으로 보고 있다. 청자광구병은 제주금성리분묘유적 I에서 공사시 수습유물로 확인되었다. 청자광구병은 13세기 이후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기종으로 알려져 있어 그 시기를 대략 12세기 대로 보고 있다.

청자대접은 금성리분묘유적 II 1호묘에서 확인되며 청자접시는 제주관광미항부지내 유적 II구역 9호에서 출토되었다. 1호묘에서 출토된 청자대접은 구연부편으로 전체 기형을 알 수는 없으나 기벽이 거의 사선에 가깝게 구연부로 이어지며 구연부의 끝이 직립에 가깝게 내만되는 기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을 현문필¹⁰⁴⁾은 I형으로, 김병수¹⁰⁵⁾는 II형식 석곽묘에서 출토되는 청자대접기형으로 보고 있으며 그 시기는 12세기 초에서 13세기 초로 보고 있다.

분청사기는 주로 대접과 접시가 출토되었는데 금성리유적 I에서 8점(수습유물 4점 포함)이 확인되어 제주도내 분묘유적 중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 용담동 다호마을 I에서도 분청사기 대

99) 철기류와 기타류에서는 관정과 구슬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출토비율이 높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자기류가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100) 이와 관련하여 제주 성읍리분묘유적 고찰편에는 백자매병이라고 칭하고 있다. 하지만 귀덕리 분묘유적보고서 상에는 청자매병으로 기술되어 있어 보고서를 따르고자 한다.

101) 김태은, 2008, 『고려시대 매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2) 이영배, 2008, 『고려청자 매병의 발생과 변천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3) 양미옥, 2005, 전계서, p.104.

104) 현문필, 2005, 전계서, p.47.

105) 김병수, 2007, 전계서, p.33.



<그림 11> 출토유물일괄(자기류)

접 1점이 확인되었다. 분청사기는 15세기 중부터 성행하여 임진왜란 전·후로 쇠퇴하는 기종¹⁰⁶⁾이다. 이에 따라 분청사기가 주로 출토되는 유적의 편년은 15세기 중후반 ~ 16세기 중대로 보고 있다¹⁰⁷⁾.

백자로는 백자 대접, 접시, 호, 병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백자 대접이 8점으로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백자대접은 제주국제공항부지내 유적내 V구역 2호묘에서 2점이 확인되었으며 금성리분묘유적 I 8호묘에서 확인되었다. 자기류 부장양식을 살펴보면 분청사기+분청사기+청동순가락(금성리 I 12호), 분청사기+백자대접+청동순가락(금성리 I 8호), 백자대접+백자대접+청동순가락(제주국제공항 2호)의 공반세트를 보이고 있지만 분청사기나 백자가 출토되는 분묘유적 중 청동발/합이 공반부장된 예¹⁰⁸⁾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2. 도기류

도기류로는 도기병과 도기호가 있다. 도기병은 2점이 확인되었는데 귀덕리분묘유적에서 출토된 도기병은 구연부가 결실되어 반구병인지 팔구병인지 알 수 없으나 공반 유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볼 때 팔구병으로 추정된다. 상창리분묘유적에서도 팔구병이 확인되는데 분묘 밖에서 파손된 채 확인되었다. 이는 도기병이 성형과정에서 찌그러진 채로 완성되었는데 도굴과정에서 상품가치가 없다고 보고 도굴 후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상창리분묘유적에서 출토된 팔구병은 동최대경이 하단에 있고 목이 짧은 형태로 주영민은 이를 DII-D2형으로 분류하고 시기를 10세기 전반 ~ 13세기 전반으로 본 반면, 이수정과 박미옥은 각각 6형, II Bb형으로 분류하며 13세기 후반 ~ 14세기 후반과 13세기 중엽 ~ 14세기로 편년

106) 강경숙, 2012, 『韓國陶磁史』, p322.

“분청사기는 14세기 중엽 발생하여 16세기 초반까지 약 200여 년간 생산되었으며, 우리나라 도자기 중에서 가장 순박하고 민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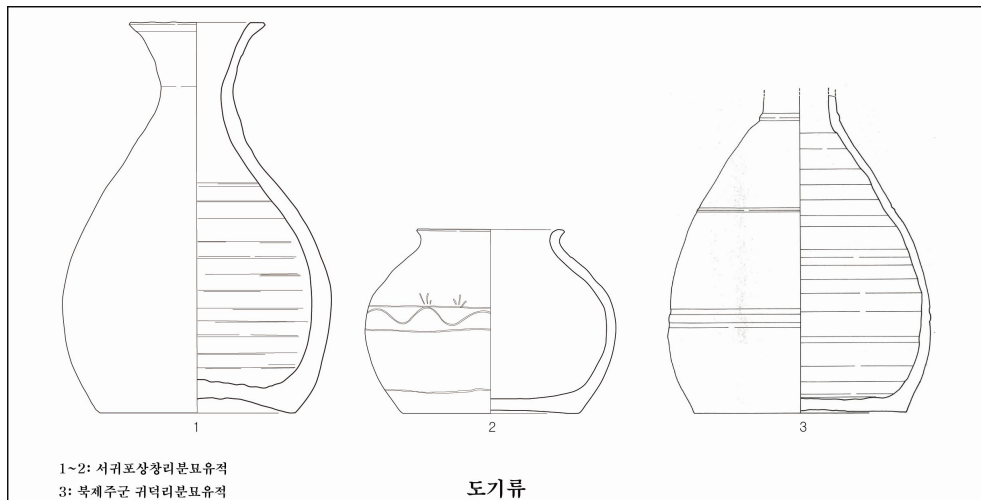
107) 이와 관련하여 현문필은 제주도내 발견매장문화재 도자기류 신고품을 살펴보면서 대부분 분묘의 부장유물로 보았다. 이를 도자기의 편년 기준으로 세분화하면서 청자는 14세기, 분청사기는 15 ~ 16세기, 백자는 16 ~ 17세기에 제작된 것들로 이와 같은 자기의 종류, 공반양상 등의 특징을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지역 분묘 발굴조사의 출토상황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현문필, 2012,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출토 자기의 특징과 성격」, 제주 금성리분묘유적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옛 탐라인의 실체 규명’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p20.

108) 하원동분묘유적과 금성리분묘유적 I, 귀덕리분묘유적의 경우는 유구의 훼손도가 심하거나 출토위치가 불분명하며 정확한 공반양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내리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도기호는 상창리분묘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주영민은 이러한 기형을 B1형으로 분류하며 출토유적의 중심조영연대로 보아 10세기 후기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IV기(14 ~ 15세기)까지 존속한다고 보았다.



<그림 12> 출토유물일괄(도기류)

3. 청동기류

청동기류로는 청동술가락, 젓가락, 청동발, 동곳, 비녀 등이 출토되었다. 청동술가락은 총 14점이 확인되었는데 상창리분묘유적, 귀덕리분묘유적, 토평동분묘유적, 금성리분묘유적 I·II, 제주 성읍리분묘유적, 제주관광미항부지내 유적, 제주국제공항부지내 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청동술가락은 시부의 형태와 너비, 병부의 만곡도, 병단부의 형태에 따라 시기를 구분한다¹⁰⁹⁾. 시부의 형태는 대부분 유엽형이며 병부의 만곡도는 ‘S’자형과 ‘一’자형으로 크게 대별된다. 이 중 금성리 분묘유적 12호묘에서 출토된 청동술가락의 경우는 유엽형으로 만곡도가 크고 병부의 끝이 연미형이며 그 크기가 25cm내외로 긴 기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고려시대 후기(13세기 후반 ~ 14세기)의 대표적인 기형이다. 또한 공사시수습된 다른 청동술가락의 형태는 유엽형이지만 길이는 22.5cm로 중간크기이며 병부의 끝이 능형으로 이수정은 이러한 형태를 2형식¹¹⁰⁾으로 분

109) 김병수, 2007, 전계서, p42.

류하였고 시기는 11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으로 보았다. 양미옥도 이러한 형태를 고려중기대(12세기 ~ 13세기전)¹¹¹⁾로 보고 있어 같은 유적 내에서 출토되는 청동순가락에도 그 시기폭이 큼을 알 수 있다. 귀덕리 분묘에서 출토된 청동순가락은 만곡도가 ‘-’자형에 가깝고 병부끝이 연봉형으로 이러한 형태는 조선 초로 보여진다. 청동젓가락은 상창리분묘 유적에서 1점이 확인된 게 유일하다. 청동젓가락의 경우 전국적으로 그 부장빈도가 매우 낮으며 이러한 양상은 제주도에서도 확인된다.

청동발은 총 8점¹¹²⁾이 출토되었다. 하원동분묘유적, 귀덕리분묘유적, 토평동분묘유적, 금성리분묘유적, 제주 관광미항부지내유적에서 확인된다. 귀덕리분묘유적에서 확인되는 청동발은 일부편으로 대각의 유무는 알 수 없다. 다만 대각이 없는 청동발일 경우 기형이 구연부로 둥글게 직립하거나 내만하는 형태를 하고 있어 이수정의 분류안 2형식¹¹³⁾과 양미옥의 분류안 I Ba②형¹¹⁴⁾과 유사하며 제작시기는 이수정은 11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 양미옥은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중반으로 편년하고 있어 대략 그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토평동분묘유적에서 확인되는 청동발은 대각이 있는 형태로 대각을 부착한 형태와 기형을 통해 볼 때 양미옥은 I Aa③식¹¹⁵⁾, 이수정은 9형식¹¹⁶⁾, 박미옥은 IIc형¹¹⁷⁾으로 분류하고 시기는 공통적으로 대략 13세기 후반 ~ 14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하원동분묘 내에서 출토된 청동발의 경우¹¹⁸⁾ 대각이 전체적으로 작아 균형감이 없는 형태로 중원 누암리 23호분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양미옥은 그의 논문¹¹⁹⁾에서 이러한 기형을 I Aa②형으로 분류하고 동반유물과의 관계를 통해 12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금성리분묘유적에서도 청동발이 2점 출토되었다. 1점은 대각이 부착된 형태이며 1점은 없는 형태로 대각이 부착된 청동발은 하원동분묘의 청동발과 형태상

110) 이수정, 2009, 전계서, p.26.

111) 양미옥, 2005, 전계서, p.111.

112) 하원동탐라왕자묘 보고서에 1914년 촬영한 사진에 2기의 청동발이 확인된다.

113) 이수정, 2009, 전계서, p.24, 44.

114) 양미옥, 2005, 전계서, p.107.

115) 양미옥, 2005, 전계서, p.106.

116) 이수정, 2009, 전계서, p.24.

117) 박미옥, 2006, 전계서, p.42~44.

118) 보고서상에는 청동제품과 함께 사진자료만 있어 정확한 기형을 파악하기 힘들다.

119) 양미옥, 2005, 전계서, p.106.



<그림 13> 출토유물일괄(청동기류)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로 판단된다. 대각이 없는 청동발은 구연이 직립하며 바닥은 완만한 원저를 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런 기형은 양미옥¹²⁰⁾의 분류안 중 I Ba②, 주영민¹²¹⁾의 분류안 중 I ii Aa②, 이수정¹²²⁾의 분류안 중 2형식, 박미옥¹²³⁾의 분류안 중 I A식에 해당하며 시기는 대체적으로 11세기 중후반에서 13세기 전중반으로 편년을 내리고 있다.

동곳¹²⁴⁾은 현재 상창리분묘유적에서 유일하게 출토되었다. 동곳은 그 자체로 편년내리기는 어려워 간략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U’자형으로 각부는 선단까지 평행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동곳은 청주 용안 금천동 고려분묘유적, 청주 호암동 유적 내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기형을 하고 있다. 시기는 충주 호암동 유적에서 동반 출토된 崇寧重寶(1102 ~ 1106)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12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철기류는 총 47점이 확인되었는데 주로 관정으로 거의 대부분의 분묘유적에서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볼 때 대부분 목관을 안치하는 목관묘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위는 하원동탐라왕자묘 보고서의 도판에 1914년에 촬영한 사진에서 1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으로만 확인되어 정확한 기형을 알 수는 없지만 고려 후기 이후에 주로 부장되는 ‘X’자 형태로 판단된다. 이러한 ‘X’자형 가위는 13세기 중·후반부터 부장품으로 매장되는 양상을 보이며 14세기 말 ~ 15세기 초까지 이어진다.

도평동분묘유적에서 용도미상의 판상철물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목관 바닥부위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판상철물에 대해 김은경¹²⁵⁾은 고려시대 분묘에서만 확인되는 유물로 묘광 바닥 가운데 즉 목관 아래에서 확인되며 의기성 유물로 판단하고 있다. 박미옥¹²⁶⁾도 같은 용도의 부장유물로 판단하며 鎮墓辟邪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판상철물은 제주국제공향부지내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V구역 2호묘의 요갱 내부

120) 양미옥, 2005, 전계서, p107.

121) 주영민, 2004, 전계서, p91.

122) 이수정, 2009, 전계서, p24.

123) 박미옥, 2006, 전계서,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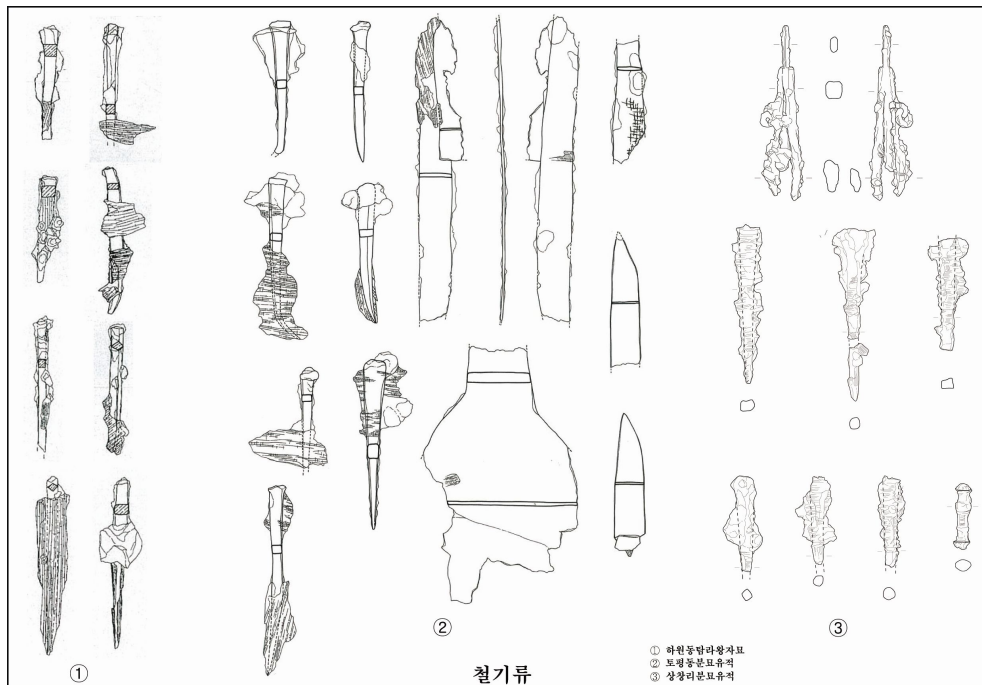
124) 동곳은 보고자에 따라 가랑비녀라고도 불리는데 성별에 의한 차이로 그 구분은 주로 동반유물에 따라 분류한다. 여기서는 보고자의 의견에 따라 동곳으로 칭한다.

125) 김은경, 2008, 전계서, p50.

126) 박미옥, 2006, 전계서, p57.

에서 이형철기가 확인되는데 요갱 내부에 매납된 것으로 보아 판상철물과 같은 의기성유물로 보인다.

기타류로는 장신구(옥, 구슬, 경식, 골제품), 동전, 자연유물 등이 있다. 장신구는 주로 유리구슬로 현재 귀덕리분묘유적, 상창리분묘유적, 하원동분묘유적, 금성리분묘유적에서 확인된다. 크기는 주로 0.5 ~ 1.0cm로 귀덕리분묘유적은 그 보다 큰 1.8cm내외다. 장신구 중 특이한 것으로는 골제 장신구가 있다. 모두 금성리분묘유적에서만 확인되는데 골제 장신구를 통해 당시 뼈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일상생활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연유물은 백합조개로 금성리분묘유적 I에서 처음 확인되었는데 당시에는 자연유물의 부장예가 없어 부장유물로서 그 의미가 불분명하였는데 금성리분묘유적II에서도 2점이 확인되어 지역적 특색에 따른 부장유물의 한 형태로 파악된다.



<그림 14> 출토유물일괄(철기류)

제3절 분묘의 편년

앞절에서 살펴본 부장유물과 함께 육지부의 분묘,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유형별 분묘의 편년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하원동분묘유적(I A1·2식)의 경우 도굴상태가 심해 부장유물이 거의 없고 1914년 촬영한 사진의 경우 해당보고서 p.107 각주에 출토품이 잘못 기재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선불리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분묘 축조형태라든지 규모로 볼 때 그 형태가 안산부곡동 옛무덤 서4호 토광묘, 안산 대부도 육곡 고려고분군 3·5호 토광묘와 유사하다. 이들 분묘는 축조시기가 11세기 후기에서 12세기 초기로 고려 중기대이다. 이러한 형태는 16세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하원동분묘의 축조시기는 청동발의 경우 12세기 후반이며 'X'자형 가위의 부장이 13세기 중·후반부터로 비슷한 유형의 분묘의 축조시기와 부장유물양상 그리고 당시 정치상황을 보더라도 (비록 고려시대에도 분묘보수 제한에 대한 법령은 있었지만) 조선 건국 후 강력한 중앙집권을 위해 분묘보수를 강제하는 법령을 내려 규모에 제한을 둔 것을 고려한다면 하원동분묘의 축조시기는 13세기 후반 ~ 14세기 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성리분묘유적(I A2식·II형)의 경우 출토유물의 상하연대 폭이 상당히 크다. 공사시 수습된 청자반구병과 청동발, 청동숟가락의 경우 대략 11세기 중·후반에서 13세기 전·중반으로 편년 내려지나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분청사기나 백자 등은 15세기 중·후반 ~ 16세기 전반대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에 금성리분묘유적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조성된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져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발굴조사된 분묘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중심조영연대를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대로 추정해 본다.

귀덕리분묘유적의 경우 부장품 중 청자매병의 경우 14세기 중·후반대이며 청동숟가락 역시 조선 초로 보여 유물조합상으로 볼 때 분묘축조시기는 15세기에서 16세기대로 판단된다.

상창리분묘유적(I A1식)의 경우 부장품의 연대는 빠르면 10세기 후반대로 볼 수는 있으나 도기호의 경우 요갱의 위치에 같이 부장된 형태는 14세기 중엽대부터 확인되며 또한 도기병이나 도기호의 경우 부장현황

<표 11> 유형별 편년 모식도

시기 및 편년 유형			I 期				II 期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후	전	중	후	전	중	후
I	A	1							
	B	2							
								
II									
								
III									
								

시기가 14 ~ 15세기까지 이어지고 있어 축조시기를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전반으로 상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토평동분묘유적(I A1식)은 판상철물의 경우 주로 고려시대 분묘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물이며 공반부장품인 청동발인 경우 14세기 후반대로 보이는 말끔 늦어도 14세기 말대로 판단된다.

화북동분묘유적(I A1·2식)인 경우 내부유물이 거의 없어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고봉례의 생물연대가 15세기 초(1411년)로 분묘축조방법이 여타 분묘유적과 유사하여 동 시기로 편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국제공항부지내 유적(II B식)에서 확인되는 분묘는 2호 묘 내부에서 백자+청동순가락의 공반유물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요갱시설이 확인되어 축조시기는 15세기 중에서 16세기 중반대로 보여진다. 또한 1호 묘인 경우 내부에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2호 묘가 후축하여 파괴된 점을 고려할 때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관광미항부지내 유적은 II구역 9호 묘(II B식)인 경우 청자접시+청동순가락의 부장유물공반양상을 보이고 있어 늦어도 13세기 후반 ~ 14세기 후반대로 보이며 II구역 3 ~ 8호 분묘(II B식)는 15세기 이후에 조성되어 한 대(代)를 30년으로 가정하여 17세기 후반대까지 조성된 것으

로 판단된다. 제주 성읍리분묘유적(ⅠA1식)과 제주 사계리분묘(Ⅲ형)은 분묘규모가 소형에 내부에서 청동순가락만 확인되거나 백자편만 확인되고 있어 늦어도 임란 이전 16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외 내부에서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분묘의 경우 조선 초기에서 중기로 갈수록 전국적으로 박장화(薄葬化) 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16세기 중·후반 이후로 편년 내려진다.

종합하여 보면 ⅠA식은 13세기 중엽부터 확인되기 시작하여 15세기 초 이후에는 감소하여 16세기 이후에는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ⅠB식은 15세기 초 이후부터 분묘 축조가 증가하여 16세기 이후에는 제주도의 주 묘제로 채택되어감을 확인할 수 있다.

Ⅱ형은 유적내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축조시기를 12세기 중엽과 15세기 중~16세기 중엽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으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물로 봤을 때는 중심조영연대는 15세기 중~16세기 중으로 판단된다. Ⅲ형은 현재까지 1기만 확인되어 단언하기 힘들지만 15세기 후반~16세기 중반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부장품을 통해 분묘의 축조시기를 추정해 보았다. 하지만 출토된 부장유물의 양이 적으며 후대의 교란에 의해 시기적으로 다른 유물이 뒤섞일 가능성이 있어 부장품만으로 분묘의 축조시기를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제주도는 분묘유적에서 출토되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청동기, 철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재료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즉 부장유물의 대부분이 일상용기이지만 대부분이 수입품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육지부에 비해 매우 생활이 빈궁한 제주도 상황을 살펴볼 때 일상용기를 대를 이어 사용할 가능성 짙다. 따라서 분묘축조연대보다 부장유물의 제작 연대가 빠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유물의 연대만을 가지고 분묘축조연대를 확정하지 말고 공반유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분묘 자체의 변화상과 함께 문헌사료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시기별 분묘의 변천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유구의 형식과 부장유물 그리고 분묘의 축조시기에 대해 알아 봤다. 분묘연구에 있어 시기의 설정은 주로 부장유물에 의해 나뉘어지는데 고려시대 이후의 제주도 분묘 중 그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특히 묘역목관묘의 경우는 대부분 도굴되어 부장유물로만 그 시기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부장유물의 편년과 더불어 목관묘의 분류속성으로 설정한 묘역시설(호석)의 규모와 축조입지 변화상을 살펴본 결과 크게 2期の 시기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시기적으로는 15세기 초를 기준으로 I · II期로 나뉘며 시기분류의 기준유적으로는 화북동 분묘유적을 삼았다.

제1절 I 期(13세기 후 ~ 15세기 초)

1. 분묘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I A1식 유적 중 제주 성읍리분묘유적을 제외한 나머지 유적과 I A2식 유적 중 금성리유적을 제외한 유적이 I 期에 해당하며, I B식에서는 제주 관광미항부지내 유적(II구역 9호)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

먼저 I 期와 II 期로 나뉘는 묘역목관묘를 살펴보면 호석의 규모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I 期에 해당되는 묘역목관묘의 호석은 장축

<표 12> I A1·2식 호석 규모 및 장단축비 현황표

분기	유적명	유구번호	호석 규모			장단축비
			장축(cm)	단축(cm)	면적(m ²)	
Ⅰ 期	하원동분묘유적	1호	432	304	13.13	1:1.42
		2호	510	370	18.87	1:1.38
		3호	450	310	13.95	1:1.45
	제주 토평동분묘유적		468	327	15.30	1:1.43
	서귀포 상창리분묘유적		360	190	6.84	1:1.89
	화북동분묘유적	A	1호	420	335	14.07
2호			416	310	12.896	1:1.34
Ⅱ 期	제주 성읍리분묘유적	1호	270	160	4.32	1:1.68
		2호	212	108	2.29	1:1.96

360 ~ 510 cm내외, 단축 190 ~ 370cm 내외로 Ⅱ期の 제주 성읍리분묘유적의 묘역목판묘 호석(장축 212 ~ 270cm, 단축 108 ~ 160cm)에 비해 대형에 속한다¹²⁷⁾.

위 표를 통해 살펴보면 Ⅰ期에 속하는 분묘유적의 면적은 6.84㎡ ~ 18.87㎡로 평균 13.58㎡이다. 이를 통해 볼 때 Ⅰ期에 해당하는 분묘는 피장자의 신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규모를 정하여 분묘를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²⁸⁾. 이와 관련하여 고려-조선시대 분묘보수(墳墓步數)의 제한에 대한 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종 원년(976)년 2월 문무양반 묘지의 규모를 정하였는데 1품은 사방 90步 2품은 80步로 하되 무덤 높이는 각각 1丈6尺이며 3품은 70步에 높이가 1丈이요 4품은 60步 5품은 50步 6품 이하는 다 30步로 하되 무덤 높이는 각각 8尺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¹²⁹⁾.”

“예조에 명하여 각 품과 서인의 분묘에 대한 금하는 바 한계의 步數를 상정하였다. 1품의 묘지는 90보 평방에, 사면이 각각 45보이고, 2품은 80보 평방, 3품은 70보 평방, 4품은 60보 평방, 5품은 50보 평방, 6품은 40보 평방이며, 7품에서 9품까지는 30보 평방이고, 서인은 5보 평방인데, 이상의 보수는 모두 周尺을 사용한다. 四標 안에서 경작하고 나무하고 불을 놓는 것은 일절 모두 금지한다. 하였으니, 전조(前朝) 문왕(文王) 37년에 정한 제도를 쓴 것이다¹³⁰⁾.”

“禮曹에서 분묘의 보수(步數)를 올리었다. 상언은 이러하였다. 永樂 12년 3월에 本曹에서 受判하기를 ‘문무양반 조부모 분묘의 품(品)에 따른 보수와 서인 부모 분묘보수를 정하되, 주척을 써서 한계를 정한다.’하였습니다. 受敎하였으나, 宗室 묘지터의

127) 호석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중문동분묘와 금성리분묘는 제외하였다.

128) 이 중 서귀포 상창리분묘유적은 Ⅰ期에 해당하는 분묘치고는 면적이 협소하며 호석의 장단축비가 세장방형임을 알 수 있다. 규모와 장단축비로만 봤을 때는 Ⅱ期에 속할 수 있지만 발굴조사 당시 확인된 부장유물의 양이나 조합상(도기호+도기병+청동시/저+동곳+구슬+청동제품)으로 볼 때 14세기 중·후반대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귀포 상창리분묘유적은 Ⅰ期에 속하기는 하지만 타 묘역토광묘의 범주에서 벗어난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129)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

景宗元年2月 定文武兩班墓地 一品方九十步 二品八十步 墳高並一丈六尺 三品七十步高一丈 四品六十步 五品五十步 六品以下並三十步 高不過八尺.

130) 『太宗實錄』 卷7, 4年 3月 29日(庚午).

命禮曹 詳定各品及庶人墳墓 禁限步數 一品墓地方九十步 四面各四十五步 二品方八十步 三品方七十步 四品方六十步 五品方五十步 六品方四十步 七品至九品方三十步 庶人方五步 已上步數 並用周尺 標內田柴火焚 一皆禁止 用前朝文王三十七年定制也.

한계는 상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문무 양반 각 품의 墓地步數도 또한 심히 狹窄합니다. 빌건대, 이제부터 종실 1품의 墓地는 4면을 각각 1백 보씩으로, 2품은 90보씩으로, 3품은 80보씩으로, 4품은 70보씩으로 하고, 문무 양반의 묘지는 1품은 사면을 90보씩으로, 2품은 80보씩으로, 3품 이하는 또한 각각 정한 보수에다 한 배를 더하여 한계를 정하고, 아울러 人戶에서 1백 보안에는 안장하지 말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¹³¹⁾.”

신하들의 분묘보수를 제한하여 권세에 따른 거대한 규모의 무분별한 분묘조성을 금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일정 부분 제주도에도 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고려시대 제주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당시 고려조정은 모든 군현에 관리를 파견할 수 없기에 지방의 지배세력에게 자치권을 주고 대신 그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중앙관리를 파견하는 이른바 간접통치를 시행하였다¹³²⁾. 따라서 고려조정의 법령은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끼쳤겠지만 엄격한 법 적용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하원동분묘유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하원동분묘유적은 제주도 내 고려-조선시대 분묘 중 묘역시설의 요소(곡장+호석+참배단)이 가장 잘 남아 있는 분묘로서 곡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하원동분묘 묘역시설(곡장+참배단) 규모 현황표

유구번호	묘역시설규모(cm)		묘역시설면적
	장축	단축	
1호	2100	1500	315m ²
2호	2200	1400	319m ²
3호	1800	1300	234m ²

묘역시설의 면적을 살펴보면 230m² ~ 320m² 내외로 이러한 면적에 대

131) 『太宗實錄』卷35,18년5월(庚午).

禮曹上墳墓步數 上言 永樂十二年三月 本曹受判 文武兩班 祖父母墳墓 隨品步數 及庶人父母 墳墓步數 定用周尺定限 受教 然宗室墓地基限 不及詳定 且其文武兩班 各品墓地步數 亦甚狹窄 乞自今 宗室一品墓地 四面各一百步 二品九十步 三品八十步 四品七十步 文武兩班墓地 一品四面九十步 二品八十步 三品以下 亦各以前定步數 加一倍定限 竝於人戶 百步之內 毋得安葬 從之.

132) 이와 관련된 제도로는 제주도 성주·왕자층에 武散階의 수여와 함께 구당사를 파견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해 주영민은 피장자의 품계를 1품에서 2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영민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영민은 경종원년의 분묘 규모를 표로 나타내면서 피장자가 확실한 (피장자의 품계를 알 수 있는) 묘역시설 설치 분묘와 비교하여 당시 墳墓步數에 사용한 기준척을 周尺이라고 상정하였다. 그의 논문¹³³⁾에 실린 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경종 원년의 분묘 규모(주영민,2011,전계서,p107,표10 인용)

	1품	2품	3품	4품	5품	6품 이하
넓이	방 90보	방 80보	방 70보	방 60보	방 50보	방 30보
주척(m ²)	343.73	271.16	207.94	152.77	106.09	38.19
당대척(m ²)	714.49	564.54	439.74	317.55	220.52	79.39
높이	1장 6척	1장 6척	1장	8척	8척	8척
주척(m)	3.30	3.30	2.06	1.65	1.65	1.65
당대척(m)	4.75	4.75	2.97	2.38	2.38	2.38

※주척은 조선 초의 기준으로 20.6cm, 당대척은 29.7cm로 계산하였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표 15> 피장자가 확실한 묘역시설 설치 분묘 현황(주영민,2011,전계서,p105,표9 인용)

연 번	유적명	매장주 체부	묘역시설		높이 (m)	외형	관 품	성명/연대
			곡장	참배단				
1	가락 허시중공 분묘	석곽묘	256.0m ²	144m ² / 2단	0.67	방형	1품	허유전/ 1324
2	밀양 고법리 분묘	석실묘	107.0m ²	55.8m ² / 1단	4.20	방형	4품	박익/ 1420
3	파주 서곡리 분묘군 1호묘	석실묘	124.6m ²	112m ² / 3단	3.33	방형	2품	권준/ 1352

주영민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 당시 분묘축조에 사용한 기준척을 주척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품계에 맞게 분묘규모를 정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하원동분묘유적에 대입시켜보면 1·2호 분묘는 1품에 해당하고 3호묘는 2품에 해당하지만 이를 제주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고려 초기부터 중앙정부에서 탐라 성주·왕자층에게 수여하던 무산계를 그 근거로 들고 싶다. 무산계¹³⁴⁾란 문산계와 상대되는

133) 朱榮民,2011,『高麗 地方 墳墓 研究』,慶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34) 진영일,2008,전계서,p205.

『高麗史』卷77,百官志2,武散階條.

成宗十四年 定武散階 凡二十有九 從一品曰驃騎大將軍 正二品曰輔國大將軍 從二品曰鎮國大將軍 正三品曰冠軍大將軍 從三品曰雲麾大將軍 正四品上曰中武將軍 下曰將武將軍 從四品上曰宣威將軍 下曰明威將軍 正五品上曰定遠將軍 下曰寧遠將軍 從五品上曰遊騎將軍 下曰遊擊將軍 正六

위계제도로 그 受職 대상은 향리와 탐라의 왕족, 여진의 추장, 노령의 병사, 공장(工匠), 그리고 악인(樂人)이었다. 진영일은 고려가 탐라 성주층에게 무산계를 수여하는 것은 그들을 고려의 지배질서 속에 편입하여 회유·통제하려는 고도의 외교 정책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당시 탐라 성주·왕자들이 무산계를 수여받은 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성주·왕자의 무산계 수직자(진영일,2008,전게서,p206 표 인용)

왕 연-월	무산계	품계(등급)	수령자 작위	수직자
현종15-7,1024	雲麾大將軍	從3品(5)	耽羅尊長	周物
			子	高沒
문종7-2,1053	中虎(武)將軍	正4品上(6)	耽羅國王子	殊雲那
문종17-3,1063	明威將軍	從4品下(9)	耽羅國新星主	豆良
선종9-2,1092	定遠將軍	正5品上(10)	耽羅星主	懿仁
현종20-6,1029	遊擊將軍	從5品下(12)	耽羅世子	孤烏弩
문종22-3,1068			耽羅星主	加也仍
선종3-2,1086			毛羅	加於乃
숙종6-10,1101			毛羅新星主	具代
문종3-11,1049	珍威校尉	從6品上(16)	毛羅	夫乙仍
의종7-11,1153	仁勇副尉	正9品下(27)	耽羅縣徒上	中連珍直
문종7-2,1053	陪戎校尉	從9品下(28)	耽羅國王子 殊雲那 子	古物
선종7-1,1097	陪戎副尉	從9品下(29)	星主 母弟	高福
숙종6-10,1101				

이를 살펴보면 고려 현종 15년(1024)에 종3품에 해당하는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직을 수여한 이후 갈수록 품계가 낮아져 의종 7년(1153)년 정9품하에 해당하는 인용부위(仁勇副尉)를 끝으로 무산계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진영일은 의종 16년(1162)에 제주도에耽羅令 최척경이 부임한 이후로 어느 정도 중앙정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지배세력인 성주·왕자층을 회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유야 어쨌든 당시 성주·왕자층 중에 1·2품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 법령에 정한 분묘의 규모를 제주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하원동분묘의 피장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1·2품에 해당할 만큼의 권력을 누리던 당시 제주의 최고지배계급자의

品曰耀武校尉 下曰耀武副尉 從六品上曰振威校尉 下曰振威副尉 正七品上曰致果校尉 下曰致果副尉 從七品上曰翊威校尉 下曰翊威副尉 正八品上曰宣折校尉 下曰宣折副尉 從八品上曰禦侮校尉 下曰禦侮副尉 正九品上曰仁勇校尉 下曰仁勇副尉 從九品上曰陪戎校尉 下曰陪戎副尉.

묘임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I 期에 해당하는 분묘의 규모를 봤을 때 특히, 화북동분묘유적과 그 이후(II 期)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제주 성읍리분묘유적을 비교해 볼 때 호석의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분묘변화의 동인(動因)으로는 성주제 폐지를 들 수 있다. 즉 조선 태종 4년(1404)에 당시 제주의 성주인 고봉례(高鳳禮)와 왕자 문충세(文忠世)가 감히 성주·왕자를 칭하는 것이 외람되다는 이유를 들어 성주·왕자직을 중앙정부에 반환하길 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선 조정에서는 반대급부로 이들에게 좌도지관(左都知管, 성주), 우도지관(右都知管, 왕자)직을 수여¹³⁵⁾함에 따라 사실상 성주·왕자직이 종말을 고하게 된다.

따라서 화북동분묘유적¹³⁶⁾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체적 지방지배세력이 조선왕조 창건이후 중앙집권화가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지방사족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화북동분묘 축조 이전과 이후의 분묘 형태와 규모에서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당시 조선 초기 조정에서 사치스러운 분묘의 조성을 금지하는 법령¹³⁷⁾이 내려져 분묘의 변화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 분묘는 대형에서 소형(특히 호석의 규모)으로, 묘역목관묘에서 순수목관묘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135) 『世宗實錄』, 地理志, 全羅道, 濟州牧.

太宗 2年 壬午 星主高鳳禮王子文忠世等以星主王子之號 似陟僭擬 請改之 以星主爲左都之管 王子爲右都之管.

太宗 4年 夏4月 辛卯 改濟州土官號 以東道千戶爲東道靜海鎮 西道千戶爲西道靜海鎮 都千戶爲都司守 上千戶爲上司守 副千戶爲副司守 道之官爲道州官 以星主爲道州官左都知管 王子爲道州管右都知管.

136) 제주의 마지막 성주인 고봉례묘로 추정된다.

137) 『太宗實錄』 卷12, 6年 閏7月 28日(乙酉).

命大臣禮葬, 禁用石室. 政府啓 前朝之法, 大臣禮葬, 許用石室. 謹按石室之制, 禮典所無, 只勞生人, 無益死者. 乞依文公家禮, 只用灰隔, 勿用石室. 從之.

『太宗實錄』 卷35, 18年 春正月 11日(壬戌).

命自今宗親以下禮葬, 除石室用灰隔.

『世宗實錄』 卷105, 26年 秋7月 12日(己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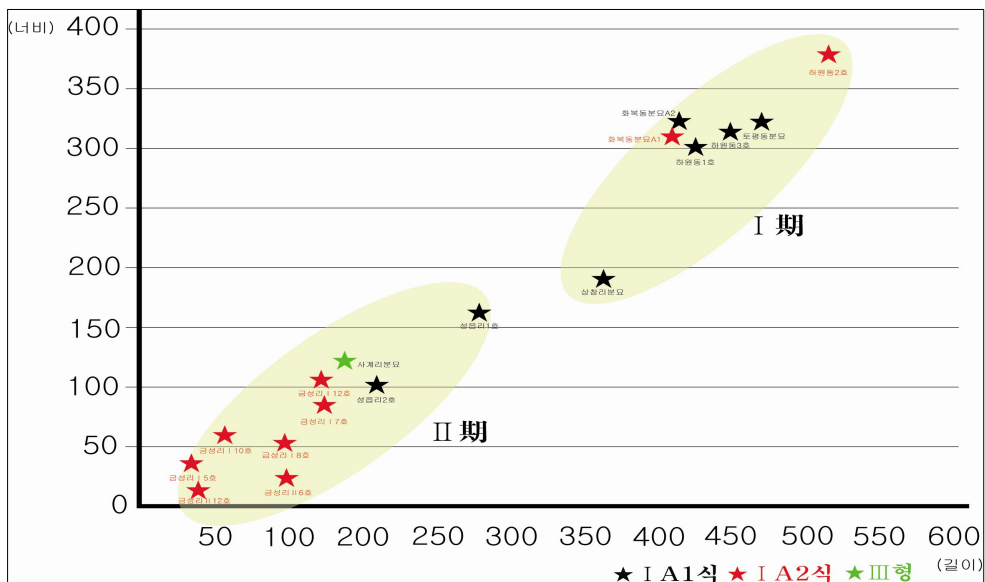
傳旨戶曹 自今大臣之卒, 葬用石灰, 除禮葬外, 一品六十石, 正二品五十石, 從二品四十石, 毋得啓聞, 依式題給.

『世宗實錄』 卷108, 27年 5月 16日(己丑).

傳旨戶曹 宗親不在禮葬之限者, 正從三品, 給石灰四十石. 四品以下, 三十石.

순수목관묘(ⅠB식) 중에서는 제주관광미항부지내 유적의 Ⅱ구역 9호묘가 이에 해당된다. 분묘 내 부장유물로는 청자접시+청동숟가락이 공반출토되어 부장유물 조합상 13세기 후반 ~ 14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분묘의 규모는 장축 270cm, 단축 145cm로 같은 ⅠB식에서도 대형에 속한다. 순수목관묘 중 출토유물조합상 15세기 중반 이후에 축조되는 분묘의 규모를 살펴볼 때 분묘의 장축이 200cm 이하로 줄어들고 있어 순수목관묘에서도 분묘가 대형화에서 소형화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1> 시기별 ⅠA식·Ⅲ형 분묘규모 현황표



2. 입지

분묘축조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입지선정이다. 특히 고려시대의 분묘는 통일신라 말 중국으로부터 풍수지리사상이 들어와 도선국사에 의해 체계화 되어 고려창건에 많은 영향을 끼친 후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된다¹³⁸⁾. 이러한 풍수지리사상은 제주도 상례문화에

138)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고려의 무덤위치는 대체로 공통하다. 즉 남향한 산기슭 또는 산중턱에 왼쪽으로는 시냇물이 흘러 내리고 바른쪽(서쪽)으로는 산릉선이 뻗어서 서남쪽으로 구부러지듯이 보이는 아늑한 산기슭에 자리잡았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곳은 인공적으로 돌담 같은 것을 쌓아서라도

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I 期에 해당하는 분묘유적을 살펴보면 크게 구분되는 것이 해발고도이다. 제주도의 산지는 해발고도와 경사도에 따라 크게 해안저지대, 중산산지대, 산악지대, 고산지대로 나뉜다. 해안저지대는 해발 200m 이하로 경사도가 4°이하이며, 매우 완만한 경사의 평지를 이루고 있다. 중산간지대는 해발 200 ~ 600m 사이이며, 산악지대는 해발 600 ~ 1200m 사이로 경사도는 10°~20°로 급한 사면을 형성한다. 또 고산지대는 해발 1200m 이상으로 경사도가 20°이상의 급사면을 이루는 지대로 구분하고 있다¹³⁹⁾.

I 期에 해당하는 분묘 유적을 살펴보면 축조시기가 상대적으로 이른 분묘들은 해발 200m 이상의 중산간지대에 분묘를 축조한데 반해 후기로 갈수록 200m 이하의 해안저지대로 입지가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서는 피장자의 계급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I 期에 해당하는 분묘는 금성리분묘유적을 제외하고는 사회적으로 상위계층이 점유하던 분묘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피장자집단은 분묘를 축조 하기 전 묘지선정에서 풍수지리적 절차를 거쳤을 것이며 이러한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명당을 찾아 중산간지대를 선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발고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분묘의 입지는 능선에 주로 축조되어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묘의 장축방향, 즉 두향(頭向)은 방위에 관계없이 경사면의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제주도 고려-조선시대 분묘의 장축방향에서도 확인되는데 방향에 상관없이 입지지형의 능선정상부를 향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려 하였다.

이는 통일신라로부터 시작되어 고려에 이르러 자리를 잡아가는 풍수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위의 내용은 왕릉급의 무덤에 대한 조사내용이나 귀족층과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도 왕릉처럼 까다롭지는 않았어도 기본적인 내용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황정욱,2002, 『고려시대 석곽묘 연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p6.)

139) 제주도,2006, 「지리」, 『濟州道誌』 第1卷,p50.

<표 17> I 期 유적 입지분석현황표

유형		유적		해발 고도(m)	해안과의 거리(km)	입지	두향	장축 방향	하천간 거리(m)
I A	1	제주 하원동 분묘군유적	1호	224.3	4.2	능선	북	N26°E	서-450(도순천)
			3호	234.5			북	N29°E	동-650(고지천)
		서귀포시 상창리분묘유적		118	2.8	구릉성 평지	북	남-북	동-2,000 남동-500(창고천)
		제주 토평동 분묘유적		225	6	완경사면	정북	N10°E	서-2,750(동홍천) 동-1,800(영천)
		화북동분묘유적	A2	80 ~ 85	1.8	능선	북	N20°W	남-60(화북천)
	2	제주 하원동 분묘군유적	2호	228.2	4.2	능선	북	N18°E	서-450(도순천) 동-650(고지천)
		화북동분묘유적	A1	80 ~ 85	1.8	능선	북	N5°W	남-60(화북천)
I B	제주 관광미항 부지내 유적	Ⅱ구 역 9호	8 ~ 23	0.5	완경사면	서	N87°W	북동-300(강정천)	

3. 부장품

고려-조선시대 분묘들은 후대의 도굴 등의 이유로 부장유물들은 대부분 유실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제주도내 분묘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이유로 분묘의 편년뿐만 아니라 부장유물의 조합상을 밝히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I 期에 해당하는 분묘 중 가장 많은 부장유물이 출토된 분묘는 서귀포 상창리분묘와 토평동분묘유적이다. 따라서 이 두 분묘를 중심으로 부장품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자기류를 살펴보면 일부 파편을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도굴로 인한 부장유물의 유실이라는 이유가 클 것으로 보인다. 도기류는 서귀포 상창리분묘유적에서 2점, 귀덕리 분묘유적에서 1점이 확인되었으며 Ⅱ期에서는 파편 1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어 I 期에 해당되는 대표유물로 판단된다. I 期에서는 청동기류의 부장양상이 다양하여 Ⅱ期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 종류로는 청동순가락, 청동젓가락, 청동발/합, 동곳, 비녀, 도자 등이 출토되어 Ⅱ期에서는 주로 청동순가락만 부장되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I 期の 부장양상은 Ⅱ期에 비해 청동기류가 많이 부장되고 있으며 도기류는 I 期에 주로 부장되는 대표적인 부장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II期(15세기 초 ~ 16세기 이후)

1. 분묘

II期에 해당되는 유적으로는 III형에 해당하는 제주 사계리 유적이 있으며 I A식에서는 제주 성읍리분묘유적과 제주 금성리분묘유적이 이에 해당한다. I B식에서는 제주 관광미항부지내 유적 중 II구역 9호를 제외한 모든 유적과 II형인 제주 금성리분묘유적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III형의 제주 사계리유적과 I A1식 중 제주 성읍리분묘유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두 유적의 분묘의 규모는 제주 성읍리분묘(2.29 ~ 4.32m²), 제주 사계리분묘(토광 기준 3.47m²)으로 I期 묘역목관묘에 비해 소형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유적의 토광 내부에서 확인되는 유물을 살펴보면 먼저 제주 성읍리분묘유적에서는 A1호묘와 B분묘에서 청동순가락이 확인되었다. 형태적으로 볼때 시부는 유엽형에 가깝고 병부는 훼손되어 정확한 기형을 알 수 없으나 ‘-’자형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나라에 각종 물자가 부족하여 종묘제례에도 각종 제기·의물을 사기로 대체할 것을 운허한다는 기사¹⁴⁰⁾를 통해 볼 때 청동순가락도 이러한 영향으로 임란이후에는 부장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축조 시기는 늦어도 16세기 말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제주 사계리 유적에서는 백자 파편 1점을 제외하고는 부장품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도굴에 의해 부장품이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조선시대 이후 부장품의 간소화로 인한 박장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들 분묘유적은 조선 초기 이후에 조성된 분묘로 앞선 시기의 같은 유형의 분묘과 비교할 때 분묘 규모의 소형화가 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140) 『宣祖實錄』卷134,34年(1601) 2月 2日(辛未).

禮曹啓曰: 還都之後, 庶事草創, 廟社儀物, 不成體貌, 已曾粗備之物, 亦皆破汚. 不得已庫間修理, 典祀廳移設, 墻垣修築等事, 及祭器儀物各項器具, 或苟充代用, 或全未備數, 事多欠闕, 不可不漸次復舊. 令本曹及戶曹、工曹堂上、郎廳, 設爲一局, 凡儀物, 議大臣損益勘定措備之意, 啓達允下, 而今議于大臣, 則領中樞府事崔興源、海原府院君尹斗壽、左議政李憲國、右議政金命元以爲: 今者財力蕩竭, 一物一事, 難以措辦. 然祭享器皿, 不可不漸次措備. 依魂殿祭用器皿例, 不得已以鍮器爲之者外, 其餘, 則姑以沙器燔造用之似當. 但該司趁不舉行, 若無句管之處, 則終年不成. 以禮曹、工曹堂上及郎廳各一員, 別設一局於禮曹, 檢督施行, 庶無遲滯之弊. 伏惟上裁. 領議政李恒福, 病不收議. 傳曰: 允.

이러한 원인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지배세력이 조선의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지방의 사족층으로 편입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묘의 소형화, 간소화 경향은 축조시기가 같거나 혹은 이후 시기로 보이는 금성리분묘유적으로 이어지며 점차 묘역목관묘는 감소되어 16세기 이후에는 소멸되어감을 알 수 있다.

금성리분묘유적에서 확인되는 묘역목관묘¹⁴¹⁾는 묘역시설의 퇴화형으로 판단되며 금성리분묘유적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이들 분묘는 모래층에 토광을 파서 피장자를 안치한 후 주변으로 자연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묘역의 범위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일정한 축조방법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조잡한 축조방식을 보이고 있다. 금성리분묘 토광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주로 분청사기, 백자대접, 청동손가락이 있는데 이러한 유물 조합상을 통해 볼 때 15세기 중·후반에서 16세기 중반으로 그 축조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분묘내에서도 호석의 축조와 내부 부장유물에 따라 경제적·신분적 차이를 알 수 있다. 금성리분묘유적 I에서 조사된 8호 묘인 경우 여타 분묘가 자연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호석의 형태를 띠었다면 8호묘는 50cm내외의 판석으로 호석을 마감하였으며 내부에서도 동일 분묘유적 내에서도 가장 많은 부장품(분청사기+백자+청동손가락+구슬)을 보이고 있어 신분적 혹은 경제적으로 다른 분묘의 피장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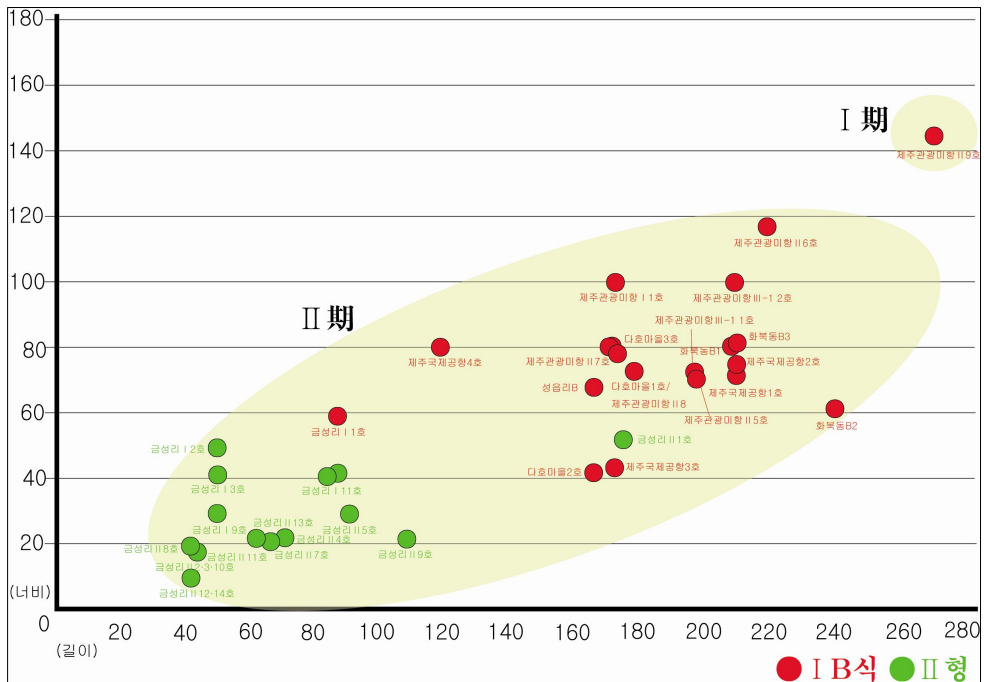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IB식에 해당하는 유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IB식에서는 제주 관광미항부지내 유적 중 II구역 9호를 제외한 모든 분묘 유적이 II기에 해당된다. 이들 분묘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분묘형태임을 알 수 있다. 분묘의 규모는 장축인 경우 167cm ~ 220cm 내외(평균 188cm)이며 단축은 68cm ~ 98cm내외(평균 82cm)로¹⁴²⁾ 일정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I기에 속하는 분묘들보다 소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분묘유적으로는 제주 관광미항부지내 유적(II구역 3 ~ 8호)에서 확인되는 분묘들이다. 이들은 기존 분묘들이 1기에서 2기씩 단독형으로 축조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횡열(橫列)로 6기가 나란히 매장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족분(族墳)의 형태에서 쉽게 보이는 양상이다. 따라

141) 註)85.

142) 교란되어 장·단축길이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였다. 또한 금성리분묘유적 I의 1호묘인 경우에는 잔존 장축 89cm, 단축 59cm로 유아묘로 IB식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된다.

서 Ⅱ期에 들어 제주도에도 족분(族墳)의 형태가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2> 시기별 IB식·Ⅱ형 분묘규모 현황표



2. 입지

Ⅱ期에 해당하는 분묘 유적 중 1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발 50m이 내의 해안 저지대로 분묘 축조위치를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I 期에 속하는 분묘들이 중산간지대에 분묘를 축조하였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입지 또한 I 期에는 능선, 구릉 사면에 주로 축조한데 반해 Ⅱ期에는 평탄대지와 완경사면, 급경사면, 해안사구에 분묘를 조성하고 있어 일정한 형식에서 벗어나 입지의 다변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 들어서 양민들의 지위가 상승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 성리학사상을 강하게 주입시킨 결과로 생각된다. 즉 성리학적 지배질서의 확립을 인한 상례문화가 보급 되었으며 각 행정 구역(1목2현)에 향교를 설치(제주향교(1392), 대정향교(1416), 정의향교

(1423))하여 양민들에게 유교적 신분질서를 보급한 효과를 통해 충효사상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널리 퍼져 분묘축조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I 期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계층에서 분묘조성의 상례문화를 점유하면서 입지 선정시 풍수지리사상에 따라 명당을 찾아 매장지를 선택하였다면 II 期에 들어서는 충효사상의 보급 등으로 일반 백성들도 상례문화가 일반화 되었고 매장지 선택도 엄격한 풍수지리적인 요소를 따지기 보다는 자신들의 생활공간과 멀지 않은 위치를 택하였으며 이러한 매장지 선택경향이 앞서 제주도 관련 사료에서 살펴본 ‘田頭起墳’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표 18> II 期 유적 입지분석현황표

유형			유적		해발 고도(m)	해안과의 거리(km)	입지	두형	장축 방향	하천간 거리(m)
I	A	1	제주 성읍리 분묘유적	1호	194	11.3	환경 사면	북	N18°W	동-750(천미천)
				2호						
		2	금성리분묘유적Ⅰ	5호	11~13	0.2	해안 사구	동	N79°E	서-290(금성천)
				7호				북동	N68°E	
				8호				동	N77°E	
				10호				·	N85°E	
				12호				동	N101°E	
				12호				동	N122°E	
	금성리분묘유적Ⅱ	6호	동	N122°E						
		12호	북동	N40°E						
	B	제주국제공항 부지내 유적	Ⅴ	1	20~25	0.65	평탄 대지	남	N11°E	동-650(아랫내)
				2				?	N7°E	서-1,450(이호천)
		제주 용담동 다호마을Ⅰ 유적	1호	30	1.3	평탄 대지	?	N80°E	동-1,500(한천)	
							2호	?	N70°E	서-1,000(아랫내)
		제주 관광미항 부지내 유적	Ⅱ 구역	3	8~23	0.5	급경 사면	서	N82°W	북동-300(강정천)
				4					N79°W	
				5					N77°W	
				6					N88°W	
7	N82°W									
8	N77°W									
Ⅲ -1	1	17~18	0.4	환경 사면	북	N-S	동-100(강정천)			
	2									
금성리 분묘유적Ⅰ	1호	13	0.2	해안 사구	북동	N56°E	서-290(금성천)			
	제주성읍리 분묘유적	B	194	11.3	환경 사면	북	N18°W	동-750(천미천)		
Ⅱ형	금성리 분묘유적Ⅰ	2호	11~13	0.2	해안 사구	동	N82°E	서-290(금성천)		
		3호				동	N73°E			
		6호				북동	N44°E			
		9호				남	남-북			
		11호				북서	N51°W			
		1호				북동	N50°E			
	금성리 분묘유적Ⅱ	2호	동	N95°E						

		3호				동	N87°E	
		4호				동	N82°E	
		5호				동	N93°E	
		7호				남동	N87°E	
		8호				북동	N71°E	
		9호				북동	N113°E	
		10호				동	N101°E	
		11호				남동	N130°E	
		13호				동	N110°E	
		14호				북	N10°E	
Ⅲ형	제주 사계리 유적	20	1.6	평탄 대지	북	N24°E	.	

3. 부장품

Ⅱ期の 부장양상을 살펴보면 청자는 사라지고 분청사기와 백자가 주 부장유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부장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Ⅱ期에서도 후반으로 갈수록 토광내부에서 부장유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동기류로는 Ⅰ期에 비해 부장품의 종류가 간략화되어 청동순가락을 제외하고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전국적인 것으로 16세기 말 임란 발발이후 전국에 걸쳐 청동을 비롯한 모든 물품이 부족하게 되어 부장할 수 없게 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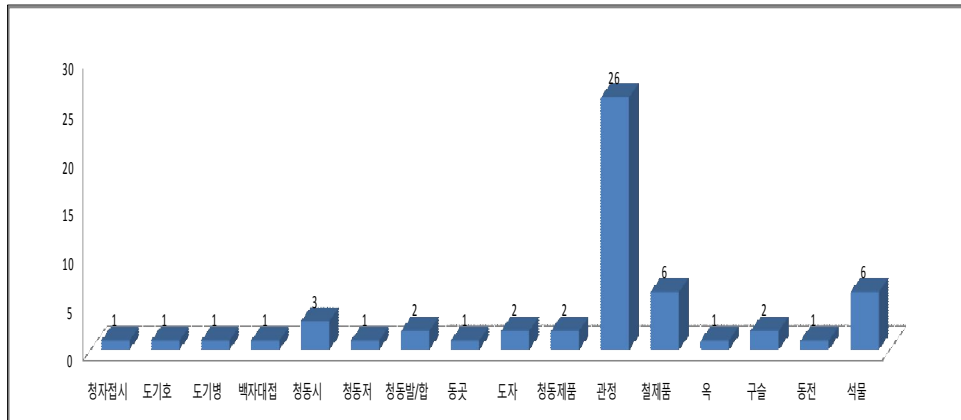
도자기류로는 분청사기와 백자가 있다. 부장유물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인된 금성리분묘유적 I 과 제주국제공항부지내 유적 중 2호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금성리분묘유적에서는 분청사기 8점, 백자 4점(공사시 수습 유물 포함)이 확인되었는데 주 기형으로는 대접과 접시가 확인된다. 유물조합상으로는 분청사기+분청사기+청동순가락(12호), 분청사기+백자+청동순가락(8호)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유물조합상은 전국적인 것으로 제주도 역시 육지부와 동일한 상례문화를 갖고 부장을 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국제공항부지내 유적(V구역 2호)에서는 요갱 내부에서 백자대접이 확인되었으며 토광 남장벽의 중앙 충진토에서 백자대접과 청동순가락이 출토되었다. 여기서도 백자+청동순가락의 조합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일한 부장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의 분묘에서는 부장유물의 발견예가 적어지는데 이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분묘 부장양상이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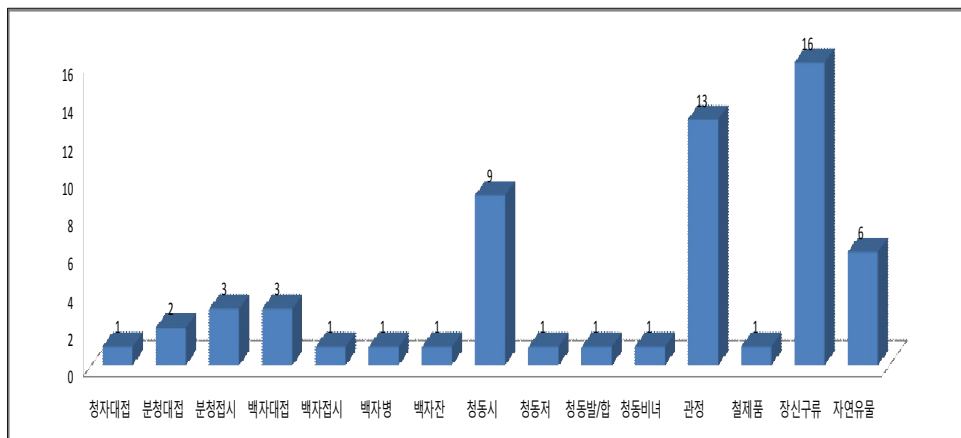
143) 註)142.

장(薄葬)화가 되어 가는데 제주도 내 분묘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⁴⁴⁾.

<도표 3> I 期 분묘유적 출토유물 현황표



<도표 4> II 期 분묘유적 출토유물 현황표



144) 조선시대의 분묘 중 토광 내에 부장품을 부장하지 않는 것은 후기로 갈수록 나타나는 경향이
며 이러한 예는 제주도 분묘 중 분묘 축조연대(피장자의 생몰연대 康熙24年(1685)~乾隆35年
(1770)가 확실한 조천우희도로 구간 내 분묘유적(折衝將軍周公之墓)에서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
다.

제5장 제주도 분묘의 특징과 성격

제1절 유형별 분묘의 특징

지금까지 제주도 러말선초 분묘의 형태와 부장유물, 시기별 변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제주도 러말선초 분묘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주도 러말선초 분묘는 목관묘(I형), 직장묘(II형), 석곽묘(III형)으로 구분되며 목관묘는 묘역목관묘(IA식)과 순수목관묘(IB식)으로 세분된다. 이 중 목관묘는 전체 분묘 53기 중 32기가 확인되어 약 6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목관묘 중 묘역목관묘(IA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굴조사된 묘역시설이 설치된 분묘는 40기에 불과하여 소수의 계층만이 사용한 분묘로 상위계층에서 점유하던 분묘 형태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¹⁴⁵⁾. 제주도 러말선초분묘를 살펴보면 묘역시설이 설치된 분묘는 19기로 이 중 금성리분묘유적의 9기를 제외하면 10기가 확인되어 전국적인 분포수에 비해 상당히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묘역목관묘의 대표유적으로는 하원동분묘유적을 들 수 있다. 하원동분묘는 묘역시설(곡장+호석+참배단(2단)+목관묘)의 형식을 다 갖춘 분묘로 묘역시설(곡장+참배단)을 포함한 전체 면적은 234m² ~ 319m²로 제주도 내 분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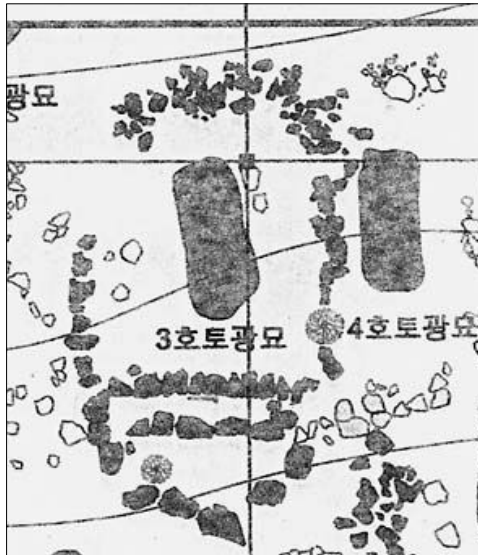
육지에서 확인되고 있는 고려 - 조선시대 분묘 중 하원동분묘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분묘는 안산 대부도 육곡 고려고분군 3호 토광묘(곡장+참배단(2단)+목관묘)를 들 수 있다. 안산 대부도육곡 고려고분군 유적은 다양한 형태의 고려시대 분묘가 확인되었는데 다수의 묘역시설이 설치된 분묘가 확인되었다.

내부 부장유물의 조합상을 통해 볼 때 분묘의 축조시기는 11세기 후기에서 12세기 전기와 14세기 후기의 것으로 구분되는데 안산 대부도 육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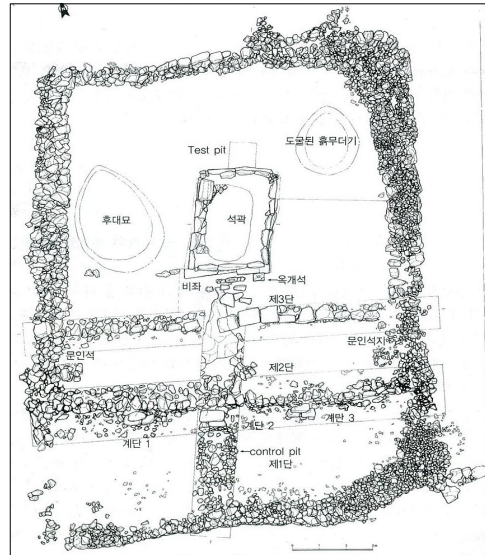
145) 주영민, 2011, 전계서, p104~105.

고령고분군 3호 토광묘는 곡장+2단의 참배단이 축조된 묘역시설 분묘로 14세기 경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하원동분묘 판석조 호석의 형태는 상산김씨김후의 묘나 진주평거동고려분묘의 것과 유사하다. 진주평거동고려분묘는 11세기 후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약 150년간 가족집단묘로 조성된 분묘이다. 상산김씨김후의 묘는 김후(1365 ~ 1397)의 생몰연대로 볼 때 14세기 말에 축조된 분묘로 알려져 있다.



<그림 15> 육곡 고려고분군 3호 묘



<그림 16> 하원동분묘 1호 묘



<그림 17> 상산김씨 김후의 묘



<그림 18> 하원동분묘 1호 묘

지금까지 알려진 제주도내 고려-조선 시대 분묘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분묘는 문경공고조기묘이다. 문경공고조기묘를 살펴보면 봉분의 네 귀퉁이에 봉토 유실을 막기 위해 할석으로 두 단을 쌓아 올렸으며 전면에는 반원형의 판석을 둔 형태로 현재 발굴조사된 묘역목관묘의 특징인 매장주체부 외부에 판석이나 할석을 이용하여 4면에 호석을 돌린 형태와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려말선초의 묘역목관묘의 형태는 문경공고조기의 묘보다는 육지부의 분묘 형태와 유사성이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토광 내부 부장유물의 현황은 도굴 정도가 심해 부장유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묘역목판묘 중 부장유물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상창리분묘유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상창리분묘에서 확인되는 부장유물은 토광바닥에서 유사 요갱에서 도기호가 확인된 것을 비롯하여 도기병+청동순가락+청동젓가락+동곳+청동제품+관정+구슬 등이 확인되어 Ⅱ期の 부장양상에 비해 다양한 유물이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수목관묘는 15세기 중·후반 이후 제주도내 주요 분묘형태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토광은 대부분 일단 토광이며 대부분 목관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에서 별도시설(요갱, 감실)이 확인되고 있는 분묘는 3기가 확인되는데 요갱 내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유물은 백자대접과 백자 잔으로 분묘의 축조시기를 16세기 대로 추정한다¹⁴⁶⁾. 부장유물로는

분청사기와 백자가 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동기류로는 청동순가락이 주로 확인되고 있어 I 期에 비해 청동기류의 부장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려말선초대 직장묘는 금성리분묘유적에서만 확인되고 있어¹⁴⁷⁾ 이를 제주도 전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금성리분묘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인골의 두향(頭向)이 해안선과 직교되게 놓여져 있다는 점과 둘째, 영유아 인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해안사구층에 조성된 집단묘라는 점이다.

첫 번째 두향의 경우 고려-조선시대 분묘는 산 정상을 향해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금성리분묘유적¹⁴⁸⁾은 해안선과 직교되게 매장되었으며 대부분이 동향을 하고 있다. 고려-조선시대분묘를 살펴보면 방위에 상관없이 산 정상을 향하여 머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지역적 특색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장자의 두향이 동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분묘유적의 동쪽으로 약 1km 이격되어 광지악(155m)이라는 오름이 있음을 볼 때 특수 목적을 갖고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금성리분묘의 경우 광지악을 매장지로 선택하지 못하고 해안사구층에 조성되었지만 피장자의 머리 방향은 광지악을 향하게 안치하여 산 정상을 향해 두향을 두는 일반적인 상례절차를 따랐던 것은 아닌가 추측해본다.

두 번째 해안사구층에 조성된 집단묘이다. 집단묘를 조성하는데는 크게 가족공동묘이거나 전쟁이나 전염병 창궐, 기근 등의 이유로 순식간에 사망자가 생길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가족공동묘인 경우 이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 피장자 간에 모계 친연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¹⁴⁹⁾. 따라서 유존상태가 양호한 일부 인골에 대해서

146) 이성배, 2012, 전계서, p28.

“14세기 말에서 16세기경까지 분청사기 부장이 이루어지다가 16세기경부터 백자의 부장이 급증하며, 이후 요갱에 백자의 부장이 일반화된다.”

147) 註) 94.

148) 금성리분묘유적 I 에서는 9호(남향), 11호(북서향)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향을 하고 있으며 금성리분묘유적 II 에서는 14호(북향)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향에 가깝게(일부 북동향, 남동향을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동향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두향을 하고 있다.

149) 강소영 외, 2012,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출토 인골의 자연과학적 연구 -인골의 보존 상태 및 고DNA 분석을 중심으로-」,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의 발굴과 보존을

만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일단 가족공동묘일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전쟁에 대해 살펴보자. 전쟁은 주로 왜구의 침입과 관련이 있다. 왜구의 침입은 고려말 조선초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고려의 경우 개경의 치안이 위태로울 지경이었다. 제주도는 왜구가 남해안 및 내륙을 습격할 때 물과 식량을 보급하거나 자연재해로부터 피난을 할 수 있는 피난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더욱 빈번하게 침략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금성리분묘유적인 경우 대부분이 영유아인골로 성인은 5기 정도이며 이마저도 성별이 여자인 경우가 많다. 성인 남성인 경우(금성리분묘유적 I 6호묘)에도 두개골에서 골막염의 흔적이 확인되어 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¹⁵⁰⁾. 이를 고려할 때 전쟁 혹은 왜구의 침입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묘일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전염병 창궐 혹은 기근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도 내 매장풍습과 관련될 수 있다. 제주도의 매장풍습 중 어린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의 시신을 대로 엮어 만든 아기 재우는 ‘아기구덕’에 넣고 양지바른 야산의 매장지까지 가서 시신만 따로 묻고 아기구덕은 그 자리에서 소각한다. -中略- 아이의 봉분은 잘 만들지 않지만 간혹 자그마하게 만들어 두기도 한다. 이런 봉분은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평지처럼 돼버려 무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된다¹⁵¹⁾.”

금성리분묘유적은 해안에서 약 200m 안으로 들어온 해안사구층에 위치하고 있다. 즉 모래 혹은 모래 밑 층에다 분묘를 썼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봉분은 흙을 쌓아 올려 매장주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분묘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금성리분묘유적인 경우 모래에다 묘를 조성하였는데 이런 경우 바람에 의해 봉분의 형태가 시시각각 변하며 때에 따라서는 봉분이 사라지기도 해 분묘의 위치를 찾을 수 없기도 한다. 따라서 영유아가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으

위한 ‘옛 탐라인의 실체 규명’학술 심포지엄 자료집.p47

150) 김재현,2012,전계서,p33.

151) 김유정,손명철,2007,『제주의 무덤』,제주의 민속문화 2,국립민속박물관.p148 인용.

며 봉분을 쓰기 어려운 해안사구층이라는 지형적 특징을 통해 볼 때 돌림병이나 기근 등으로 많은 영유아가 사망하자 인위적으로 사구층을 매장지로 택해 평장을 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¹⁵²⁾. 따라서 금성리분묘유적은 전염병 혹은 기근에 의해 사망한 피장자(특히 영유아)를 안치하기 위해 조성된 집단묘로 생각된다.

제2절 제주도 러말선초 분묘의 성격

이번 장에서는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 러말선초 분묘의 성격과 피장자의 계급에 대해서 추론해보고자 한다. 고려시대 이후 제주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계급은 星主·王子층으로 고려 숙종(肅宗) 10년(1105) 耽羅郡을 설치한 이후에도 모든 군현에 관리를 파견하기 어려웠던 고려조정의 상황과 맞물려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먼저 성주·왕자의 유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가 한창 강성하던 시기 高厚·高淸 등의 삼형제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신라에 조공할 때 客星이 남쪽에 나타났었다. 이를 보고 太史가 아뢰기를 다른 나라 사람이 來朝할 징조라고 하였다. 과연 탐라국왕의 삼형제가 來朝해 왔다. 이에 신라 임금인 이를 가상히 여겨 만이인 高厚에게 星主의 칭호를 내려주었다 한다. (客星이 미리 나타나 客星의 象이 동하였기 때문에 성주라 함.) 둘째 高淸에게 왕의 두 다리 사이를 기어 나가게 하여 자기 아들과 같다 하여 王子란 칭호를, 막내에게는 都內란 칭호의 관작을 주었다. 그리고 마을 이름을 耽羅라 한 것은 탐라국 사신들이 신라에 처음 來朝할 때 신라 영토인 耽津에 배를 대었다 하여 붙인 이름이라 한다¹⁵³⁾.”

위 사료는 고려사에 실린 사료로 신라시대에 탐라인 3인이 바다를 건

152) 하지만 여기서도 의문점은 남아 있다. 출토유물로 봤을 경우 고려 중기부터 조선 초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묘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사구층에 묘를 썼을 경우 기존 묘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여 후대에 묘를 조성하였는가이다. 유적을 살펴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분묘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사예가 미흡하여 유적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여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3) 『高麗史』第57卷, 志 第11, 地理2, 羅州牧 耽羅縣.

“高厚高淸昆等三人 造船渡海 至于耽津 盖新羅盛時也 于時客星 見于南方 太史秦曰 異國人來朝之象也 遂朝新羅 王嘉之 稱長子曰星主[以其動星象也] 二子曰王子[王令淸出袴下愛如己子故名之] 季子曰都內 邑號曰耽羅 盖以來時 初泊耽津故也.”

너 신라 왕을 알현하여 왕으로부터 작위를 수여받았음을 보여주는 기사다. 하지만 정확한 연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신라의 성시(盛時)였다고만 밝히고 있어 성주·왕자층의 시작연대로만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본격적인 성주·왕자층에 대한 사료로는 『高麗史』 태조 21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겨울 12월에 탐라국 태자 말로(末老)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그에게 성주(星主), 왕자의 작위를 주었다¹⁵⁴⁾.

따라서 제주도 내 토착 지배세력인 성주·왕자층은 고려 태조 21년(93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조선왕조 태종 4년(1404년)에 당시 제주의 성주 고봉례와 왕자 문충세가 성주·왕자직을 반납하고 좌도지관(左都知管 :성주), 우도지관(右都知管 : 왕자)의 작위를 수여받아 星主制가 폐지될 때까지 466년 동안 제주도를 지배해오던 사회 계층이었다. 다음표는 『高麗史』에 보이는 성주층의 고려-조선 조정의 방문기사에 대한 표이다.

<표 19> 성주·왕자의 고려 방문표(진영일,2008,전계서,p172표 인용)

왕-년-월-서기	본도명 작위	고려관작명· 성명	관련사항	직 기타
태조 21-12,938	耽羅國太子	末老	來朝	「星主王子」爵
현종 15-7,1024	耽羅尊長	周物		竝爲「雲麾大將軍」
	子	高沒		
현종 20-6,1029	耽羅世子	孤烏弩	來朝	授「遊擊將軍」
정종 9-12,1043	毛羅星主	遊擊將軍/加利	豆羅近因卒 號仍繼之 獻方物	
	王子	豆羅		
	王子	號仍		
문종 3-11,1049	耽羅國	振威校尉/ 夫乙仍 등 17人	來獻土物	
문종 7-2,1053	耽羅國王子	殊雲那	來獻牛黃等 物	殊王子「中虎將軍」 賜公服銀帶
	子	陪戎校尉/古物		
문종 9-2,1055	耽羅國首領	高漢 등 158人	寒食饗	
문종 16-2,1062	耽羅	高叶	來獻土物	
문종 16-10,1062	耽羅星主	高逸	來獻方物	

154) 『高麗史』,第2卷,世家 第2,太祖 2, 太祖 戊戌 21年(938).
冬十二月 耽羅國太子末老來朝賜星主王子爵.

문종 17-3,1063	耽羅新星主	豆良	來朝	授「明威將軍」
문종 22-3,1068	耽羅星主	遊擊將軍/ 加也仍	來獻土物	
선종 3-2,1086	毛羅	遊擊將軍/加於乃	來獻土物	
선종 7-1,1090	星主	遊擊將軍/加良仍	加良仍死	支送賄賂之物
	母弟	陪戎副尉 高福	高福令繼之	
선종 9-2,1092	耽羅星主	懿仁	來獻土物	加「定遠將軍」 賜衣
현종즉위-6,1094	毛羅	高的 등 194人	來賀卽位 獻土物	
현종 1-6,1095	毛羅	高勿 등 88人	來獻土物	
숙종 6-10,1101	毛羅新星主	陪戎副尉 具代		爲「遊擊將軍」
의종 7-11,1153	耽羅縣徒上	仁勇副尉 中	來獻土物	
		連珍直 등 12人		
충렬 20-11,1294	耽羅王子	文昌裕	耽羅今歸我 (高麗)	賜「紅鞞牙笏帽蓋 靴」
	星主	高仁旦		
공민 11-9,1362	耽羅星主	高福壽	耽羅牧胡以 星主高福壽 叛	
우왕 1-11,1375	星主	高實開	濟州人車玄 有以叛	星主等起兵盡誅
우왕 12-7,1386	星主	高臣傑	耽羅歸順始 此	
	子	高鳳禮		
태조 3-7,1394 (이하 조선왕조)	星主	高鳳禮	來獻馬百匹	
태조 4-7,1395	濟州王子	文忠甫	來獻良馬七 匹	賜米百斛
태종 4-4,1404	星主	高鳳禮	改濟州土官 號	星主爲「左都知管」 王子爲「右都知管」
	王子	文忠世		

이렇듯 당시 제주도를 지배하는 세력은 자신들을 성주, 왕자라 칭하며 고려조정에 공물을 헌납하며 지위를 보존하였으며 초기에 이들 직을 주로 세습하는 성씨가 고씨, 양씨, 부씨이나 부씨는 세력이 약해 성주·왕자직을 수행했다는 사료는 거의 없어 주 지배계층의 성씨는 고씨·양씨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성주·왕자직이 양 집단에 의해 세습되었던 것이 고려 후기에 가면 변화되는데 성주직은 고씨가 세습하였으나¹⁵⁵⁾ 왕자직은 양씨에서 문씨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대한 사료¹⁵⁶⁾로는 다음과

155) 고려 후기에 양호가 성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씨가 성주직을 독점하였다.

같다.

“문씨는 처음 보성군 복성현인이었으나 (탐라에)들어와 고씨의 사위가 되었다. 이후 (문씨)자손은 고씨를 잇게 되었고 이에 왕자가 되었다.”

위의 사료를 종합해 보면 제주도 내 최대지배세력은 고씨, 양씨, 부씨, 문씨로 크게 구분되나 부씨는 세력이 약해 도태되고 고려 후기로 가서는 고씨, 양씨, 문씨의 세 집단이 삼분하여 제주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권력관계를 바탕에 두고 제주도 려말선초 분묘(특히 묘역목관묘)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묘역목관묘는 분묘의 규모를 통해 볼 때 상당한 신분을 가진 계급에서 조성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대표유적으로는 하원동분묘유적을 들 수 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하원동분묘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묘역시설(곡장+호석+참배단(2단))의 형식을 다 갖춘 분묘로 묘역시설(곡장+참배단)을 기준으로 할 때 면적은 234m² ~ 319m²로 제주도 내 분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주영민은 그의 논문¹⁵⁷⁾에서 피장자가 확실한 묘역시설 분묘인 가락 허시중공분묘, 밀양 고법리분묘, 파주 서곡리 1호묘의 분묘규모를 당시 사료와의 비교를 통해 품계에 따라 분묘 규모가 정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을 적용하자면 하원동분묘는 1 ~ 2품에 해당하는 고관대작의 분묘로 제주도를 벗어나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신분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내외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그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¹⁵⁸⁾. 그렇다 하더라도 하원동 분묘의 피장자는 제주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임은 분명하다.

그럼 하원동분묘의 피장자는 누구일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먼저 김태능, 김인호 등은 하원동분묘에서 확인되는 석물의 이국풍과 분묘 주변 말무덤(馬塚)을 근거로 들며 제주도로 피난온 백백태자(1호 묘)와 아내(2호 묘) 그리고 아들(3호

156)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濟州牧, 姓氏條.

“初寶城郡之宓城縣人 內胥于高氏 其子孫有系高氏 爲王者.”

157) 주영민, 2011, 전계서.

158) 본고의 p.66~68 참고.

묘)의 묘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발굴을 담당하였던 강창화는 김인호가 주장하였던 ‘上不起墳’, ‘深藏無標’, 말무덤(馬塚), 석물의 이국풍 등에 대해 분묘 앞에 놓여진 상석과 비석을 통해 볼 때 ‘深藏無標’의 ‘無標’가 아니며, 말무덤(馬塚)이라고 주장하였던 흙무더기는 도굴 당시 쌓아 놓은 흙으로 말무덤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석물의 이국풍에 대해서는 지역과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제작될 수 있으며 이는 장인의 기술의 우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국풍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제주도 내에 소위 ‘왕자묘’라 불리는 분묘가 여러 군데 위치하고 있는 점도 들고 있다. 그러면서 하원동분묘의 피장자를 왕자직을 수행한 문창우, 문창유, 문공제, 문신보, 문충걸, 문충보, 문충세, 문승서 중 누군가의 묘이며 2대에 걸친 묘역으로 보았다. 그 근거로는 최근까지 고씨 집안에서 관리되어져 왔는데 이는 1601년 소위 ‘문충기의 난’으로 인해 문충기를 비롯한 11명이 사형당했으며 이로 인해 제주도 내에서 남평문씨가 몰락하게 됨에 따라 외손인 고씨 집안에서 관리하였다고 추론하였다.

최근 강창화의 의견에 반박을 가하는 연구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경주·박재현을 들 수 있다¹⁵⁹⁾. 김경주·박재현은 제주 성읍리 분묘유적의 고찰편에서 하원동분묘와 화북동분묘를 상호 비교하면서 분묘의 규모와 입지, 축조방법을 통해 볼 때 하원동분묘의 피장자가 화북동분묘의 피장자에 비해 상위계층에 있음을 상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창화의 주장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화북동분묘의 피장자를 성주 고봉례로 추정할 경우 하원동분묘와의 위계 맞지 않은 점을 들었다. 즉 성주의 묘제인 화북동분묘가 왕자의 묘제인 하원동 분묘에 비해 위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하원동분묘의 경우 1호 묘와 2호 묘의 중복현상이 나타나는데 만약 강창화의 주장대로 2대에 걸친 묘역이라면 조상의 무덤을 파괴하고 후대의 무덤을 조성하였다고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⁶⁰⁾.

159) 註) 14.

160) 김경주·박재현의 두번째 지적(분묘의 중복현상)에 대해서는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먼저 1930년대 족보를 간행하면서 고봉례의 묘에 대한 자료가 첨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조선시대 3대 송사(訟事) 중 하나가 산송(山訟)으로 묘지와 관련된 송사는 유교적 질서와 가문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송사에 매달렸다. 따라서 비록 시기가 근현대인 일제강점기이긴 하지

그리고 양 분묘의 피장자에 대해 먼저 화북동 분묘의 경우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인 『증보탐라지(1785 ~ 1786)』에는 왕자묘로 기록되었고 『高氏大普(1938)』에 나타나는 고봉례 묘지에 대한 기록은 1938년에 족보를 발간할 당시 추가한 내용으로 보면서 화북동분묘의 경우 부부합장묘는 맞지만 피장자가 누군지는 다양한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원동분묘의 경우 1·3호 묘는 축조방법과 입지상 혈연관계의 직계존비속으로 보았지만 2호 묘인 경우 다른 2기의 분묘와는 혈연관계를 상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분묘의 축조시기를 3호 묘 내부에서 출토된 청동발을 근거로 14세기 이후에 축조되어 16세기 이전까지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원동분묘의 피장자에 대해서는 하원동분묘의 규모상 1·2품에 해당하는 분묘이지만 당시 제주지역에 1품 관직의 작위를 갖춘 사람이 없음을 감안할 때 2품 이하의 작위에 해당하는 인물의 분묘로 보았다¹⁶¹⁾.

하원동분묘정도의 규모를 가진 분묘를 조성할 수 있는 세력은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외부에서 파견나온 중앙관리들, 둘째, 제주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성주·왕자층, 셋째, 러말선조대 제주도로 넘어온 고려 유신들이다.

제주도는 고려 의종 15년(1611)에 최초로 중앙에서 파견관리로 최척경이 탐라령(耽羅令)으로 내려온 이후 중앙정부에서 파견나온 관리 대부분은 3년 혹은 6년의 임기가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갔으니¹⁶²⁾ 이들을 제외하면 하원동분묘를 비롯한 묘역목관묘의 피장자는 제주도에서 그 영향력

만 남의 묘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올렸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증보탐라지』에서 왕자묘라고 일컬어 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 내에 확인되고 있는 왕자묘 중에 성주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즉 왕자묘라고 불려졌다고 그 분묘의 피장자가 왕자라고 추정한다면 성주가 피장자인 묘는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봉례가 사망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조선 건국 후 강력한 중앙집권을 위해 지방지배체제를 강화하면서 성주제가 폐지되었으며 또한 분묘 규모를 제한하는 법령을 내리는 등 지방지배 세력을 억압하는 정책을 펴나갔다. 이러한 영향으로 화북동분묘는 하원동분묘에 비해 규모라든지 축조방법에서 하위단계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따라서 화북동분묘의 피장자는 성주 고봉례와 그의 처 남평문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161) 품계상으로 볼 때 피장자로는 러말 선조대 성주 중 2품에 해당하는 고신결(戶曹典書, 정2품)과 고봉례(右軍同知總制, 중2품)정도로 보았다.

162) 유수암리 산새미오름 분묘는 고려 김수장군의 묘로 알려져 있으나 피장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김수장군은 1270년 삼별초 선발대의 입도를 막기위해 제주에 왔으나 그해 11월 삼별초군과 제주 송담천 전투에서 사망하였다.

이 상당했던 성주·왕자층이거나 고려 말 제주도로 귀향 혹은 이주해온 고려유신들인 입도시조일 것이다. 하지만 입도시조들의 묘는 후손들에게 현재까지 관리¹⁶³⁾되고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여 하원동분묘의 피장자는 성주·왕자직을 수행하던 인물이거나 이들과 관련된 친족들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분묘의 편년에서 살펴보았듯이 묘역목관묘(I期)의 편년은 13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로 마지막 성주인 고봉례의 묘로 알려진 화북동분묘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분묘(성읍리 분묘는 시기적으로 후대로 판단되어 제외한다.)의 피장자는 그 전 시기의 성주·왕자이거나 그 일족일 것이며 하원동분묘의 피장자는 성주나 왕자층 중에서도 상당한 권세를 누린 자일 것이다.

피장자를 살피기 전에 13세기 중후반대의 제주도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3세기는 고려의 최씨정권이 몽고와의 화친을 거부한 채 강화도로 천도하여 전쟁을 벌였으나 패전을 거듭하여 화친을 맺고 개경으로 천도하자 당시 대몽항쟁의 상징이었던 삼별초가 1271~2년 진도에서 제주도로 넘어왔지만 1273년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여몽연합군에 패배한 후 약 100년간 원나라의 직접지배를 받기 시작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당시 제주도 지배 권력의 중심에는 고려조정이 아닌 원나라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제주도내 유적으로는 법화사지가 있다. 법화사는 창건연대에 대한 문헌사료가 없어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발굴조사시 확인된 명문기와¹⁶⁴⁾를 통해 볼 때 1269년 ~ 1279년 사이에 중창된 것으로 알려져 원나라의 직접지배를 받았던 시기에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16세기 후반 이후에 폐사될 때까지 제주도 3대 비보사찰로서 최전성기 때는 경내 노비로 280명을 거느릴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사찰이었다. 이렇듯 육지와 멀리 떨어진 절해고도의 섬인 제주도

163) 필자의 경우를 살펴보다도 입도시조인 좌정승 김만회를 비롯하여 2세 김혁, 3세 김예, 5세 김독회 묘역(이상 광지약)은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에, 8대 김신방 묘역(산방산 앞)은 매년 3월 넷째 일요일에 시제를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다.

164) 제주대학교박물관, 1997, 『법화사지 6·7차 발굴조사 보고서』, 제19집, p89.

‘至元六年己巳○’의 명문기와가 확인되었는데 끝에 희미하게 ‘始’자가 확인되는데 이 명문기와는 93년도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始重脩十六年己卯畢’ 명문기와와 동일한 기와로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지원6년은 원종10년(1269)이며 지원16년은 충렬왕 5년(1279)이므로 1269 ~ 1279년까지 10년에 걸쳐 중창되었음을 보여준다.

내에 있는 법화사가 거대한 규모의 사찰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고려조정의 영향이 아니라 원나라와의 관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려-조선 조정의 분묘보수 제한에 대한 법령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내 성주·왕자층으로서는 하원동분묘만큼의 규모를 가진 분묘를 축조할 수 없었지만 고려 조정이 아닌 원나라와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1·2품에 준하는 권력을 누릴 수 있었다면 하원동분묘의 축조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된다¹⁶⁵⁾. 즉 당시 제주를 직접 지배하던 원나라의 영향력으로 거대사찰로 발전한 법화사처럼 원나라와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상당한 권력을 누린 성주·왕자에 있던 누군가라면 1·2품 정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하원동분묘의 피장자는 13세기 후반 ~ 14세기 후반의 성주·왕자 중 누군가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시기 사료에 성주·왕자로 나타나는 이는 성주 양호와 고인단, 왕자 문창유이다. 성주 양호를 비롯한 양씨 집단은 몽골의 고려 침입(1231년)이 시작된 이래 고려조정의 힘이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고씨가 독점하던 성주직을 빼앗으나¹⁶⁶⁾ 삼별초의 항쟁이 진압된 이후 여몽연합군에 협력한 고씨(고적, 고인단 등)와 문씨(문창우, 문창유)의 양 집단에 의해 성주직은 고씨에게 다시 빼앗겼으며 그동안 양씨 집단이 차지하였던 왕자직마저 문씨 집단이 차지하게 되면서 제주도내 지배력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그 이후 성주인 고적, 고인단을 비롯한 고씨 집단 특히 고인단은 충렬왕 7년(1281)에 여몽연합군이 일본 정벌에 필요한 전함과 경비 마련에

165) 김경주·박재현은 하원동분묘의 축조시기를 3호 묘 출토 청동발을 근거로 14세기 이후에서 16세기 이전으로 상정하였다. 하지만 사진 상으로만 청동발의 기형을 알 수 있어 청동발만으로 축조시기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하원동분묘의 묘역시설과 같은 곡장+참배단(2단)의 형태는 11세기 후기부터 조영되기 시작하여 15세기까지 조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당시 정치상황을 보더라도 (비록 고려시대에도 분묘보수 제한에 대한 법령은 있었지만) 조선 건국 후 강력한 중앙집권을 위해 분묘보수를 강제하는 법령을 내려 규모에 제한을 둔 것을 참고한다면 하원동분묘의 축조시기는 13세기 후반 ~ 14세기 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66) 『高麗史』第26卷, 世家 第26, 元宗 2, 元宗 丙寅 7年(1266) 11月.

濟州星主來見. 甲子 遣正言玄錫以星主如蒙古.

김창현, 2009, 「탐라의 지배층」, 『탐라사 II』, 제주특별자치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p. 228.

“『원사』 권6에 따르면 至元 4年(1267, 고려 원종 8년) 정월에 梁浩가 몽골에 내조하였다. 그러니까 새로이 성주가 된 양호가 고려정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원종 7년 11월에 강도를 방문하고 몽골로 향해 원종 8년 정월에 그 수도에 도착했다고 정리된다.”

공을 세워 충렬왕 10년(1284)에 원으로부터 금패(金牌)를 하사받고 명위장군(중4품하) 안무사사(安撫司使)가 되었으며 충렬왕 18년(1292)에는 정동행성(征東行省)의 차부(筭付)¹⁶⁷⁾로써 탐라지휘사에 임명되었다. 이후 고인단은 부사 문창우, 동지 김선과 함께 탐라를 고려에 환속시켜 주길 원에 청하여 이에 따라 탐라는 충렬왕 21년(1295)에 ‘濟州牧’이 되었으며¹⁶⁸⁾ 이 공으로 고인단은 雲麾上將軍(정3품)이 되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¹⁶⁹⁾.

이후 본격적인 제주에 대한 원의 지배기 후기에는 경제력에서 우위에 있으며 원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문씨 집단이 권력의 우위에 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사료로는 다음과 같다.

제주가 원나라에 예속할 것을 청하였다. 원나라가 부추(副樞) 문아단불화(文阿但不花)를 탐라 만호로 임명하고 만호 박도손을 죽였다¹⁷⁰⁾.

무신일에 탐라(耽羅) 만호 문아단불화(文阿但不花)가 동생 인부(仁富)를 보내 양과 말을 바쳤다¹⁷¹⁾.

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문씨 집단의 누군가가 원나라의 관리인 만호(萬戶)로 제주도로 오는데 성은 문씨 그대로 칭하지만 이름은 원나라식으로 개명하였으며 이는 다음 사료에서 동생 인부(仁富)를 개경에 보냈다는 기사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동생 문인부를 통해 양과 말을 바쳤다는 기사에서 상당한 경제권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지금까지 사료에 나타난 기사를 종합해 보면 13세기 후반 이후 제주도 내 권력구도는 단기간이나마 성주직을 빼앗은 양호를 비롯한 양씨 집단이 권력의 우위에 서지만 삼별초의 패망 이후 양씨 집단은 여몽연합군에 호의적인 고씨와 문씨 양 집단에 의해 쇠퇴하게 되고 이후 고적·고인단

167) 관아(官衙)의 장관이 위원(委員)을 파견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할 때에 주는 공문서.

168) 『高麗史』, 第31卷, 世家 第31, 忠烈王4, 忠烈王 乙未 21年(1295) 夏4月.

癸丑日 以判秘書省事崔瑞爲濟州牧使.

169) 김창현, 1999, 「고려 ~ 조선초 탐라고씨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7, 한국중세사학회, p288~289.

170) 『高麗史』, 第40卷, 世家 第40, 恭愍王 3, 恭愍王 壬寅 11年(1362) 8月.

濟州請隸于元元以副樞文阿但不花爲耽羅萬戶殺萬戶朴都孫.

171) 『高麗史』, 第40卷, 世家 第40, 恭愍王 3, 恭愍王 癸卯 12年(1363) 6月.

戊申 耽羅萬戶文阿但不花遣弟仁富獻羊馬.

으로 대표되는 고씨가 성주직을 되찾아 권력의 우위에 서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제주에 대한 원의 지배 후기에는 문씨 집단의 일원으로 판단되는 문아단불화가 군관인 만호(萬戶, 정4품)에 임명되면서 정치·경제적 우위에 있던 문씨 집단이 순차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하원동 분묘의 피장자는 양씨 집단을 제외한 고씨 집단의 누군가와 문씨 집단의 누군가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하원동분묘에서 1호 묘와 2호 묘가 중첩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보고자에 따르면 가장 상단에 있는 3호 묘가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으며 그 다음은 1호 묘이며 2호 묘가 가장 늦게 축조되었다고 보았다. 1호 묘와 2호 묘의 선후 관계는 묘역시설(곡장)의 중복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1호 묘의 곡장 일부를 파괴하여 2호 묘가 후축되었는데 이러한 묘역시설의 중복현상에 대해 주영민은 동일묘제간 중복과 타묘제간 중복으로 구분하면서 전자를 동일한 묘역시설분묘들끼리 중복되는 것으로 매장주체부는 중복되지 않고 묘역시설만 중복되는 A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묘역시설의 중복현상의 원인으로는 묘역시설분묘가 좋은 입지를 선점한 하위 묘제의 분묘를 파괴하고 조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입사가 가능한 지방향리층 중에서 관인층에 준하는 묘제를 차용한 결과, 무덤의 주변 조영시설이 크게 확장되면서 어쩔 수 없이 주변 무덤을 파괴한 것으로 이해하였다¹⁷²⁾.

즉 하원동 분묘 1·2호 묘에서 보이는 묘역시설의 중복현상은 두 분묘의 피장자가 같은 집단은 아닐 것이며 권력 구도의 변화에 따라 나중에 권력을 잡은 집단(문씨 집단으로 추측)이 전에 권력을 잡은 집단(고씨 집단으로 추측)의 분묘를 파괴하고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원동 분묘의 1호 묘와 3호 묘는 같은 공간에 동일 분묘축조방식을 갖고 있어 같은 집단의 일원으로 볼 수 있으나 2호 묘는 같은 집단이 아닌 후대에 권력을 잡은 타 집단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하원동분묘의 피장자는 고려 후기 제주도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원나라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1품·2품에 상당한 권

172) 주영민, 2008, 「고려시대 묘역시설분묘의 중복현상에 대하여」, 『강원고고학보』 제10호, p95 ~ 103.

세를 누린 집단의 일족들이 점유하던 분묘형태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집단은 고씨와 문씨 집단일 것으로 추측된다¹⁷³⁾.

다음으로는 순수목관묘이다. 순수목관묘는 외부 묘역시설없이 토광 안에 목관만 안치한 형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분묘이다. 이들 분묘에서 확인되고 있는 부장유물은 주로 분청사기와 백자 등의 15 ~ 16세기대 유물로 이 시기가 주 조성시기로 보인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척박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제주민들은 육지부와 비교하여 매우 빈궁한 생활을 하였다¹⁷⁴⁾. 따라서 분묘를 조성할 때 부장유물로 각종 기물을 넣을 환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묘내에서 부장유물이 확인되었다면 그 분묘의 피장자는 지방 향리층 계급이거나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양민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직장묘이다. 직장묘로는 지금까지 금성리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직장묘는 앞서 제1절에서 유형별 분묘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동일 유적 내에서 확인되고 있는 인골의 대부분이 영유아이며 일반적으로 분묘를 조성하는 곳이 아닌 해안사구층에 분묘를 조성하였다는 점을 통해 볼 때 돌림병이나 기근 등에 의해 영유아의 사망 예가 늘자 해안사구층에 평장의 형태로 분묘를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동일 유적 내에서도 부장유물의 조합상을 통해 볼 때 신분적 혹은 경제적으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금성리분묘유적 I의 8호묘와 11호묘이다. 8호 묘인 경우 분청사기+백자+청동순가락+구슬 등의 유물 조합상을 보이며 분묘 주변으로 판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묘역의 범위를 표시하여 분묘 축조에 공을 들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호묘의 피장자는 지방 향리계급이거나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양민의 자제로 보인다. 이와 달리 11호 묘는 모래층을 정지작업 없이 대충 파서 피장자를 안치하였는데 안치된 자세가 가지런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부장유물도 확인되

173) 이러한 당시 상황이 하원동분묘의 석상을 이국풍(제주+고려+원)으로 제작하게 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74)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용어가 삼무(三無, 도둑, 거지, 대문)이다. 즉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매우 빈궁한 생활을 하였으며 이러한 생활로 인해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어려워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문도, 재산을 훔칠 도둑도 없으며 모두 다 굶주렸기 때문에 거지도 없어 이러한 삼무란 용어가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20> 금성리분묘 I 8호 묘 전경 <그림 21> 금성리분묘 I 11호 묘 전경

지 않아 하위층의 자제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볼 때 동일 유적내에서도 신분적 혹은 경제적 차이에 따라 분묘 축조의 형태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석곽묘는 1기만 확인되고 있어 분묘의 성격에 대해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동시기의 분묘형태보다는 판석을 이용하여 토광내부에 석곽을 축조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지역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향리층에서 점유하던 분묘형태로 보인다.

종합하여 보면 제주도 러말선초 분묘 가운데서도 피장자의 신분계급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분묘 형태가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묘역목관묘인 경우 제주도 내 일정 계급이상의 집단들이 점유하던 분묘형태로 제주도 내에서 이 정도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집단은 성주·왕자층 밖에 없어 묘역목관묘의 주 피장자는 성주·왕자직 집단의 일원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조선 초(15세기 초 이후) 이후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위해 지방 지배질서가 강화되면서 성주제가 폐지되었고 이 영향으로 지방지배세력에서 지방 사족층 혹은 지방 향리층으로 전락하면서 분묘의 규모도 I 期の 대형화에서 II 期の 소형화, 간략화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 期에 해당하는 묘역목관묘인 경우 피장자는 성주·왕자직을 수행했던 인물이거나 그 인물이 속한 집단의 일원이며, II 期 묘역목관묘인 경우에는 지방사족층 혹은 지방 향리층의 묘일 것으로 추측된다.

순수목관묘는 축조시기가 15세기 이후로 부장유물의 조합상으로 볼 때

지방 향리급의 신분이거나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고 있는 양민계층이 점유하던 분묘형태로 판단된다. 직장묘는 현재까지 제주 금성리분묘유적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정확한 분묘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장자가 영유아이며 매장지가 해안사구층임을 감안할 때 특수목적을 띠고 인위적으로 조성된 분묘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금성리분묘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서는 추가 발굴을 통해 발굴자료가 축적된 후 진전된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 맺음말

지금까지 제주도의 정식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러말선초대 분묘유적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정식발굴조사된 분묘 중 본고에서 자료로 인용한 분묘는 수십기에 불과하여 이들 분묘만으로 제주도 러말선초대 분묘의 성격 및 당시 문화상을 복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약하지만 제주도 분묘연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주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정식발굴조사된 분묘를 대상으로 분묘형태와 부장유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료들을 통해 분묘변화의 원인으로서 당시 제주도의 상황을 파악하였는데 이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 내 러말선초의 분묘들을 살펴보면 대개 이시기의 분묘형태는 목관묘(묘역목관묘, 순수목관묘), 직장묘, 석곽묘로 구분되며 시기적으로는 묘역목관묘에서 순수목관묘로 분묘가 변화되며 직장묘와 석곽묘는 순수목관묘와 축조시기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I A식인 묘역목관묘는 호석의 형태에 따라 I A1식(판석조 묘역목관묘), I A2식(할석조 묘역목관묘)으로 나뉘는데 16세기에 들어서는 그 수가 감소하고 분묘의 규모도 소형화가 진행되어 시간이 갈수록 순수목관묘로 대체되어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제주도에 대한 자치적 지배권을 갖고 있던 성주·왕자직이 조선 건국 후 강력한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태종 4년에 屋主制가 폐지되면서 제주도 지배세력에서 지방사족층으로 변모하였으며 이러한 영향력의 감소가 분묘규모의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IB식은 순수목관묘로 현재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분묘 형태이다. 제주도에서도 14세기 후반대부터 축조되기 시작하여 15세기 중반 이후에는 주 분묘형태로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형(직장묘)는 금성리분묘유적에서만 확인된다. 특이점은 일반 토양을 굴착하여 묘를 쓴 것이 아니라 해안사구층 즉 모래를 굴착하여 묘를 조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봉분을 쓸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고 이를 통

해 볼 때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일부러 해안사구를 묘지로 택해 매장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 이유로는 분묘 내에서 주로 확인되는 피장자의 연령이 영유아로 돌림병이나 기근 등으로 사망자가 급증하자 해안사구에 평장의 형태로 매장한 것으로 추측된다.

Ⅲ형은 1기만 확인되고 있어 분묘의 성격에 대해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동시기의 분묘형태보다는 판석을 이용하여 토광내부에 석곽을 축조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지역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향리층에서 점유하던 분묘형태로 보인다.

분묘의 입지는 I 期에는 중산간 지대를 주로 선호하였으며 입지도 주로 능선을 선택하여 분묘를 축조하였으나 II 期로 갈수록 중산간 지대에서 해안저지대로 이동되며 입지 또한 능선에서 벗어나 사구층, 평탄대지, 완경사면, 급경사면 등에 분묘를 축조하여 다양하게 변화됨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묘 입지 변화의 원인으로는 조선 창건 후 양민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였고 조선 초기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강조하면서 각 지방향교와 관아들을 중심으로 충·효사상을 보급하여 상례문화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I 期에는 명당을 찾아 중산간 지대에 주로 축조하였다면 II 期에는 양민들이 자신들의 생활공간과 멀지 않은 위치를 묘지로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장유물은 도굴 등의 이유로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I 期에는 청동순가락, 청동젓가락, 동곳, 청동제품, 청동발/합 등의 다양한 청동기류의 부장양상을 보였으며 자기류로는 도기류가 주로 부장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II 期에는 청동기류는 청동순가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I 期에 비해 단순한 양상을 보이며 자기류로는 분청사기와 백자가 주 부장유물로 등장한다. 또한 분청사기+백자+청동순가락, 백자+백자+청동순가락의 부장양상을 보이다 시간이 갈수록 부장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후기로 갈수록 박장(薄葬)화로 진행됨이 관찰되었다.

제주도 고고학은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그 중심시대는 선사시대로 한정되어 있었고 역사시대라 할지라도 건물지 등에 집중되어 있어 고려-조선시대 분묘에 대한 조사는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분묘는 여타 유구에 비해 형태적으로 정형성을 띠고 있으며 시간적으로 보수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한 변천과정을 통해 당시 문화

를 밝힐 수 있는 많은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선사시대 뿐만 아니라 고려 - 조선시대 분묘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 당시 문화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유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명확한 언급을 하지 못한 점과 육지부 분묘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의 부족, 금성리분묘유적의 성격 그리고 하원동분묘로 대표되는 묘역목관묘의 피장자에 대한 해석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며 이번 글을 통해 제주도 분묘 연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1. 사료

『太宗實錄』
『世宗實錄』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宣祖實錄』
『觀風案』

2. 단행본

강경숙, 2012, 『韓國陶磁史』, 예경.
고석규 외, 2000,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대우학술총서477, 아카넷.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韓國考古學事典』.
김유정 · 손명철, 2007, 『제주의 무덤』, 제주의 민속문화2, 국립민속박물관.
김원룡, 2005, 『한국고고학개설』 3판, 일지사.
박용운, 1985, 『고려시대사(상)』, 일지사.
제주도, 「지리」, 『濟州道志』 第1卷.
——, 「문화유산」, 『濟州道志』, 第7卷.
주희 지음, 임민혁 옮김, 1999, 『주자가례』, 예문서원.
진영일, 2008,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3. 논문

강소영 외, 2012,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출토 인골의 자연과학적 분석」,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옛 탐라인의 실체규명’ 학술 심포지엄, 제주고고학연구소.
고금님, 2005, 『호남지역 고려 석곽묘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금님·장지현, 2013, 「호남지역 고려 분묘의 변천양상과 그 의미」, 『호남고고학보』 43, 호남고고학회.

- 高富子,1986,「濟州島民의 喪俗」,『濟州島研究』,第3輯,濟州島研究會.
- 고성영,2003,『고려 석곽묘와 토광묘 연구-혼재분포유적을 중심으로-』,명지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고현수,2004,『남한지역 고려고분의 부장품 매장방식 연구』,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선,2009,『조선시대 토광묘의 편년연구』,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호,2008,『조선 전기 무덤의 조성방법과 변천과정 : 석곽묘에서 회곽묘로의 전환』,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수,2007,『호남지역의 고려 분묘 출토 청자 연구』,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옥,1986,「濟州의 風葬說에 대한 試論」,『濟州島研究』第3輯,濟州島研究會.
- 김용선,1989,「고려 지배층의 매장지에 대한 고찰」,『동아연구』17호,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김유정,2011,「아무도 모르는 석상의 수수께끼 -서귀포시 하원동 傳왕자묘」,『제주 풍토와 무덤』,서귀포문화원.
- 김은경,2008,『청자로 본 영남지방 고려시대 분묘』,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철,1996,「고려무덤에 관한 연구」,『평양일대의 벽돌칸 무덤,고려무덤,삼국시대 마구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출판사.
- 김인호,1995,「제주도 고분에 대한 일고찰」,『제주도사연구』,제4집,제주도사연구회.
- 김재현,2012,「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출토 인골의 형질학적 검토」,제주 금성리 분묘유적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옛 탐라인의 실체규명’ 학술 심포지엄,제주고고학연구소.
- 김종진,2007,『조선시대 목관묘의 유물부장형태에 관한 고찰』,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2001,『朝鮮初期 中央政府의 ‘濟州島 政策’』,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현,1999,「고려~조선초 탐라고씨의 동향」,『한국중세사연구』7,한국중세사학회.
- _____,2009,「탐라의 지배층」,『탐라사Ⅱ』,제주특별자치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 김태능,1967,「원순제의 피난궁전지와 백백태자의 묘」,『제주도』31.

- 김태은, 2008, 『고려시대 매병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판석, 2008, 『경남지역 조선시대 분묘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상, 2013, 「조선시대 회곽묘의 변용에 대한 소고-이단굴광묘의 발생과 관련하여-」, 『白山學報』 第95號, 白山學會.
- 김현, 2005, 『경남지역 무문토기시대 무덤에 대한 연구-전·중기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기선, 2003, 「제주 최초의 석상 조성적 조명 연구보고」, 『인문학연구』 제10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박미옥, 2006, 『고려 토광묘 연구-부장양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미옥, 2005,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배, 2012, 『충청지역 고려·조선묘의 내부시설 연구 -요강과 벽감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2009, 『충북지역 고려고분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배, 2008, 『고려청자 매병의 발생과 변천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수 외, 2008, 「조선시대 호서지역 묘제 일고찰」, 『야외고고학』 제5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 이희인, 2003, 『충부지방 고려시대 고분연구-석곽묘와 토광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4, 「충부지방 고려고분의 유형과 계층」, 『한국상고사학보』 제45호, 한국상고사학회.
- 주영민, 2004, 『고려시대 분묘 연구-도기편년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5, 「고려시대 지배층 분묘연구-9~16세기 묘역시설분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17호, 부경역사연구소.
- _____, 2008, 「고려시대 묘역시설분묘의 중복현상에 대하여」, 『강원고고학보』 第10號, 강원고고학회.
- _____, 2011, 『고려 지방분묘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순녀, 2004, 『경북부지역 고려분묘의 형식과 편년』, 안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은경, 2010, 『고려시대 양광도지역 분묘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정욱, 2002, 『고려시대 석곽묘 연구-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문필, 2005, 『고려시대 고분출토 청자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2,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출토 자기의 특징과 성격」,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옛 탐라인의 실체규명’ 학술 심포지엄, 제주고고학연구소.

4. 보고서

강창화, 1998, 「제주 마을의 고고학적 연구」, 『서귀포문화』, 제2호.

건국대학교박물관, 1995, 『충주 단월동 고분군 2차발굴조사보고서』.

국립공주박물관, 1995 『천안 남산리 고려묘』.

국립제주박물관, 2004, 『학술조사 보고서』, 국립제주박물관 학술총서 제1책.

경기도박물관, 2001, 『용인 마북리 고려고분』.

성림문화재연구원, 2007, 『경주 물천리 고려묘군 유적』.

제주고고학연구소, 2011, 「제주 금성리 436번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_____, 2012, 「제주 애월읍 금성리(고려말 ~ 조선초)분묘유적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_____, 2012, 『서귀포 상창리 분묘』.

제주대학교박물관, 1997, 『탐라성주고봉례묘추정지-제주시 화북동 분묘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1997, 『법화사지 6·7차 발굴조사 보고서』 제19집.

_____, 2006, 『제주 토평동 방형석곽묘 유적』.

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2000, 『제주 하원동 분묘군』.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제주국제공항착륙대 확장공사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용담동 다호마을 유적 I』.

_____, 2010, 『제주 사계리 유적』.

_____, 2011,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립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_____, 2012, 『제주 성읍리분묘유적』.

조선총독부, 1916, 『大正五年度古墳調査報告』.

충주박물관, 1992, 『충주 단월동 고려묘 발굴조사보고서』.

한림대학교박물관,1988,『여주 매릉리 용강골고분군 발굴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2002,『안산 대부도 육곡 고려 고분군 발굴조사 보고서』.
_____,2006,『안산 대부도 육곡 고려 고분군Ⅱ』.

제주도 려말선초 분묘 연구

김 봉 찬

목포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고고학전공
(지도교수 이 영 문)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제주도 려말선초 분묘를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분묘의 시기별 변천과 관련하여 성주제(星主制)를 중심으로 성주제 폐지 이전과 이후의 지방지배세력의 변화와 분묘의 변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이를 통해 당시 제주도의 사회적 특징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식발굴조사를 통해 획득한 분묘 자료에 한정하여 분묘의 형태와 내부 부장유물을 살펴보았으며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분묘의 유형과 시기를 구분하였다. 분묘의 유형은 크게 목관묘(I형), 직장묘(II형), 석곽묘(III형)으로 구분되며 목관묘는 매장주체부 외부의 묘역시설에 따라 묘역목관묘(IA식)와 순수목관묘(IB식)으로 세분되며 묘역목관묘(IA1식)은 호석의 형태에 따라 판석조 묘역목관묘(IA1식)과 할석조 묘역목관묘(IA2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제주도 려말선초 분묘의 시기구분은 15세기 초를 기준으로 I期和II期로 구분이 가능하며 화북동 분묘유적을 기준유적으로 삼았다.

I期는 IA1식과 금성리유적은 제외한 IA2식의 묘역목관묘와 IB식 중 제주 관광미항부지내 유적(II구역 9호묘)이 속한다. IA1·2식 분묘의 규모는 II期에 비해 대형화를 유지하며 입지는 주로 해발 200m 이상의 중산간지대에 주로 축조되며 능선상에 분묘를 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장유물은 도굴 등의 영향으로 거의 남아있지 않으나 양호하게 남아있는 상창리분묘유적을 통해 볼 때 도기류가 주 부장유물로 확인되며 다양한 청동기류가 부장됨을 알 수 있다. IB식에 해당하는 제주 관광미항부지내 유적은 IB식 중에서도 대형에 속하며 부장유물로는 청자접시와 청동손가락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입지는 해발 50m 이하의 해안저지대

에 입지하고 있어 동 시기의 분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Ⅱ期에는 주로 IB식이 축조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제주도 내 주요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IA1식 중 제주 성읍리분묘유적과 Ⅱ·Ⅲ형이 Ⅱ期에 속한다. Ⅱ期에는 IB식이 주로 축조되고 있는데 IB식은 토광내부에 요갱이 설치된 분묘가 확인되는데 요갱 내부에서 확인되는 부장유물로는 백자대접과 백자잔이 확인된다. 또한 제주 관광미항부지내 유적 중 Ⅱ구역 3~8호 묘가 횡렬상의 형태로 나란히 집단묘로 조성되어 족분의 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IA1식 중 제주 성읍리분묘유적과 Ⅲ형의 제주사계리분묘유적은 형태상 지방의 유력자분묘로 판단되는데 I 期の IA1·2식 분묘에 비해 규모가 소형화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Ⅱ형인 직장묘가 확인되는데 금성리분묘유적에서만 확인된다. 해안사구층에 축조되었으며 분묘내부에서 확인되는 인골이 대부분 영유아로 돌림병이나 기근 등으로 영유아의 사망예가 늘자 사구층을 선택해 평장의 형태로 매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Ⅱ期에는 I 期에 비해 해발 100m 이하의 해안저지대로 입지 양상이 변화되며 매장지 또한 능선상에서 완경사면, 급경사면, 평탄대지, 해안사구 등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장유물로는 주로 분청사기, 백자 등이 부장되며 청동기류 중에는 청동손가락이 주로 확인되는데 I 期에 비해 청동기류의 부장이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묘의 변화원인으로는 고려말 조선초 제주의 지배세력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주도는 육지와는 멀리 떨어진 절해고도의 섬으로 중앙의 지배권력이 도달하기 힘들어 중앙정부의 묵인아래 성주제(星主制)라는 제도를 통해 자치적 지배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성주제(星主制)는 고려 말 원나라의 직접 지배기에서도 나름 자치권을 획득하며 제주도 내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조선 건국 후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위해 지방지배체제를 강화해 나가자 당시 제주의 성주 고봉례와 왕자 문충세가 성주·왕자직을 반납하면서 주체적 지방지배세력에서 지방사족층 혹은 지방향리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분묘축조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법령이 강하게 시행되자 IA식 분묘의 규모가 대형화에서 소형화로 진행되었으며 점차 소멸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IB식은 조선 건국 이후 성리학의 보급과 함께 양민들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상례문화가 전파되어 IB식 분묘 축조가 활발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사회적 변화로 인해 일부 계층에서 독점하던 I A1·2식은 점차 감소하면서 소멸되었으며 지방향리층 및 일반 양민층의 주로 사용한 IB식이 주 묘제로 정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 러말선초 분묘의 유형과 부장유물 그리고 시기별 변천과정을 통해 분묘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아직 조사예가 미진하고 자료가 부족하여 명확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발굴조사를 통해 자료가 축적되면 계속 보완하여 진행할 것이다.